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8 호 8 월 15 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9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 8 호 (165)

1959년 8월 15일

내 용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 자료—

권두언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대한 당 단체들의 조직 지도적 역할을 더욱 제고하자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계속 천리마의 속도로 더욱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민족적 명절 8.15 해방 14주년을 맞이한다.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과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지도하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제 1차 5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공업 생산액적으로 제 1차 5개년 계획을 2년 반이나 앞당겨 완수하는 무비의 토력적 위훈을 발휘하였다.

당 단체들의 과업은 달성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당이 제기한 6~7년 내의 전망 과업의 실현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적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는 데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제도는 완전히 승리하였다. 이 제도는 나라의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당은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객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 법칙들과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면서 정확한 정치 로선과 경제 정책들을 제시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들의 철저한 관철 여부는 각급 당 단체들의 조직 지도자적 역할에 의존한다. 혁명 사업 일반이 그러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은 당 단체들의 주도 세밀한 조직 사업과 정치 사업에 의해서만 그의 성과적 수행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 인구 구성의 절대 다수 성원인 농민 대중은 개인 경리 체계에 망라되여 있었으며 도시의 광범한 소자산 계급들이 역시 그러하였다. 최근 년간에 이들은 모두다 당의 정확한 지도 밑에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 경리 체계에 망라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였다. 우리 인민 경제에서 계획적(균형적) 발전 법칙은 전체 포괄적으로 작용하게 되였다.

경제 건설과 경제 생활에서의 조직성, 계획성, 규률성이 가지는 의의는 더욱 커졌다. 이것은 경제 활동의 모든 령역에서 일상적인 요구로 되였다.

당 단체들은 고도로 발전된 현대적인 기술적 토대 우에서 급속히 장성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경제의 모든 련쇄된 고리들에서 당의 정책이 철저하게 관철되도록 세련된 지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강조하신 바와 같이 《경제 사업은 사회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이는 곧 우리의 혁명 과업이다》(《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은 당 기관들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럴 수 없다.

당은 혁명의 총 참모부이며 그의 승리의 조직자, 지도자이며 인민의 정치적 수령이다. 경제 건설의 령역에서도 당 단체의 이러한 지도적 사명과 역할은 례외로 될 수 없다.

당 단체들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조직 지도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 기관, 경제 기관들로 하여금 당의 경제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세심한 지도와 방조를 주어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 대렬을 반석같이 꾸리고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우고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들을 동원하며 당 정책의 집행 여부를 감독하며 집행 과정에서 발로되는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 잡아 주며 실정에 따라 항상 새 방침을 내세우는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당 사업 방법이다》(《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정신에 근거하여 당 사업 방법을 더욱 대담하게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투쟁이 전 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투쟁은 앞으로 계속 심화되여야 한다.

경제 건설에 대한 당 단체들의 지도에서 무엇이 아직도 문제로 되고 있는가.

그것은 적지 않은 당 단체들이 자기의 활동을 실제적인 당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시키지 못하고 행정 사업을 대행하거나 그에 추종하는 데 있다.

경제 건설 사업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당 단체의 가장 큰 혁명 과업이라고 하여 당 내부 사업에는 주력하지 않고 경제 실무적 사업을 당 기관에서 직접 조직하며 행정 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경제 사업에서 일시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도 있으며 걸리고 있던 당면한 개별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방법은 경제 건설에 대한 당 단체의 지도를 약화시키며 일정한 시기에 가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후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 하면 이러한 사업 방법은 당 기관으로 하여금 정치적 지도 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할 수 없게 하며 행정 기관의 창발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오늘에 와서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당 일'군은 거의나 없다. 그러나 당 사업 실천에 있어서는 낡은 사업 방법이 적지 않게 답습되고 있다. 그것은 당 사업 방법이 단순한 실무적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일'군들의 사상, 관습상 문제와 긴밀히 관련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칙만 강조하여서는 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문제 해결의 첫째 고리는 일'군들의 사상 관점을 바로 잡는 것이요, 다음으로는 당 사업의 정치적 실무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당 일'군들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다.

매개 당 일'군들이 군중에 대한 혁명적인 사상 관점, 행정 기관, 경제 문화 기관 일'군들에 대한 정당한 태도,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거하는 사업 작풍 즉 당의 군중 로선 원칙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매개 당 일'군들은 행정 사업을 대행하거나 행정식 방법으로 사업하는 것이 평범한 문제인 것이 아니라 당과 혁명에 많은 손실을 주는 유해한 사업 작풍이라는 것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당 중앙 위원회가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사업을 계속 대행하는 것은 당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한 당적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하는 태도의 표현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사물 발전이 그러한 바와 같이 사업 방법의 개선도 역시 새 것과 낡은 것 간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실현된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들에게 투쟁 방향도 명확히 제시하여 주었고 사업 방법도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였다. 문제는 매개 당 일'군들이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정신을 체득하고 자기가 처하고 있는 구체적 실정에 맞게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더욱 진지하게 투쟁하는 데 있다.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당 단체들의 투쟁은 김 일성 동지의 다음과 같은 교시 실천을 강화하는 데로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각급 당 단체들은 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간부들과 당원들을 교양하며 대중 속에 당 정책을 해석 침투시키며 그들을 당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시키는 군중 공작을 당 사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에서).

행정 기관, 경제, 문화 기관들에 대한 지도와 통제는 《당 중앙의 정책과 로선에 근거하여 방침을 세우고 분공을 주며 실행 정형을 검열하는 방법으로》(《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당 단체와 당 지도 기관들이 행정 사업, 경제 사업에 대한 방향적 지도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집체적 지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당 사업의 기본 원칙의 하나는 지도의 집체성이다. 행정 기관, 경제 기관들에 대한 당 단체의 지도와 통제는 본질에 있어서 집단적 통제인 것이다.

공장, 기업소의 당 위원회들과 도, 시, 군 당 위원회들은 모든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당 위원회에서 해당 부문 일'군들의 참가하에 집체적으로 심중히 토의 해결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당 정책 집행을 위한 자체의 사업 방법과 방침들을 정확히 수립하는 것이 바로 경제 사업이나 행정 기관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의 중요한 측면이다.

경제 사업에 대한 당 단체의 방향적 지도는 매우 심중하게 하여야 한다. 당적 지도의 심중성에 대하여 말할 때에 첫째 조건으로 되는 것은 당 정책과 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 방침에 대한 충실한 태도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당적 지도와 통제란 있을 수 없다.

지난 시기에 함북도 내 일부 시, 군 당 위원회들과 리 당 위원회들은 당의 농업 정책 특히 축산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방향에서 농촌 경리를 당적으로 정확히 지도하지 못하였다. 결과에 김 일성 동지가 직접 현지에서 교시한 기본 정신 즉 축산업을 위주로 하여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며 농민 생활을 향상시키라는 지도적 방침을 관철하지 못하였다.

강원도 내 일부 수산 부문 당 단체들에서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사철 고기를 잡으며,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으며, 원해에서도 잡고 연해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으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식으로 쉴새없이 모든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김 일성 동지의 구체적인 지도적 교시들을 철저히 관철시키지 않았다.

이 도내 수산 부문의 일부 불견실한 자들은 당의 수산 정책을 사상적으로 접수하지 않고 《원해에는 고기가 없다》, 《중세소 어업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등 이 핑계 저 핑계하면서 당 정책 관철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현상들과 제때에 견결히 투쟁하면서 당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그의 철저한 관철을 보장할 방침을 수립집행 하는 것이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경제 건설 분야의 모든 당 지도 기관들은 당에 무한히 충실한 일'군들로써 더욱 강화되여야 하며 그의 집체적 활동을 적극화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 결정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초급 당 단체 지도 기관들로 하여금 당 정책을 고수하며 어떤 복잡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나 흔들리지 않고 당적 원칙을 견결히 옹호하며…투쟁하는 강철같은 정치적 조직체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당 지도 기관들의 집체적 활동, 정치적인 지도적 활동을 더욱 적극화한다면 지난 시기에 부분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당 위원회 내의 어떤 개별적 일'군의 당 정책에 대한 불충실성이나 착오로 인하여 당 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는 현상은 결코 발생될 수 없을 것이며 또 반드시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집체적 지도의 의의는 모든 문제 해결에서 일면성과 우연성을 극복하며 개인적인 독단을 허용하지 않는 점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당 일'군들의 개인적 통제로 대치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다고 하여 어떤 문제든지 모두가 집체적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방향이 명확하고 해결 방도가 단순한 문제 해결은 구태여 당 회의의 집체적 심의 때문에 지연시킬 하등의 리유도 없다.

당 일'군들은 당 정책과 당 결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들을 주의 깊이 관찰 연구할 줄 알아야 하며 해결을 요구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민첩하게 포착하여 해당한 조치를 제때에 취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경제 사업에 대한 당 기관들의 방향적 지도는 심중하게 고려된 기초 우에서 정확하게 진행되여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당 위원회들이 자체의 구체적 실정에 대한 세심한 료해 연구 사업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한다. 실정을 모르고서는 발언권이 설수 없으며 당 정책의 정확한 실행 방침은 더구나 수립할 수 없다.

당 위원회들은 해당 공장, 기업소들과 경제 기관의 정치적 참모부이다. 그는 당원 및 비당원 대중과의 상시적인 밀접한 련계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당의 군중 로선 원칙에서 대중과의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모든 당 위원회들은 광범한 군중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 실정에 완전히 정통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실정을 료해한다는 것은 다만 현재의 형편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정확히 조사 분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내부에 파묻혀 있는 예비와 잠재력 특히는 군중의 사상 동태, 그들의 요구와 결의, 창발적 의견들을 날날이 료해하여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타산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은 군중 속에 흩어져있는 개개의 고립된 의견들을 하나의 집대된 의견으로 종합한다면 개별적 사람으로써는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담한 발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 주고 있다.

주을 아마 공장 당 단체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높은 정치적 열성, 그들의 구체적 경험과 새로운 결의들을 제때에 포착하여 대담한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불과 5대의 선반기를 가지고 년간 50 여대의 공작 기계를 생산하여 공장의 기술적 토대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며 금년 말까지 3,000추의 방직기를 만들어 매일 4,000~4,500메터의 마직물 생산을 보장할 것을 결의하고 그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다.

당 위원회들의 실정 료해——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군중을 파악하는 것인데 군중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당 정책의 정확한 실행 방침을 수립할 수 없다.

행정 기관, 경제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는 집단적 통제인 동시에 군중 로선에 립각한 대중적 통제인 것이다.

공장, 기업소 내 당 위원회들에서는 집체적 협의제와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에 기초하여 매 시기마다 당 정책 집행에서의 중심 고리를 정확히 틀어 쥐고 대중의 력량을 분산시킴이 없이 그 중심 문제 해결에로 정확히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현실은 주관적인 예상보다 언제나 복잡하다. 특히 현대적인 기술적 토대 우에 건설된 대규모의 공장, 기업소에 있어서는 실정이 더욱 복잡하다.

그러나 당 위원회들은 공장 규모가 아무리 크고 실정이 복잡하고 제기되는 과업이 많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용해되여 지도에서 산만성과 피동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당적 령도의 의의는 아무리 복잡한 환경 조건하에서도 혁명 과업의 경중을 타산하여 그의 집행에서의 선후차를 가려내며 중심 고리를 틀어 쥐고 그의 관철을 촉진시킬 줄 아는데 있다.

만일 당 일'군들이 행정 사업을 간섭 대행한다면 수천 수만 가지를 헤아리는 실무 기술 사업의 대해에 빠져서 헤여나오기 어려우며 행정 사업에 대한 방향적 지도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사업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을 극복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 위원장과 행정 일'군과의 관계는 비

유해 말하면 배에서 키잡는 사람과 노젓는 사람과의 관계와 같다. 행정 일'군은 앞에서 노를 젓고 당 위원장은 뒤에 앉아서 키를 잡고 좌로 우로 하고 지시하면서 방향을 옳게 잡아 주어야 배를 곧바로 몰고 갈 수 있다≫(≪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당 정책과 구체적 실정에 근거하여 정확한 사업 방침을 수립하는 것은 당적 지도의 힘있는 첫 출발로 된다.

당 위원회들이 옳은 방침을 세웠고 대담한 결심을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는 확실한 물질적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와 동시에 력량 배치와 사업 분공을 정확히 조직하여야 한다. 제기된 과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그의 실천을 위한 투쟁에 가능한 모든 력량들을 조직 동원하는 구체적 조치가 없이는 어떤 사업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쟁취할 수 없다.

이러한 조직 사업은 오직 당 기관들만이 할 수 있다. 당은 근로 대중의 다른 모든 조직들중에서의 최고 형태의 조직이며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주는 정치적 수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은 정권 기관, 경제 기관, 근로 단체 등 자기의 강력한 인전대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당 정책을 대중 속에서 관철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행정 관리 기관, 경제 기관들에 사업 방향과 사업 분공을 명확히 주어 그 기관 일'군들로 하여금 당 정책 집행을 위하여 최대의 정력과 창발성을 발휘케 하여야 한다.

례를 들면 채굴 공업 부문 기업소 내 당 위원회들이 기본 굴진과 준비 굴진을 채광과 채탄에 선행시킬 데 대한 방침을 토의 결정하였다고 하자.

당 위원회는 이 사업과 관련한 정치 사업에 우수한 력량들을 선발 동원하며 중요한 부문의 당 력량 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소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이 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와 경제 기술적 대책들을 책임적으로 강구케 하여야 한다.

토의는 집체적으로 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개별적 책임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 당 단체들에서 축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데 대한 당 정책 집행을 조직한다면 당 기관들에서 사료 기지 강화를 위한 조사 사업으로부터 2모작의 대대적인 도입과 영농 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제 대책들을 집체적으로 토의 강구하고 행정 일'군들에게 사업 분공을 정확히 주어야 하며 당 기관들에서는 대중 속에서의 당 정치 사업과 조직 사업에 주력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간부들을 사상적으로 준비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당 정책을 깊이 체득하고 매시기에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히 알게 함으로써 이들이 자기 사업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여 모든 사업을 주동적으로 자립적으로 수행케 하여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당 단체들에서는 례외없이 경제 사업의 앙양을 정확히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당 기관들에서는 당 사업과 행정 사업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모르며 사업 분공을 똑똑히 조직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자신에 도맡아 처리하려고 하는 데서 행정 대행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의 사업도 조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고 있다.

특히 방향을 주고 분공을 조직한 사업들이 어떻게 집행되며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창조되였고 어떤 편향이 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 확인하고 새로운 대책들을 기동적으로 강구하는 집행에 대한 검토 총화 사업은 많은 당 단체들에서 미약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험은 일부 경제 분야에서 당 정책 관철이 미약하거나 그것이 외곡되는 등 현상이 비교적 오래 지속된 원인의 10중 8, 9는 집행에 대한 검열이 제때에 옳게 진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아직도 일부 당 기관들에서는 사무실적 사업 작풍을 결정적으로 퇴치하지 못하고 회의에서 강조하고 결정서, 계획서를 하달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군중 속에 들어 가서 정치 사업을 진행하며 제기된 과업들의 실천 정형을 료해 검토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지 않고 있다.

집행에 대한 검열은 해당 부문 일'군들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나 주로는 하부에 직접 내려가서 산 현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면 당 위원회들은 경제 사업에 대한 방향을 주고 분공하고 검열이나 하면 자기 임무를 다 수행한 것으로 되는가.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것은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통제는 당 정책을 연구하고 그를 대중 속에 침투시키며 그들을 조직하여 경제 과업을 집행하도록 하며 그 사업이 잘 집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을 감독하며 잘 하는 것은 장려하고 못되는 것은 고쳐 주는 데 있다≫(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에서).

당 기관들은 경제 사업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되 이 책임은 행정 기관, 경제 기관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정확히 실시하며 당원 및 비당원 대중 속에서의 조직 정치 사업 즉 군중 공작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리행하여야 한다.

당 중앙 위원회는 당 정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킬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결정적 력량은 로동계급을 위시한 근로 대중 자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레닌이 교시한 바와 같이 ≪창조적인 산 사회주의는 인민 대중 자체가 건설한다≫(전집, 제 26권, 255페지). 그러므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킴에 있어서 그의 성과 여부는 근로자들의 정치적 각성 정도에 의존한다. 물론 대중의 정치적 각성은 결코 그것이 저절로 자연 생장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 인민 대중의 위력의 원천은 당 주위에 튼튼히 단결하며 당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하며 그의 통일적이며 과학적인 령도를 받는 데 있으며 당의 위력은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에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부단히 공고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 것은 당 대렬 자체를 더욱 공고화하며 대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하며 그들 속에서의 당 단체들의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적 대고조—천리마 운동의 발생 발전 과정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대중 속에서의 창조적인 당 정치 사업은 우리의 모든 성과를 좌우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수단의 하나이다.

당 정치 사업을 통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우리 당의 정책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것으로 확고히 인식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고무 추동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혁명적 기세를 계속 견지하며 달성한 성과들을 공고 발전시킬 수 없다.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할 때에 정치 사업을 선행하지 않거나 그를 차요시하는 데서 당 사업 방법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는 행정식, 명령식 사업 작풍이 산생된다.

당은 창건 첫날부터 관료주의와 행정식, 명령식 사업 작풍을 배격하여 왔다.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당 대렬이 급격하게 장성됨과 관련하여 과거 비합법적인 처지에서 혁명 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없는 당원들이 적지 않게 들어 온 실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러한 일'군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주관적인 충실성에도 불구하고 혁명 사업 경험은 없고 과거에 보고 들은 것은 일제의 반인민적인 파쑈적 통치 방법 뿐이였기 때문에 그를 증오하면서도 그로부터 받은 일련의 부정적 영향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

당은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면서 일'군들의 사상 의식 속에 남아있는 낡은 잔재와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업 작풍상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계통적인 교양적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리하여 대중의 신임을 받는 수 많은 우수한 간부들을 육성하였으며 당의 군중 로선 관철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그러나 사업 작풍 개선을 위한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특히 근로 대중의 의식성, 자각성의 의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오늘의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와서 낡은 사업 작풍은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되였다. 당 정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는 것은 당 사업 방법상의 문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 승리를 촉진시키는 항구적인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당 정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여야 할 것인가.

우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지도적 간부들이 당 정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이 사업의 선두에 서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도 간부들은 당 정치 사업의 결정적 력량이다. 그러나 일부 지도 일'군들은 이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일부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은 마치도 당 정치 사업은 당 기관이나 당 일'군들만 하고 자기들에게는 관계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사업에 책임적으로 참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군들은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의 성원들을 료해하며 교양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그들과 담화하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결함과 부족점들을 제때에 시정하여 주며 당 정책과 기타 중요한 리론적, 실무적 문제들을 연구하여 하부 일'군들 앞에 수시로 출연하는 등 사업에 대하여는 자기의 제 1차적인 과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적 현상은 물론 제때에 시정되여야 한다.

행정 기관, 경제 기관 간부들은 자기를 단순한 실무 일'군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당의 위임에 의하여 그 부문에서 당 정책을 관철시킬 책임을 진 혁명가이며 정치 활동가라는 당적 립장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험은 지도 일'군들이 당 사업, 당 정치 사업에 무관심하며 그로부터 리탈될 때에는 점차 실무주의, 기술 지상주의적 경향으로 흐르게 되며 사업과 생활에서의 정치적 각성의 마비와 무사상성을 조장하며 당 정책의 본질을 민첩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는 등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행정 기관,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은 물론 유일 관리제 원칙에 립각하여 그 기관 사업들을 조직 지도한다. 그런데 유일 관리제는 당 정치 사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행을 전제로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유일 관리제는 지도 일'군들이 관리할 줄 알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업에 있어서 당 단체들과 적극적인 핵심 분자들에게 의거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143페지).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정치 사업을 차요시하고 행정적 지시를 만능으로 여기며 그 지시가 당원 및 비당원 대중의 정치적 자각에 의해서만 철저히 집행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고려하지 않는 개별적 일'군들의 그릇된 사업 작풍을 제때에 비판 시정하여야 한다.

당 중앙 위원회 편지 토의 및 재토의 사업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지도 일'군들이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기세와 창발적 제의들에 대하여 단순히 찬양 지지하는데 그치고 그러한 대중의 정열과 제의들을 조직화하여 제때에 물질적 력량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조직 사업에 대해서는 주의를 적게 돌리였다.

경제 과업 실행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허풍치기 현상은 일부 일'군들의 공명주의적 사상에도 기인되지만 대중의 창발적 발기에 근거하여 이러저러한 혁신을 결의하고 맹세하는 것으로써 만족하고 구체적인 조직 사업은 없이 사업의 성과를 앉아서 기다리는 안일한 사업 작풍에서도 초래된다.

당 정치 사업에 대한 일부 일'군들의 무관심성은 그러한 일'군들 자체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당 기관들의 사업 방법상 결함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당 정치 사업을 당 기관 자체의 력량에만 의거하여 협소한 범위에서 수공업적으로 조직 진행하는 현상을 퇴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하여 상, 부상, 중앙 기관 책임 간부들을 비롯하여 각급 정권 기관, 경제 기관,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과 근로 단체 일'군들을 이 사업에 광범히 인입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모든 간부들로 하여금 당 정치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그들을 이 사업에 참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당 기관 내에서도 당 정치 사업을 해당 부서에만 일임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지도를 주지 않는 경향과 당 기관의 경제 지도 부서들이 당 사업의 기본인 간부 사업과 당 정치 사업에 주력하지 않으며 이 사업을 계속 차요시하면서 행정 사업을 대행하는 현상들을 철저히 시정하여야 한다.

각급 당 단체들은 직맹, 민청, 녀맹 등 근로 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계층들 속에서의 당 정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일부 근로 단체들의 사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중적인 정치적 조직체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교양 단체로서의 자기의 기본 임무를 망각하고 시기적인 경제 깜빠니야에만 일면적으로 치중하는 현상들을 더욱 대담하게 퇴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단체들은 각급 근로 단체 지도 기관들을 정치적으로 준비된 우수한 일'군들로써 튼튼히 꾸리며 근로 단체의 간부 대렬을 더욱 강화하며 근로 단체들에 정치 사업 방향과 구체적인 과업들을 정확히 제시하며 근로 단체 각급 지도 기관 사업에서 사무실적, 형식주의적 사업 작풍을 퇴치하고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도록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는 실로 위대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그가 제시한 거대한 전망 과업의 실현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적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켜야 한다.

당의 령도와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

림 두 성

해방된 인민이란 과연 어떤 창조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8. 15 해방 14주년을 맞이하는 조선 인민이 달성한 창조적 업적은 이에 대한 더없는 훌륭한 대답을 주고 있다.

우리 인민은 1958년에 이미 1946년에 비하여 공업 총 생산액을 12.5배로 장성시켰으며 우리 나라를 락후한 농업국으로부터 선진적 공업—농업국으로 전변시켰다. 이 기간에 공업, 농업 총 생산액 대비는 약 28: 72로부터 65: 35로 전변되였다.

우리 로동 계급은 다시 제 1차 5개년 계획의 력사적 과업을 공업 총 생산액에서 2년 반 앞당겨 금년 6월 말 현재로 완수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토대로 되는 중공업 기지와 경공업 기지를 더욱 튼튼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한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들과 함께 공산주의에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갖추게 되였다.

이것이 어찌 보통의 일이겠는가! 우리 나라는 원래 세기적으로 락후한 나라였다. 게다가 미제 원쑤들은 3년 간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여 버렸다. 우리 인민은 폐허 우에서 재'더미를 헤치고 불과 몇 해 동안에 오늘날의 모든 것을 창조하여 내였다. 터진 화산인들 어찌 우리 인민의 창조의 힘을 당할 것인가!

인민 대중은 어느 력사적 시기를 물론하고 력사 발전의 결정적 력량이며 사회의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부의 창조자다. 그러나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이 최고도로 발양되는 것은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시기다.

이 시기에 혁명적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광범한 근로 대중은 자기의 정치적 수령인 맑스—레닌주의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면서 맑스가 예견한 바 하루가 20년에 맞먹는 새로운 위대한 력사 창조에서 전례없는 용감성, 대담성, 적극성, 창발성을 발휘하며 가지가지의 기적과 변혁을 일으킨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 오늘 심각하게 체험하고 있다.

참으로 레닌이 교시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이것은 수천 수백만 인민 대중의 정력적인 창조적 사업이며 그들의 광범한 적극적 참가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위대한 력사적 과업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수백 수천만 대중의 공동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선봉대이며 참모부인 당에 의하여 유일적으로 지도되는 때에라야만 승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즉 인민 대중의 혁명적, 창조적 력량은 그것이 당에 의하여 조직 동원되는 때에만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위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 가운데는 사회적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 광범한 근로 대중이 무궁무진한 창조적 력량, 창조적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즉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에 의하여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국가 및 경제, 문화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광활한 길을 보장 받으며,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수립되고 사람들이 온갖 형태의 착취로부터 해방됨으로써 그들은 사회적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된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기타 선진적 제도의 그 모든 우월성을 구현시키며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새로운 선진적 제도 속에 잠재하는 그 모든 객관적 가능성을 현실에로 전화시키는 데는 광범한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력량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임무는 오직 맑스—레닌주의 과학으로 무장된 혁명적 당만이 감당할 수 있으며 그의 령도에 의하여서만 수행될 수 있다.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력량은 당의 령도적 역할에 의하여서만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현실적 력량으로 전변된다는 것, 따라서 당의 령도의 확고한 실현은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 위업에서의 완전하고 종국적인 승리의 결정적 담보라는 것——이것은 력사적 실천에 의하여 확증된 절대적 진리이며 고전적 명제이다.

우리 당은 인민 대중의 창조적 활동의 조직자 고무자로서 그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계발하며 그들의 활동을 사회주의 건설의 유일하게 옳은 길로 향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승리를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다.

❋ ❋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첫째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이 수립하는 로선이며 정책이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로선, 당의 정책은 해당한 시기, 해당한 계단에 있어서의 당과 인민의 투쟁 계획이고 투쟁 목표이며, 당이 해결하자고 하는 과업이며 실현하자고 하는 의도이다.

당의 활동은 자기가 수립한 이와 같은 로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관철시킴으로써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적 리상을 실현하자는 데 그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로선이나 정책은 당의 령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으로 되며 그의 지침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령도의 현명성은 무엇보다도 우선 당이 작성하는 로선, 정책의 정당성, 현명성 여하에 달려 있다.

정당한 로선, 정책은 언제나 광범한 근로 대중의 근본적인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며 사회 발전 법칙을 정확히 반영하며 사회 발전의 성숙된 객관적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인민 자신의 로선으로, 그들 자신의 정책으로 접수되는바 이와 같이 로선, 정책이 대중을 파악하고 그들의 의식에 면바로 작용하기만 하면 그것은 그들로부터 무궁무진한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 창의 창발성을 불러 일으킨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확고하게 령도하고 있는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 나라에서의 구체적 실천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언제나 정당하고 정확한 로선과 정책들을 작성 실시함으로써 우리 인민을 계속 승리에로 인도하고 있다.

문제를 전후 시기 사회주의 경제, 문화 건설에만 국한하여 본다 하여도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총 로선,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및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정책 기타 기술, 문화 혁명 수행과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은 그 모두가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 일으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총 로선과 농촌 경리 및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정책은 광범한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계발하는 데 있어서 비할 바 없이 중요한 원칙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총 로선을 두고 본다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3년 간의 류례 없는 파괴적 전쟁을 겪은, 말할 수 없이 곤난한 환경에서, 우리 인민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용약 전진할 수 있는 길을 휘황하게 밝혀 준 천재적인 로선이다.

당의 령도의 궁극의 목적은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며 인민에게 풍요한 물질적, 문화적 생활 창조를 보장하는 데 있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총 로선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와 풍요한 생활 창조를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며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된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보장하며 이리하여 우리 인민의 장래의 리익과 목전의 리익을 가장 현명하게 결합하는 길을 밝혀 주었다. 생활은 이 로선의 현명성, 정당성을 웅변으로 증명하였으며, 무모하게도 이 로선을 반대하여 나섰던 최 창익을 비롯한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에게 최종적 심판을 내렸다. 바로 이 로선의 승리의 결과로서 우리 나라는 오늘 이미 중공업 기지도 경공업 기지도 가진 자립적인 공업—농업국으로 전변되였다. 오늘도 조선 인민은 이 로선을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하기 위한 유일무이하게 정확한 로선으로 접수하고 그 실천에 헌신하고 있다.

흥겹고 부단히 향상되는 생활이 있고 앞날에 대한 확고한 전망이 있다는 것, 이것은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의 가장 믿음직한 원천으로 된다. 우리의 총 로선은 바로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원천을 보장해 주고 있다. 때문에 이 로선은 우리 인민의 창조적 적극성의 발양을 위하여 비상히 중요한 원칙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농촌 경리의 협동화 및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정책은 우리 나라에서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영원히 청산하며 생산력을 낡은 생산 관계의 질곡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는 력사적 과업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아주 순조롭게 보장하였다. 이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는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 창조를 위하여 모든 력량과 지혜와 열성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보장 받게 되였다. 실로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는 로동자, 농민들의 천리마 운동, 터진 화산과 같은 창조적 열의의 앙양을 위하여 근본적 조건의 하나로 되고 있다.

당의 로선, 정책은 그것이 만일 광범한 군중 속에서 조직 집행되지 않고 관철되지 않는다면 모든 의의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때문에 당의 령도에는 정책적 지도와 함께 조직적 지도가 또한 필수적 요인으로 된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언제나 군중 로선에 철저히 립각하여 지도와 대중을 밀접하게 결합하며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하면서 광범한 근로 대중의 근본적 리익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혁명 및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성숙된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중심 고리와 선후차를 옳게 규정하는 동시에 이여의 고리들에 대한 관심을 옳게 배합하며 언제나 대중을 믿고 전 인민적 운동의 형태로 광범한 군중을 조직 동원하되 군중의 열의와 객관적 조건들에 대한 과학적 타산과 예견성을 옳게 배합하는 과학적 령도 방법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는 또한 대중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 사업을 토의하며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가르치는 인민적 사업 작풍과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강의성과 혁명적 전개력에 있어서도 구감으로 되고 있다.

어디까지나 군중 로선에 충실한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 방법과 사업 작풍은 당 정책 관철을 위한 광범한 군중의 로력적 및 정치적 열성을 발양시키는 데 지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최근 년간에만 하여도 우리 당이 성숙된 정책적 문제들을 제때에 제기하고 이의 해결에로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그들의 드높은 창조적 적극성과 혁명적 열의를 불러 일으켰으며 잠재하는 막대한 예비들을 적발 동원케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킨 허다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하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례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우선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에서 새 페지를 열어 놓았고 우리 인민의 창조적 적극성을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한 1956년 12월 전원 회의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원 회의는 당시의 변동된 환경에서 조성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를 정확하게 포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로 생산자 대중 자신의 절박한 요구로 접수시키며 그 해결 방도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 모범, 인민적 사업 작풍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 주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한 바 있다: 《우리가 1957년에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된 것은 결정서가 잘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 상무 위원들과 중앙 위원들, 부수상 및 상 동지들과 기타 간부들이 다 직접 생산하는 로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들의 창발적 의견들을 우리의 사업에 옳게 인입한 데 있다》(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 총화를 위한 경공업성 열성자 회의에서 한 연설).

당 중앙 위원회는 12월 전원 회의에서 증산 절약의 방대한 과제를 제기하면서, 낡은 사상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일'군들의 우는 소리를 물리치고 대담하게 대중의 힘과 열의를 믿었으며 그들과 함께 흉금을 털어 놓고 문제를 토의하였다.

인민 경제 발전의 요구가 참으로 절박함을 깨닫고 당의 무한한 신임에 감분된 근로자들은 당의 기대를 훨씬 초월하는 로력적, 정치적 앙양으로써 그 신임에 보답하면서 증산 절약의 막대한 예비들을 찾아 내였다.

당의 신임에 의하여 고무되고 자기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의 성과에 의하여 자신심과 긍지를 새롭게 한 우리 로동자, 기술자들은 12월 전원 회의 이후 낡은 공칭 능력, 낡은 노르마를 마스기 시작하였으며 기술 신비주의, 보수주의 기타 낡은 관점과 사고 방식들을 분쇄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영광스러운 천리마 운동, 사회주의 건설 대고조의 시초를 열어 놓았다.

12월 전원 회의 이후 사회주의 건설 대고조의 전 행정은, 당이 생산력 발전의 객관적 요구, 근로 대중 자신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문제를 하나 하나 련속 해결해 나가는 데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집중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최대한의 촉진을 위한 막대한 예비들을 적발 동원하게 하는 령도의 현명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증대를 위하여 매개 시, 군에 한 개 이상의 지방 산업 공장을 건설할 데 대한 문제, 전체 인민 경제 부문들의 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로서 철 문제, 기계 문제를 해결할 데 대한 방침, 발 관개 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데 대한 문제, 모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데 대한 문제, 축산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급격히 발전시키며 전기 공업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데 대한 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와 같이 제기되고 해결되였으며 또 해결되고 있다.

막대한 지방적 원료, 자재와 기술, 로력 원천들을 동원 리용함으로써 경공업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중공업의 발전도 현저히 촉진시키게 된, 매개 시, 군에 한 개 이상의 공장을 건설할 데 대한 문제를 당이 가르치기 전에 과연 그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던가! 당에 의하여 계발된 대중의 창조적 열의는 매 시, 군에 한 개가 아니라 평균 4~5개 이상의 새 공장을 건설하였다.

1958년 9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밭 관개 체계 도입에 궐기한 우리 농민들은 자기들의 믿음직한 령도자이며 동맹자인 로동 계급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6개월 동안에 계획보다 7만 여 정보나 초과하는 37만 7,000정보의 관개 면적을 확장하는 기적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해방전 우리 나라 관개 총 면적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농민들은 자기들의 세기적 숙망이 로동당의 시대에, 그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을 의식하였으며 당의 정책을 바로 자기들의 정책으로 접수하고 관철시켰다. 이리하여 기적이 창조되였다.

사료 문제 해결을 위한 2모작의 방법과 기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은 당의 령도에 의하여 얼마나 거대한 새로운 예비를 적발하게 되는가! 물론 이것은 당이 대중 자신의 창발적 경험들에서 배워서 일반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당이 대중에게서 배우고 대중을 가르치는 태도,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 과학적 령도 방법의 또 하나의 모범으로 된다.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지금 전국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지난 7월말 현재로만 하여도 계획 외에 6,900여대의 공작 기계를 더 생산하였다.

대중의 의견과 그들의 창발적 경험에서 배워서 이를 일반화하며 대중에게 당의 의도와 정책의 본질을 침투시키며 그들의 로력적 열성과 정치적 의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현지 지도는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가 있은 곳에서는 어데서나 할 것 없이 당 중앙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존경과 그리고 그들 자신의 창조적 열의가 더 한층 제고되고 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났으며 또 일어나고 있다.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는 더우기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을 가르치며 대중과 더불어 토의하는 과학적 령도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의 구감으로 된다.

당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령도함에 있어서 언제나 지도를 대중에 앞세워야 하며 승리를 향한 가장 가깝고 곧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투쟁의 당면 목표와 그 해결 방도를 제때에 제시하는 동시에 원대한 전망적 과업들도 시기 적절하게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수백만 전사들로 하여금 양양한 전망에 고무되면서 거대한 적극성과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당은 우리들 앞에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모든 과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고무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강령적인 전망 과업이다. 이 강령적 과업은 중요한 제품들의 생산에서 우리 나라를 가까운 6~7년 내에 선진 사회주의 국가들의 수준에 따라 세우며 그 나라들과 동시적으로 공산주의에로 들어 갈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닦는 그러한 과업인 것이다. 만약에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가 없었다면 또 언제나 대중을 굳게 믿으며 대중의 투쟁에 자기의 령도를 대담하게 앞세울 줄 아는 우리 당이 아니였다면 과연 이러한 대담한 전망 과업을 제기할 수 있었겠는가. 또 이 과업을 6~7년이 아니라 4~5년에 수행할 임무를 제기할 수 있었겠는가.

레닌은 일찌기 혁명적 시기에 있어서의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적 당의 지도자들도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임무를 일층 더 광범하게 또 대담하게 내세워야 할 것이다. 그들의 구호가 언제나 대중의 혁명적, 독자적 활동을 앞서 나아가 대중의 혁명적, 독자적 활동의 등대가 되며 우리의…사회주의적 리상을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게 보여 주며 무조건적이며 결정적인 완전 승리로 향하는 가장 가깝고 곧바른 길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전집, 9권, 93~94페지).

우리 당은 오늘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서며 공산주의로 들어 가는 것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가깝고 곧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세기적으로 락후했던 우리 나라를 선진 사회주의 국가들의 수준에 올려 세우며 그들과 같이 공산주의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하여 줄 강령적 과업과 이 과업 수행을 4~5년으로 앞당길 임무는 오늘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천리마의 고삐를 더욱더 죄우게 하며 부단한 혁신, 부단한 전진에로 그들을 더 한층 고무 추동하고 있다.

❋ ❋

당의 령도하에서 사상적 지도는 정책적 및 조직적 지도와 불가분적으로 련계되여 있다. 당의 사상 사업은 그의 령도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당 정책 관철을 위한 실천에 복무하면서 조직 정치 사업과 병행된다.

당 정책이 그 자체로서 아무리 정당하고 당이 제시하는 목적이 아무리 고상하며 당이 가르치는 방법이 아무리 타당하다 할지라도 대중이 그것을 리해하지 못하고 사상적으로 접수하지 못하며 자각적, 의식적으로 발동되지 못한다면 그 정책, 그 목적, 그 방법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며 혁명 사업은 추진되지 못할 것이다.

당원들과 대중을 교양하며 설복하여 력사에서의 인민 대중의 위치와 사명을 인식케 하며 자기들의 당면 및 종국의 투쟁 목표와 투쟁의 수단, 방법을 료해시키며 프로레타리아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사상 교양 사업이 당의 령도에서 언제나 중요한 측면의 하나로 되며 실천 투쟁에서 전제 조건으로 되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은 시종일관 사상 사업을 자기의 주요 과업의 하나로 삼고 대중을 부르조아적, 봉건적 사상 잔재로부터 해방하고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의식성과 자각성을 제고하며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정신으로 훈련하는 데 거대한 관심과 력량을 돌려 왔다. 이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의 정신으로,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교양되였다.

특히 최근 년간에 우리 당은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적 사실로 되는 력사적으로 형성되였던 종파 도당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내에서의 악독한 부르조아 사상의 반영인 종파주의의 여독을 뿌리 뽑으며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을 철석같이 강화하며 당 중앙 위원회와 그 정책에 대한 대중의 신임과 충실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최 창익을 두목으로 한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이 적지 않은 당 및 정권 기관, 경제 기관들에서 당 정책의 관철을 저애하여 당적 사상 체계의 확립을 방해하면서 암암리에 부르조아적, 수정주의적 사상 독소를 퍼뜨리고 있었던 것은 주지된 바이다.

당이 옳은 정책, 로선을 수립하며 이를 대중 속에서 조직 집행하며 대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우는 데 있어서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을 공고히하는 문제는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당원들과 광범한 근로 대중 속에서 부르조아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며 그들을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묶어 세우고 당에 대한 충실성의 정신으로 더 한층 확고하게 무장시키는 데 있어서 1956년 8월 전원 회의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였다.

당은 8월 전원 회의 이후 반당 반혁명 종파 잔재를 폭로 숙청하는 투쟁을 진행하면서 이를 통하여 당원들의 사상 체계를 바로 잡으며 원쑤들에 대한 계급적 각성을 강화하며 당성을 단련하며 레닌적 당 생활 규범에 립각하여 당 생활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였다.

종파 분자, 이색 분자들이 폭로 제거됨으로써 당의 사상, 당 정책은 대중 속에 더욱 철저히 침투되게 되였으며 당 중앙에 대한 광범한 대중의 충실성과 그들의 로력적 정치적 열성이 더욱 앙양되였다.

당은 현명하게도 대중의 이 앙양된 기세를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에로 조직 동원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결속된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을 위한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에서 미증유의 헌신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게 되였다. 이렇듯 최 창익을 비롯한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과 그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사상 투쟁은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고조를 불러 일으킨 사상적 준비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되였다.

8월 전원 회의 이후의 모든 사태는 당 대렬의 사상 의지의 통일이 없고 당적 사상 체계의 확립이 없이는 당 정책 관철에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과 헌신성을 불러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보여 주었으며 따라서 8월 전원 회의 결정의 정당성을 더욱더 확증하여 주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도 종파 사상 잔재를 반대하여, 당적 사상 체계의 확립, 당의 통일의 가일층 공고화를 위하여 계속 투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현 시기 우리 당은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오늘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종파의 온상으로 되는 지방주의, 가족주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며 당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고 끝까지 관철시키는 정신으로 당원들과 대중들을 무장시키는 그것이다. 이는 당과 대중과의 불패의 련계를 확보하며 혁명 승리를 보장하는 기본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현 계단에 있어서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 강화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는 그 물질적, 사상적 요인들이 구비됨으로써 합법칙적으로 조성된 현상이다. 그것은 하나의 심각한 혁명적 과정으로서 변혁이 심각하고 운동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의 저항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원쑤들은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이 고도로 앙양되면 될수록 이를 파괴 방해하기 위하여 더욱 발악하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거부하고 <북진> 소동을 강화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 우리 당은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을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오늘 공산주의 교양의 기본 내용은 원쑤를 증오하고 계급적 립장을 고수하며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고수하도록 계급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며 보수주의, 신비 관념, 리기주의 등 일체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부단 혁명의 정신등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현 시기에 공산주의 교양의 강화가 필수적인 것은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의식성과 자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원쑤들을 반대하여 사회주의적 조국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데 모든 힘과 지혜와 열성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며 휘황한 앞날을 전망하면서 공산주의적 리상을 향하여 어떠한 곤난 앞에서도 굴함이 없이 투쟁할 수 있기 때문이며 온갖 낡은 것, 락후한 것을 반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새 것을 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도 남만 못지 않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북돋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와 소극성, 이것은 혁명과 전진, 새 것의 승리에 대한 낡은 것의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기술 신비주의 기타 신비 관념이나 교조주의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부심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과거에 예속된 처지에서 어렵게 살았던 탓으로 높은 기술이나 과학을 다루어 보지 못했으며 왕왕 자기들의 력량에 대하여 자신을 가지지 못했으며 우리 인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우수한 것을 옳게 볼 줄 모르는 수가 있었다.

이러한 데로부터 오늘에 와서도 일부 일'군들 속에서 표현되는 기술이나 과학에 대한 신비 관념, 자기 력량, 군중의 력량에 대한 과소 평가, 교조주의 등은 적지 않게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마비시킨다. 때문에 우리 당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과 함께 민족적 자부심을 제고하며 주체를 확립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돌렸으며 또 돌리고 있다.

근로자들 속에서의 보수주의, 소극성 및 신비 관념을 반대하여 대중의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상 사업에 있어서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는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하나의 사변으로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 앞에 제기된 력사적인 과업을 더 빨리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형태의 보수주의와 소극성, 침체성, 신비 관념 등을 단호히 분쇄하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을 일으킬 것을 호소한 붉은 편지는 바로 전체 근로 대중의 심금을 울렸다.

근로자들은 당의 호소가 가지는 그 모든 의미와 의의를 깊이 리해하였다.

광범한 근로 대중은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가난한 살림과 락후성을 우리 세대에 완전히 청산하고 후손들에게 문명하고 부유한 살림을 넘겨 주기 위한 력사적인 과업이 바로 자기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

그들은 최단 시일 내에 뒤떨어진 처지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에서나 인민 생활 형편에서나 선진 국가의 수준을 따라 잡기 위하여서는 종전보다 더 빨리 나가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 높은 앙양을 가져 와야 한다는 것을 리해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또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는 길이라는 것도 리해하였다.

붉은 편지의 정신은 광범한 근로 대중 속에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되였다. 새로운 정치적 열성과 로력적 앙양의 불'길이 일어났다. 그들은 도처에서 보수주의, 신비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하게 나섰다. 근로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의 새로운 앙양은 공업 및 농업 생산에서,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대중적 영웅주의와 집단적 혁신 운동의 불'길을 더 한층 높였으며 부단한 전진, 부단한 혁신의 정황을 조성하였으며 전면적 대약진의 새로운 형세를 이룩하였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라》는 붉은 편지의 위대한 사상으로 무장한 근로자들은 온갖 낡은 것의 구속으로부터 자기들의 사상을 해방하고 낡은 공칭 능력, 낡은 기술 기준 등 일체 낡은 것, 침체한 것을 사정없이 불살라 버리고 모든 적극적인 것, 새로운 것, 선진적인 것을 대담하게 지지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국면과 기풍을 조성하였다. 생산과 건설은 비약적인 속도로 장성하여 갔으며 로동 생산 능률은 몇 십프로로 장성하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또는 그 이상으로 비약하게 되였다. 영웅적 로동 계급은 일찌기 제작하여 본 일이 없는 일련의 중형 기계들과 대야금 설비들까지 제손으로 제작하여 냈으며 전체 근로자들은 산을 가르고 바다를 막는 대자연 개조 사업을 눈부시게 전개하게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제고되였다.

편지의 위대한 생활력과 고무력은 오늘에 이르러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전체 근로 대중은 당의 붉은 편지가 호소한 거대한 과업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서 5개년 계획을 1년 반이 아니라 2년 반이나 앞당겨 실행하였으며 방대한 금년도 계획을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상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적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의 붉은 편지는 사회주의 건설의 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중에 대한 당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우며 근로 대중은 또한 당이 제기하는 과업과 호소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하며 따라서 당과 인민과의 통일 단결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과시하는 전형적인 례로 된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중의 혁명적 의식의 역할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 대중속에 당적 사상체계를 확립하며 그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당의 혁명 전통 교양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 항일 빨찌산들의 자랑찬 혁명 투쟁의 전통을 무한한 자랑으로서 간직하고 있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 항일 빨찌산들의 숭고한 공산주의적 사상과 품성은 우리 당원들과 대중에게 있어서, 강유력한 감화력을 가진 구감으로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며 공산주의적 품성을 배양하는 것을 도와 준다. 항일 빨찌산들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 맑스—레닌주의 진리,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과 불굴의 투지,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혁명적 동지애와 인민적 작풍, 곤난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의성과 대담성——이 모든 것은 오늘 근로 대중의 애국주의와 로력적, 정치적 열성,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에 대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북돋아 주는 크나큰 사상적 동인으로 되고 있다.

생산과 건설을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곤난한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우리 근로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 속에서 교훈을 찾으며 그에 의하여 무한히 고무되면서 자기들의 결의를 새로이 다지며 어떠한 난관과 애로도 훌륭히 극복해 내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 도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혁명 전통에서 그 사상적 원천을 찾아내는 것은 오늘 근로자들 속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혁명 전통 교양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이며 당의 사상적 령도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말해 준다.

당의 사상적 지도의 현명성은 또한 우리 인민의 의식 속에 력사적으로 형성된 일련의 특징들을 공산주의 교양에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거기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비록 옷은 허술하게 입고 집은 오막살이에서 살아 왔지만 우리의 사상은 남만 못지 않게 진보적이며 빨리 나아가겠다는 각오가 남보다 더욱 높으며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는 혁명적 기질이 아주 풍부》하며 우리 나라는 정상적인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민의 의식 속에는 자본주의 잔재가 남보다 적다. 또 《우리 나라에는 구라파에서와 같이 로동 계급의 대렬을 분렬시키며 그의 계급 의식을 부르죠아 사상으로 마비시키는 우익 사회 민주주의의 사상적 지반이 없는》(김 일성)것으로 하여 의식상 순결성이 남보다 강한 것은 우리 인민의 의식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귀중한 특징들이다.

당은 근로 대중의 사상 의식에서의 이러한 긍정적 특성들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공산주의 교양에서 이 특성들을 계발하고 발전시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그들의 의식성의 역할을 높이고 있는 동시에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들의 념원에 부합되게 빨리 나가기 위한 대담한 과업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데로부터 근로자들은 천리마의 진군에 발을 맞추지 못하는 일부 일'군들의 보수주의와 속극성, 기술 신비주의 그리고 일부 근로자들 속에서의 개인 리기주의, 국가 재산, 공동 소유, 공공 시설들에 대한 소홀한 태도 등 일체 낡은 것과 락후한 것에 대하여 타협하려 하지 않으며 세월을 앞당겨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려는 고도의 혁명적 열정, 창조적 적극성에 불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들 속에서 광범하게 전개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운동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 *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하에 자기들의 불타는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참으로 거대한 일을 하여 놓았으며 우리 인민의 창조적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고 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며 남과 같이 공산주의에로 들어 가야 할 무겁고도 보람찬 과업이 남아 있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광범한 근로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기세가 있는한 우리 앞에 제기된 과업이 아무리 방대하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빛나게 수행할 것이며 지난 시기에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리라는 것은 추호의 의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과 인민의 의지와 지향의 통일, 당의 정책과 호소에 대한 대중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이것은 우리의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8월 전원 회의와 당 대렬의 통일 단결

리 송 운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8월 전원 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8월 전원 회의는 《형제적 제 국가를 방문한 정부 대표단의 사업 총화와 우리 당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관하여》와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를 토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였었다. 8월 전원 회의에서 이 문제들을 토의하는 행정에서 최 창익을 두목으로 한 반당 반혁명 종파 도당은 흉악한 반당 반혁명적 도전을 감행하여 나섰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이 자들이 꾸며 온 것이였다.

최 창익 도당은 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인하며, 레닌적 당 생활 규범의 기초로 되는 당내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반대하며,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을 반대하고, 해방 후 달성한 성과들을 부인하며,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적 핵심을 헐어 버리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거부하며, 우리 당과 형제 당들 간의 국제주의적 친선 관계를 훼손시키기 위하여 도발적인 행동을 감행하여 나섰다.

8월 전원 회의는 이 자들의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도전에 대하여 즉석에서 타격을 주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였다. 8월 전원 회의에서 취한 이 조치는 그야말로 정당하였다. 이것은 8월 전원 회의 이후 나타난 모든 사실이 그 정당성을 실증해 주고 있다.

최 창익을 두목으로 한 반당 반혁명 종파 도당의 도발적 행동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반당 반혁명을 조작한 자들은 모두다 오래 전부터 내려온 고질적인 종파 분자들이였다. 최 창익과 기타 일련의 종파 분자들은 1920년대부터 조선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에 잠입하여 막대한 해독을 끼친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의 분렬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 공산당은 해산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무장 투쟁을 중심으로 항일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면서 종파 분자들을 반대하여 혁명적 맑스주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 준비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비록 당은 없었지마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적 지도가 보장됨으로써 공산주의 운동은 계속 앙양의 일로를 걸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일제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통일적인 맑스주의 당이 없었기 때문에 종파 분자들의 해독 행위가 철저히 폭로되지 않았고 종파 도당들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다. 종파 분자들은 이리하여 해방 후에 조성된 복잡한 환경에서 다시 우리 당 내에 기여들 수 있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7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서 종파의 여독을 뿌리채 근절하고 당의 통일을 강화하며 당의 튼튼한 맑스—레닌주의적 조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력사적인 과업이 오늘 우리 세대의 당원들에게 부과되였다》라고 교시하였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당내에 잔존하는 종파 여독과 각종 그루빠적 경향을 반대하여 날카로운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우리 당은 실제 투쟁을 통하여 검열된 핵심들로 당 간부 대렬을 꾸리며 동시에 과거 파벌 투쟁에 참가하였거나 그의 영향하에 있던 당원들을 포섭하여 어디까지나 당 조직 생활과 실제 투쟁을 통하여 건전한 당원으로 개조

하기 위한 방침을 시종 일관 취하여 왔다.

이와 함께 당의 계속되는 교양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을 반대하여 종파 행위를 지속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당은 단호한 대책을 취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그들 중 적지 않은 당원들은 옳은 당적 립장에 서게 되였다. 그러나 낡은 종파적 악습을 버리지 않은 일부 분자들은 당의 배후에서 종파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당과 국가에 어려운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머리를 들고 일어났다.

8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 분쇄된 반당 종파 분자들은 그 대부분이 해방 전의 악질적인 종파 도당인 《엠엘파》의 주동 인물이거나 또는 기타 각종 파벌에 참가하여 우리 나라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자들이다.

최 창익 도당은 해방 후에도 계속 남조선에서의 파벌 투쟁을 조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 자들은 북반부에서도 우리 당의 핵심을 헐어 버림으로써 당내 《헤게모니야》를 탈취하려고 획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종파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회만 노리고 있던 최 창익을 두목으로 한 반당 반혁명 종파 도당은 우리 당이 전후 복구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던 시기, 미제를 선두로 제국주의자들이 쏘련을 반대하는 《반쏘 반공 깜빠니야》를 전개하고 국제 수정주의자들이 또한 공산당, 로동당들을 반대하여 책동하던 시기,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북진》 소동을 고창하던 바로 그런 어려운 시기에 당과 혁명을 배반하는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음모를 획책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우리 당은 결코 몇몇 종파 분자들에 의하여 흔들릴 당이 아니였다.

당은 이 자들을 8월 전원 회의에서 즉시에 단호하게 폭로 분쇄하였다.

우리 당이 이와 같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은 것은 오직 해방 전후 30년에 걸친 간고한 혁명 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김 일성 동지의 지도의 현명성이 있고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철석같이 결속된 당 중앙 위원회가 있고 우리 당이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 속에 30년에 걸친 깊은 뿌리를 가진 당이기 때문이였다.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전 행정은 최 창익 도당의 죄행을 단호하게 폭로 규탄하고 그의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심각한 당내 사상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방침들을 제시한 8월 전원 회의 결정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실증하여 주고 있다.

우선 8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내 사상 의지의 통일과 전투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다.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은 종파적 수'법으로서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조장하고 리용하였으며 당 정책 관철을 저해하고 당의 령도적 역할을 거부하며 당 생활 규범을 란폭하게 위반함으로써 당내 사상 의지의 통일과 전투력을 훼손하여 왔었다.

때문에 당은 종파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종파의 온상이며 수'법인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며, 일체 건실치 못한 비당적, 비프로레타리아적 사상 요소를 반대하며, 당 생활에 충실치 못한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였다.

8월 전원 회의 이후 우리 당은 계속되는 투쟁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형성되였던 종파의 잔당들을 우리 당내에서 완전히 숙청하였으며 종파 사상 여독과의 투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 투쟁 과정에서 적발 폭로된 종파 분자들의 절대 다수는 계급적으로 보아 과거의 지주, 자본가 등 착취 계층에 속한 자, 혁명의 변절자, 과거 《엠엘파》, 《화요파》들에 속하였던 상습적인 종파 분자들로서 해방후 당내에 우연히 잠입한 불순한 분자들이였다. 일반적으로 반종파 투쟁은 계급 투쟁의 당내 반영이지만, 특히 8월 전원 회의에서의 반종파 투쟁은 우리 로동 계급이 직접으로 당과 정부를 반대하여 나선 적대 계급을 반대한 계급 투쟁이였다.

그러므로 해방 후 우리 당내에 잠입한 적대적 요소들을 일소하게 된 8월 전원 회의는 조

선 로동 운동 발전에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8월 전원 회의를 계기로 우리 당은 전 당적으로 전개한 반종파 투쟁을 통하여 당내에서 종파 분자, 불순 분자들을 몰아내고 당과 정권 기관을 비롯하여 기타 모든 부문들을 당 핵심들로써 꾸림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당을 공고히 하였다.

이리하여 전체 당원들 속에서는 당의 사상으로 살려는 당적 사상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히 수립되였다. 전체 당원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가 의도하는 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붉은 투사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당과 혁명의 리익에 충실하게 되였으며 당의 의도와 배치되는 사소한 현상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자각성과 의식성이 고도로 제고되였다.

종파 분자, 불순 분자들이 송두리째 제거되고 전체 당원들이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하나로 뭉침으로써 우리 당 력사에서 당내 사상 의지의 통일과 당의 전투력이 미증유로 강화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는 《지금 우리 당은 자체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사상 의지의 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당 정책 집행에서의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이 제고되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이 비상히 제고됨으로써 대중속에서의 당의 위신이 현저히 높아지고 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가 미증유로 강화되였다.

당 정책을 외곡하며 그 집행을 태공하던 반당 종파 분자들의 죄악이 폭로되고 그들이 숙청됨으로써 당의 의도, 당 정책은 대중 속에 제때에 정확히 침투되여 갔다. 악당들에 대한 대중의 증오와 분노, 당 중앙에 대한 그들의 제고되는 충실성과 헌신성은 당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그들의 로력적 열성을 전례없이 앙양시켰다.

김 일성 동지의 영명한 지도하에 우리 당은 1956년 12월 전원 회의 이후 근로 대중의 이 앙양된 창조적 열의를 경제 건설에로 조직 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고조를 이룩하게 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경제 건설의 총 로선을 비방 중상하며 건설 부문, 상업 부문 등 인민 경제 부문들에서 당의 경제 정책을 외곡하며 그 집행을 태공하여 오던 반당 종파 분자들이 폭로 제거됨으로써 그 부문들은 물론 인민 경제 전반에 걸쳐 급속한 개진과 전변이 일어났다.

건설 부문에서 부재 생산의 공업화, 시공의 기계화 및 조립식 방법을 광범히 도입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의 관철을 백방으로 방해하던 김 승화, 박 의완 등 종파 분자들이 폭로 제거되고 그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이 전개됨으로써 당의 건설 정책은 관철되고 대중의 창발성과 창조적 적극성이 비상히 제고되였는바 평양시 건설자들이 7천 세대 분의 주택 건설용 자금과 자재로 같은 기간에 2만 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여 낸 것과 같은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석탄 공업 분야에서도 굴진을 채탄에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의 실현을 오래 동안 태공하면서 석탄 생산을 락후한 형편에 처하게 한 반당 종파 분자들이 폭로 분쇄됨으로써 당의 방침은 관철되기 시작하고 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바 금년 상반년에 석탄 생산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145%라는 거대한 장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근로 대중은 당의 주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단결되여 우리 당 정책을 받들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창의 창발성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일찌기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기적들을 날에 날마다 창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은 금년 6월 말 현재로 불과 2년 반 동안에 제 1차 5개년 계획을 공업 총 생산액에서 완수하는 력사적인 승리를 달성하였다.

이 모든 것은 곧 당과 대중과의 필승 불패의 통일의 표현으로 된다.

보는 바와 같이 력사적인 8월 전원 회의 이

후 종파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전 당적인 사상 투쟁 행정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불러 일으킨 사상적 요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놀았던 것이다.

❋ ❋

우리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 이후 력사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종파 여독이 청산된 곳에서는 당 정책이 관철되였고 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났으며 종파 여독이 청산되지 않은 곳에서는 당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은 종파 여독을 결정적으로 청산하며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다.

종파 사상의 잔재는 극히 집요하며 해독적이다.

우리 당 투쟁 력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40년 간이나 되는 오랜 시일을 두고 종파는 우리 나라 로동 운동, 공산주의 운동에 심대한 해독을 끼쳐 왔다. 이러한 종파 사상 여독을 청산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우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악독한 부르죠아 사상의 반영이며 계급 투쟁의 당내 반영으로서 세상에서 자본주의가 멸망할 때까지는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진행한 함북도 당 단체들과 강원도 당 단체들에 대한 집중 지도에서 여실히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과거의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의 사상 여독이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은 완전히 마사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당 정책이 철저히 관철될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종파주의와 지방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하는 곳에서는 제일 경제 토대가 어려운 곳에서까지도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지어 놓았으며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쌓아 놓았다. 그러나 지방주의자들이 지도하는 데서는 그렇지 못하였다》(《함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라고 교시하였다.

지난 기간의 투쟁 경험이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종파 분자들의 사상은 하루 이틀에 개조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전체 당원들은 이자들의 죄행을 폭로하며 그들에 대한 전 군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 계속 인내성있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동시에 당내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 도당들이 폭로 분쇄된 이후에도 종파 분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틀이 마사지지 않는 한 종파 여독은 이 틀에 뿌리 박고 계속 집요하게 남아있게 된다. 그리하여 종파적 습성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계속 이 틀을 유지하려고 광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파 여독은 함북도, 강원도, 평북도 당 단체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시와 기타 도 당 단체들에도 부분적으로나마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그 어느 때를 물론하고 종파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이 끝났다고 간주한 일은 없다. 종파가 끼친 사상상, 사업상 여독과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완강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우리의 혁명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선차적 과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당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통일 단결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우선 중요한 문제는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여 전당이 중앙 위원회가 의도하는 대로 한마음, 한뜻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기 위해서는 매개 당원들이 우선 우리 당이 어떻게 창건된 당이며, 어떤 당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실로 당 중앙 위원회와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진심으로 자기의 당을 사랑하고 옹호할 수 있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진행된 1930년대의 영광스러운 항일 빨찌산 투쟁 속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이 창건된 력사는 짧지만 그 뿌리는 매우 깊다. 우리의 민족 해방 투쟁 력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종파 분자들의 파벌 투쟁으로 인하여 조선 공산당이 해산되고 가장 암담하던 일제 통치 시기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의 투쟁과 승리의 앞길을 밝혀 주면서 국내외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조직적 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항일 무장 투쟁과 국내 로동 운동 및 농민 운동, 민족 통일 전선 운동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를 보장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투쟁 행정에서 종파적, 좌우경적 편향들과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 준비를 이루어 놓았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빛나는 혁명 전통의 계승자로서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지도적 핵심으로 하여 창건 발전되였기 때문에 어느때, 어떤 곤난한 조건하에서도 당의 통일과 단결을 철옹성같이 수호할 수 있었으며 전체 인민들을 위대한 승리에로 항상 조직 동원할 수 있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당의 힘의 원천이 있는 것이다.

최 창익, 박 창옥, 김 두봉 등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에 위대한 힘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이 고귀한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반대하여 나섰던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량강도 내 당 및 정권 기관, 사회 단체 일'군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혁명 전통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에 오늘이 왔다는 것을 대중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조선 인민이 쟁취한 오늘의 행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오늘과 같이 혁명에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고 있는 것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전개한 불굴의 영웅적 투쟁과 그들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서 얻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매개 당원들이 말로써가 아니라 우리 당의 혁명 전통 특히 항일 빨찌산들의 사상 체계, 불요 불굴의 투지,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 동지 호상 간의 원칙적 단결과 우애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더욱 실생활에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하며 체득하는 것은 당 사상 체계 확립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혁명 전통을 체득함으로써만 전체 당원들은 당 중앙 위원회를 더욱 지지 옹호하며 어떠한 곤난한 조건에서도 동요함이 없이 당 정책을 고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더욱 헌신하게 될 것이다.

당적 사상 체계, 당 중앙의 사상으로 무장됨이 없이는 당 정책을 옳바로 관철시킬 수 없다. 동시에 당 정책을 잘 모르고는 당 중앙의 사상으로 무장되였다고 말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정책과 결정을 한결같이 잘 알아야만 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리당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 100만 당원이 모두 숨을 쉬여도 같은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같은 말을 하고 일치하게 행동할 수 있다》(《함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고 교시하였다.

우리 당 정책——이것은 우리 나라 혁명 실천의 구체적 조건과 력사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다. 우리 당 정책은 모두 다 인민 대중의 절실한 념원과 그 시기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성숙된 요구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당원들이 우리 당 정책을 일치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당 중앙 위원회와 같이 숨 쉬고 같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종파적 사상 여독과 지방주의, 가족주의가 잔존하는 곳에서는 당 정책에 대한 형식적, 자유주의적 태도가 발로되고 있으며 당적 지도에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 현상까지 발로되고 있는바 이와는 원칙적인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전체 당원들은 《…누구든지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무조건 집행하는 습성을 전 당적으로 배양하여야 한다》(상동)고 교시하였다.

당내 사상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매개 당원들의 공산주의적 품성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부 일'군들 속에서 발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덕적으로 부화하며 대중에게 겸손치 못하고 관료주의적으로 대하며 당과 인민 앞에서 허풍을 치는 일'군들에게는 당 중앙의 의도가 바로 침투될 수 없으며 당 정책을 연구하고 성실하게 집행하려는 태도가 있을 수 없다. 당내에 존재하는 일체 정치적 해이성과 무사상성, 군중 관점의 결여를 반대하여 당적 원칙에서 견결히 투쟁하는 때라야만 당내 사상 의지의 통일은 강화될 수 있다.

매개 당원들은 항상 생활에서 검박하고 겸손하면서도 당적 원칙을 고수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대중의 모범으로서 당의 사상, 김 일성 동지의 사상을 철저히 실현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전 당이 당 중앙 위원회의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만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석같이 단결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는 데로 대중을 승리적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다.

당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며 그의 전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전 당의 사상 체계를 바로 잡는 동시에 당 정책 집행을 조직 지도하는 간부 대렬을 당적 사상 체계로 확고하게 무장된 일'군들로써 튼튼히 꾸려야 한다.

우리 당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간부 사업은 각급 당 단체들의 제 1차적 과업이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간부 대렬에 종파 분자, 지방주의, 가족주의 분자들의 잠입을 허용한다면 당의 사상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 수 없으며 당 정책 관철을 기대할 수 없다.

모든 것은 간부가 결정한다. 당을 공고히 하려면 어느 때, 어떤 곳을 막론하고 어떠한 난관과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당과 생사를 같이 하며 온갖 부정적 현상, 특히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줄 알며 당을 견결히 수호할 줄 알며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킬 줄 아는 간부들로써 당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간부 사업이 당의 사상 조직적 통일을 보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단체들은 간부를 선발 배치함에 있어서 종파 잔재와 지방주의, 가족주의 분자들의 잠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당적 사상 체계를 확고히 수립하며 강열되고 단련된 당성있는 일'군들로 핵심을 꾸리는 방향에서 간부 사업이 진행되여야 한다.

또한 당 단체들은 간부를 일단 배치한 다음에도 계속 그들을 당적 사상 체계로 무장시키며 전투적 간부로 육성하는 사업에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간부라 할지라도 그를 배치한 다음에 계속 교양하지 않는다면 과오를 범하게 되며 부화 타락하게 되며 지어는 종파 분자들에게 롱락 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당 단체들은 새로 선발 배치된 간부들을 부단히 교양하며 온갖 낡은 것, 부패한 것, 부정적인 것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줄 알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줄 아는 전투적인 당원으로 육성하여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당의 핵심 진지를 부단히 확대 강화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릴 것이다.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며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 생활에 성실하게 참가하지 않는 당원들은 당 중앙과 한마음, 한뜻으로 숨쉴 수 없으며 지방주의, 가족주의 기타 비당적 사상 경향으로 떨어지기 쉬우며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종파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당원들이 우선 당 생활에 충실하게 참가하는 것은 당내 사상 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필수 조건으로 된다.

당 단체들은 당의 강철같은 혁명적 규률을 강화하며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당 규률, 레닌적 당 생활 규범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잘못된 길로 떨어지지 않고 당내 사상 의지의 통일을 보장하며 당 정책 관철에 헌신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매개 당원들은 항상 당 회의에 준비있게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제기할 줄 알아야 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장애하는 일체 불건전한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줄 알아야 한다. 부정적 현상을 알고도 투쟁하지 않고 융화 묵과하는 사람은 그 죄과를 범한 사람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을 계속 부단히 강화하며 당 정책을 관철시켜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 단체들은 반드시 경제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라는 당 중앙의 요구를 실현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은 수백만 대중의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의식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는 크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빨리 나가려는 의욕은 비상히 높다. 이를 옳게 조직 동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당 정책이 제시하는 목표와 그 해결 방도를 철저히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그의 실현을 위하여 더욱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도에서 행정식, 명령식 방법을 뿌리 빼고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는 것은 천리마 운동을 계속 추동하는 담보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전체 일'군들은 어떤 기관, 기업소, 어떤 농업 협동 조합, 생산 협동 조합에서 일하든지 간에 대중에 대한 정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여야 한다.

※ ※

우리 앞에는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하루 속히 정복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며 남이 공산주의에로 들어갈 때는 우리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천리마의 행군을 더욱 다우쳐야 하며 이를 저애하는 종파 사상 잔재,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일체 낡은 사상 잔재, 부르죠아 사상 잔재를 결정적으로 청산하여야 할 과업이 서 있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여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궐기할 때 어떤 장애도, 원쑤들의 어떠한 발악도 우리의 전진을 지연시키지는 못할 것이며 우리는 멀지 않아 공산주의를 지평선 우에 바라 볼 수 있는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도달하고야 말 것이다.

축산업 발전과 농촌 경리의 기계화

홍 달 선

최근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는 축산업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게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를 현 시기에 있어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적 과업의 하나로 인정하고 그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전 당적 전 인민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축산업 발전의 기본 고리가 바로 사료 문제의 해결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사료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였다.

경지 면적이 극히 제한되여 있으며 방목지가 많지 못한 우리 나라 조건에서 사료 문제 해결의 기본 방도는 모든 지역에서 2모작을 광범히 실시하여 주작물의 수확고를 계속 높이면서 후작, 전작, 간혼작으로 사료 작물을 대대적으로 재배하는 데 있다. 즉 밭 관개 면적이 확장된 조건에서 보통 밭에는 밀을 많이 심고 그 후작으로 사료용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며 또한 이앙기 전의 논과 이식하기 전의 밭을 놀리지 말고 사료용 보리, 완두, 채소 등을 재배하고 그 후에 주작물을 심는다면 알곡과 공예 작물의 수확고를 계속 높이는 동시에 사료 생산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우리 나라에서 사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다.

그런데 2모작을 광범히 실시함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것은 농촌 로력 문제이다.

관개, 심경, 밀식, 다량 시비를 주되는 내용으로 하는 집약 농법을 도입하여 알곡 생산을 주로 하면서 공예 작물 생산, 축산업, 과수업, 양잠업 등 농촌 경리 전반 부문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에 들어선 우리 농촌에서는 또한 기술 문화 혁명 과업 수행과 관련한 생산적 및 문화적 건설들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농촌에서 기술 개조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력의 긴장을 가져 오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2모작을 광범히 실시한다는 것은 농촌 로력의 긴장을 가중하게 된다.

우선 밀 후작 옥수수, 콩의 재배는 밀의 수확, 운반, 탈곡 등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짧은 시일 내에 후작 옥수수와 콩을 파종하게 되니만큼 로력 긴장을 심하게 한다.

또 한편 논과 밭 전작은 추파의 경우에는 주작물의 수확, 운반, 탈곡과 겹치며 해빙 직후 춘파의 경우에도 퇴비 반출, 봄갈이, 벼, 담배, 면화, 고구마 등의 모판 준비 및 관리 등 봄 파종 깜빠니야와 중복되여 진행되는 것만큼 이것 역시 몹시 로력을 긴장하게 한다.

2모작의 실시가 사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니만큼 이들 수확물을 씰로쓰 기타 사료로 리용하기 위한 절단, 분쇄, 가공 등 사료 준비 작업을 하여야 하는바 이것도 또한 막대한 로력 지출을 요구한다.

가축 두수의 급격한 증대에 따르는 축산 작업, 축산업의 토대 축성을 위한 제반 건설 사업의 량도 최근 년간에 방대한 규모에 달하게 된다. 여기서도 문제는 로력이다.

그런데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농촌의 긴장된 로력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로력을 추가할 수는 없으며 현존 농촌 로력으로, 나아가서는 점차 보다 적은 로력으로 이와 같은 방대한 사업을 해결해야 한다.

축산업을 결정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적극성이 부족한 일부 일'군들에게는 2모작이 불가능하게 보였으며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농촌 로력의 긴장성 앞에서 굴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촌 로력의 긴장성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의 해결 방도는 축산 작업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모든 작업을 급속히 기계화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수배로 높이는 데 있다. 기계화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원 회의 결정서에는 《사료 생산을 급격히 증가시키며 축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밀, 옥수수 등의 재배와 축산 작업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농촌에서 긴장된 로력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농업의 협동화가 완성되고 조합이 리 단위로 통합되였으며 수리화가 거의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포전 조건이 개선되여 가고 있으며 작물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사정들은 우리 농촌에서 현대적 선진 기계들을 효과있게 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전제 조건들을 조성하여 놓았다. 또한 우리 당이 그렇게도 큰 힘을 경주하여 그의 공고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 결과, 오늘 우리의 중공업 기지는 반석같이 견고하며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적 대농기계들을 자체로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 농촌에는 15마력으로 환산하여 5,939대의 뜨락또르와 수 많은 화물 자동차가 일하고 있으며, 작년에 비하여 수배의 양수 동력 시설들, 제초기, 파종기, 수확기 기타 선진 농기계들이 공급되였다. 우리 농촌은 기계화에 소요되는 모든 농기계들을 우리 자체의 공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 농촌은 농기계를 효과있게 리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처지에 있다.

지난 봄갈이에 45만 여 정보에 달하는 기경을 보장한 것을 비롯하여 10 여종의 작업들을 원만하게 수행한 79개의 농기계 임경소들이 오늘에 와서는 84개로 확장되였고 농업 협동 조합들이 자체로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를 소유하며 리용하는 길에 들어 섰다.

농촌 경리 부문 근로자들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는 창의 고안 운동은 농업의 중 소 기계화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농촌에서 기술 문화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으로 말미암아, 정규 학교 체계를 통하여 양성되는 간부의 부족을 각종 강습, 크루쇼크, 실습 등 양성 체계와 견학, 경험 교환 및 자체 학습을 통한 대량적 기술 기능 인재 양성 사업으로 보충하여 농촌의 기계화 과업을 능히 담당 수행할 수 있는 간부 대렬이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2모작의 광범한 도입의 필수 조건인 기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당적 과업 수행의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 ❊

우리 나라에서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번 우리 당이 취한 획기적 조치는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시킴에 있어서 중대한 작용을 놀고 있다. 그것은 축산업이 농산업과의 밀접한 련계하에서만 발전할 수 있으며 축산 작업이 그 본질상 농산 작업의 복합체로서 나타나며 특히 우리 나라 축산업 발전이 2모작의 도입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데로부터 축산업의 기계화가 농산업의 기계화를 동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농산업의 발전과 병행하여서만 보장될 수 있다.

왜냐 하면 우리의 축산업은 그 사료 원천을 주로 재배 사료에 두고 있는데 축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이 사료 문제의 해결이 사료 생산의 기계화에 의하여서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은 농산업에 축력과 구비를 공급하는바 축력은 기계화의 보충적 원천으로 되며 농산업에 공급된 풍부한 구비는 농산물의 다수확을 보장하며 축산업의 풍족한 사료 원천을 조성하게 된다.

축산업은 농산업에서 계절적으로밖에 리용될 수 없는 생산 수단과 로력의 예비를 더욱 충분히 리용할 수 있게 하며 농산업에서의 기술 장비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그의 장비도를 높임에 일정한 자극을 준다. 이것은 저렴한 원가의 사료를 축산업에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에 반작용한다.

이리하여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기계화는 이러저러하게 농산업의 기계화와 밀접한 련계하에 진행된다.

다음으로 축산업은 그 작업의 본질상 그의 기계화가 농산 작업의 기계화를 동반하게 된다.

축산업에서 진행되는 적지 않은 작업군들, 례를 들면 축사를 청소, 소독하며 가축의 개체를 관리하는 등 작업은 로동 대상이 고정되여 있고 로동력과, 산 로동을 장비한 생산 도구가 대상을 따라 이동하면서 수행된다. 이것은 바로 농산업에서 대표적인 작업—포전 작업과 그 성격상 일치하는 작업이다. 농산업에서 사료 작물을 재배할 때의 파종, 중경, 제초, 수확이 모두 동일한 성격의 작업군에 속한다. 물론 축산 작업의 기계화와 농산 작업의 기계화가 동일한 생산 도구로써 진행되는 것은 아니나 기술 공정상 수'법은 공통적이며 기계화에서 그 실현 수'법상 일정한 련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사료의 급여, 급수, 사료 운반, 구비 반출, 객로 작업(특히 가금사) 등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 작업들에서는 로동 과정에 참가하는 로동 대상, 생산 도구 및 로동력의 세 요소가 호상 위치 관계는 상대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절대적으로는 동시에 이동하면서 진행된다. 이 모든 작업에서 운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운반 작업은 농산 작업의 모든 국면에 동반되여 진행되는바 특히 영농 기자재의 운반, 퇴비 반출, 비료 운반, 객로 운반, 수확물의 운반 등이 그러하다. 축산업과 농산업의 운반 작업에서는 운반에 쓰여지는 생산 도구에서도 일정한 공통성이 있어 호상 류용하게 되는바, 한편에서의 기계화는 동시에 다른 편에서의 기계화를 동반하게 된다.

축산업에서는 또한 다른 군(群)의 작업들도 수행된다. 이것은 주로 사료 가공, 조리(사료의 절단, 분쇄, 혼합, 발효, 건초 압축, 청초 압즙 등)와 조명, 부화, 착유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축사 시설 및 건설 작업에서 진행되는 작업들로서 로동 대상이 고정된 생산 도구와 로동력 사이를 통과한다. 이것은 가공 공업에서 보편적인 고정 작업이며 농산업에서 수행되는 탈곡, 정선, 농산물의 일차적 가공, 양수 등 작업이 이에 속한다.

농산업에서 수행되는 작업들인 포전 작업, 운반 작업, 고정 작업이 축산 작업에도 역시 모두 포함되여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산 작업의 특징은 그것이 농산 작업에서와 같이 어느 한 작업이 이상 3 작업군 중의 하나의 작업군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고 두 가지, 때로는 세 가지 작업들을 모두 각이한 비률로 포함하고 있는 데 있다. 축산 작업은 농산 작업들의 복합체인바, 우리가 농산 작업과 비교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큰 작업군에 그것을 포함시켰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 례에서도 볼 수 있다. 례하면 가축에게 사료를 급여하는 작업은 조리장으로부터 일정한 용기에 사료를 받은(고정 작업) 다음 이를 축사까지 운반하여(운반 작업) 축군별로 일정한 량을 급여하면서 이동(포전 작업)하며 또다시 조리실로 들어 온다(운반 작업). 이 때에 레루 또는 삭도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운반의 비중이 압도적이므로 이것을 운반 작업에 편입시켰으나, 만일 충분히 기계화가 실시되여 운반의 비중이 격감할 경우에는 이것은 포전 작업에 근사하게 될 것이다.

축산 작업의 이러한 성격은 그를 기계화함에 있어서 이러저러하게 농산 작업의 기계화에서 적용되는 수'법 또는 생산 도구까지도 동일하게 리용할 수 있게 하는 계기로 되는 것이다.

끝으로 축산업의 발전, 따라서 그의 기계화가 농산 작업의 기계화를 동반하는 리유는 우리 나라 사료 기지의 특수성에서 찾아 보게 된

다. 그것은 우리의 축산업이 2모작의 광범한 도입에 의하여 사료 문제를 해결하는 옥내 사육을 주로 하는 데 기인된다.

맥류 후작 옥수수, 콩의 재배와 논, 밭 작물 전작인 맥류, 완두, 채소의 파종, 수확, 탈곡이 관개, 심경, 밀식, 다량 시비의 조건하에서 진행되는 기계화에 의하여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사정이 바로 그것이며, 옥내 사육에서 진행되는 축산 고정 작업들이 농산 작업에서의 동력기, 견인기, 전동기, 운수 수단의 겸용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축산 작업과 농산 작업의 기계화에서 작업별로 량자 간에 생산 도구를 호상 류용하는 것은 기계화 속도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일정한 긍정적 의의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축산업의 발전에 의하여, 포전 작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뜨락또르, 자동차, 축력 등 견인력과 파종기, 수확기, 분무기 등 작업기와 함께 일련의 소도구들의 적용이 촉진되며 축산업의 기계화를 촉진시킴에 반작용할 것이다.

축산 작업과 농산 작업과의 이상과 같은 련계로 말미암아 또한 축산 작업이 포괄적이며 현 시기 그것의 기계화가 전면에 나서고 있음으로 하여 축산업의 발전은 농산 작업의 기계화를 추진시킴에 있어서 중대한 작용을 놀게 되는 것이다.

✻ ✻

축산 작업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농촌 로력 긴장을 해결하는 관건인바 이렇게 함으로써만 2모작의 광범한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더우기 우리 축산업 발전의 공고한 사료 기지가 맥류 파종 면적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그의 후작으로 사료용 옥수수의 광범한 재배에 기초하여 조성된다는 것은 기계화를 도입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왜냐 하면 맥류는 중경, 제초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파종, 수확, 운반, 탈곡 등 그의 가장 중요한 작업들은 전반적으로 기계화가 용이한 것 들이기 때문이다. 옥수수의 경우도 중경, 제초를 역시 기계화할 수 있으며, 사료용 옥수수인만큼 이삭을 수확할 필요가 없고 폼바인 수확이 전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맥류와 옥수수의 기계 파종은 로력을 절약하며 로력 긴장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작업의 질을 보장하며 수확고를 높인다. 서흥군 화곡 농업 협동 조합에서 기계로 밀식한 밀의 수확은 축력으로 기경하고 협조파한 것에 비하여 정당 1.5~2톤의 증수를 보여 주었다.

축산 작업에 있어서 사료의 절단, 분쇄 가공 등 작업과 함께 사료 급여를 기계화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개성시 10월 농업 협동 조합의 경우는 좋은 실례로 된다. 여기서는 사료 분쇄 공장을 건설하며 씰로쓰 절단기, 만능 분쇄기, 근채 절단기, 건초 압착기, 청초 압즙기 등을 설치하여 년 3,000 톤의 사료를 조리함으로써 6,000 여 공수의 로력을 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 류수를 리용하여 급수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축사와 조리실 간에 사료 운반용 삭도를 설치하여 사료 급여를 기계화하고 계사, 토끼사의 소독에 분무기를 리용하고 있다. 장강군 종포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돼지 목장에 삭도를 설치하고 사료 및 거름을 운반함으로써 돼지 관리 로력을 절약한 결과 양돈공의 어미 돼지 관리 두수를 3배로 증가하고도 일이 헐하고 문화적으로 되였다.

뿐만 아니라 기계화는 축산물의 원가를 저하시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축산물 원가 구성에서 사료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는만큼, 사료 생산의 기계화가 축산물 원가 저하의 결정적 고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축산 작업에서도 사료의 조리 및 급여의 비중이 가축 사양에서 압도적인만큼 이들 작업의 기계화 역시 축산물의 원가 저하의 큰 예비로 된다.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이렇듯 인민에게 축산물의 풍족한 공급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

니라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촉진시키며,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내부 부문 구조에 일대 전변을 초래하여 그를 새로운 높은 발전 단계에로 올려 세우는 계기로 된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농민들의 로동은 더욱더 공업 로동의 변종에로 접근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도 제고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사상 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데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전원 회의는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에 있어서 2모작에서는 최근 년간에 파종, 수확, 운반, 탈곡 등 중요 작업을 전반적으로 기계화 하며 축산 작업에 있어서는 우선 사료의 수확, 절단, 분쇄, 가공 등 작업을 기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가 제시한 이 과업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우리 당이 루차 강조한 바와 같이 대기계화와 함께 중 소 기계화를 옳게 배합시키면서 근로자들의 창의 고안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에서 모든 예비를 동원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목표와 방향에 근거하여 축산 작업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기계화 과업을 6월 전원 회의가 제시한 그대로 어김없이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기계화가 실시될 농업 협동 조합 및 국영 농목장들에서와 농기계, 기구, 시설들을 생산 공급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물론 농기계, 기구를 리용하는 조직적 대책의 면에서와 그것을 리용하는 일'군들의 준비 등 모든 분야에서 전 당적인, 전 인민적인 력량을 동원하여 기계화의 예비를 그 어디에서나 남김없이 적발 리용하는 일련의 대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2모작 적지 선정으로부터 포전 조건을 기계화 작업에 유리하도록 정비하며 가축 두수의 급격한 증대와 관련하여 새로 배치되는 목장들의 위치와 건설물들의 배치 자체가 기계화 도입을 예견하고 축사를 비롯하여 사료 조리장, 저장고 등 축산 시설들을 구축함에 있어서도 지방 자재 및 유휴 자재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현대적 대기계 설비들과 함께 중 소 기계화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축사 건설에서 봉산군 지탑 농업 협동 조합에서와 같이 목재, 세멘트를 거의 쓰지 않는 궁륭식 건설과 목재 레루 및 삭도의 부설, 간단한 사료 절단기들의 창의 고안 등 실속있는 기계화 방법들이 시급히 보급되여야 할 것이다.

축산 작업을 비롯하여 농촌 경리 전반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원 회의가 결정한 바와 같이 농기계, 기구, 시설들을 생산 공급하는 각 성 산하 공장, 기업소들과 도, 시, 군영 농기계 공장들에서는 담당 지방의 구체적 영농 조건을 충분히 타산하며 농민들과의 구체적 토의 밑에 해당 지역에서의 사료 생산 체계와 가축 사육 제도 및 배치된 가축 종류별 구성 정형 등을 충분히 료해한 기초 우에서 실제 생산 행정에서 성능 높고 쓸모있는 농기계, 기구들을 책임적으로 제때에 충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기계 공업성 산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황해남도 각 군에 대한 기계화 방조 사업은 긍정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세포 농기구 공장 로동자들이 군내 농업 협동 조합들에 금년 8. 15까지 시간당 8톤 반의 절단 성능을 가진 사료 절단기 60대를 생산 공급할 것을 결의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실속있는 실례로 된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 과업 수행에서 농기계 임경소에는 더욱 중요한 임무가 부과되였다. 농기계 임경소들은 농산 작업의 기계화 뿐만 아니라 축산 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계 설비들을 갖추고 작업을 통한 방조를 줄 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들을 농업 협동 조합에 대여하는 사업도 조직할 것이 위임되였다. 이미 일정한 경험을 축적한 군들에서 농기계 임경소는 담당 지역 내에서 점차 농업 부문별 기계 체계를 수립하여 종합적 기계화에로의 이행을 준비할 단계에 들어 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경소들은 담당 지역 내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기계의 도입을 방조하며 기술적 관리에 일상적인 지도를 주는 데 이르기까지 자체의 역할을 현저히 높일 것이 요구

되고 있다.

축산업을 포함한 농촌 경리의 기계화 과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농기계, 기구, 시설들의 생산 확장에 비하여 기술 기능 인재의 준비 사업이 뒤떨어져서는 기계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각종 교육 체계 및 양성 조직들을 통하여 축산업 발전에 소요되는 인재를 예견성있게 양성함은 물론 국영 농목장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 기능자 양성 사업에 특히 관심을 돌릴 것이며, 축산 부문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전진과 혁신의 믿음직한 담당자인 청년 핵심 진지를 형성하는 것은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 전국 축산 부문 청년 열성자 회의 결의에 호응하여 나선 그들의 선봉적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최대의 지도 방조 사업이 추진되여야 한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축산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까지 다른 모든 과업 수행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의 축산 정책을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키며 그들을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는 정치 사업과 일'군들의 사상 관점, 그의 지도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로동에 의한 분배 법칙과 농업 생산

허 학

농업 협동 조합들이 리 단위로 통합된 오늘 협동 경리 내부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협동 경리를 정치 경제적으로 가일층 공고화하는 것은 농업 협동 조합 지도 일'군들과 이 부문 당 단체들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오늘 이 부문의 일부 지도 일'군들은 농업 협동 조합의 정치 경제적 공고화를 위하여 다만 생산에만 일면적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킬 데 대하여서는 소홀히 생각하고 분배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군들이 지도하고 있는 협동 조합들에서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실현에서 선결 조건으로 되는 로력일 평가 계산이 그릇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어는 로동의 질과 량에는 관계 없이 생산물을 평균주의적으로 분배하는 현상이 발로되고 있다.

수입 분배에서의 평균주의적 편향은 주로 결산 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바 전불과 결산 분배에서 조합원들이 수득한 로력일에 엄격히 의거하지 않고 가족수에 따라서 분배하거나 《배급》의 형식으로 분배하는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농업 협동 조합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위반하는 현상은 모든 작업을 정확한 작업 정량에 의하여 조직하지 않으며 로력일을 평가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투하한 로동의 량과 질에 엄격히 의거하지 않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심히 모순된다.

이것은 일부 농업 협동 조합 지도 일'군들이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객관성과 이 원칙의 철저한 관철이 농업 생산 장성에 미치는 거대한 의의를 잘 모르며 그들이 사회주의적 경리 운영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데로부터 나온 편향들이다.

모든 부문에서와 같이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사회주의 분배 원칙은 곧 각자에게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에서의 로력 보수는 로동의 종류, 성질, 그 힘든 정도, 복잡 정도, 기능 정도 등을 포괄하는 로동의 질과 로동 시간, 작업량 등으로 표시되는 로동의 량을 엄격히 고려한 기초 우에서 지불된다. 이것은 경제 법칙이다.

그러면 왜 우리의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가 객관적 경제 법칙으로 되는가?

농업 협동 조합에서의 모든 생산 수단은 조합원들의 협동적 소유에 속하고 있으며 그것은 공동적으로 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수단에 대한 분배 몫이란 있을 수 없다. 조합원들은 오직 로동으로써만 조합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바 따라서 조합원들이 협동적 생산에 의한 생산물 중에서 소비 몫을 받을 때에는 로동밖에 기준으로 될 것이 없다. 일하지 않은 자, 건달'군은 조합의 공동 생산물에서 분배 받을 권리가 없다.

로동이 분배의 기준으로 된다는 것은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하여 분배의 다소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한 개 측면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사회주의가 아직 공산주의 단계처럼 그렇게 높은 정도로 발전하지 못한 사회라는 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착취자들이 청산되였고 생산 수단이 사회화된 결과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것은 아직 사회 성원들에게 《수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을만큼 높은 수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주의하에서는 로동이 인간의 첫째가는 생활상 요구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간, 중로동과 경로동 간, 숙련 로동과 미숙련 로동 간의 차이가 의연히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는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으며 이로부터 동일한 작업을 동일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할 때에도 량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로동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개별적 매개 생산자는 (사회적 폰드를 위한 그의 로동을 공제한 후) 얼마 얼마의 로동량을 제공하였다는 증서를 사회로부터 받고 이 증서에 의하여 사회적 저장 중에서 같은 분량의 로동이 지출되여 있는 수량의 소비 수단을 받는다》(맑스, 엥겔스 저작 선집,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2권 1분책, 19페지).

이것은 로동에 의한 분배가 사회주의 조건하에서 객관적 경제 법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 법칙은 사회주의하에서 객관적 경제 법칙으로 될 뿐만 아니라 생산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생산의 발전과 기술 기능 제고에 대한 조합원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함으로써 생산력의 발전을 추동하며 조합원들의 생활을 급속도로 향상시킨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력을 부단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레닌이 교시한 바와 같이 농촌에서 사회주의는 바로 농민들의 개인적 관심에 기초하여 건설되여야 하는바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일'군들의 생산 확대에 대한 최대의 관심을 일으키게 하자면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 법칙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왜냐 하면 로동에 의한 분배가 실시되는 조건하에서 조합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생산 성과를 더욱 높이면 높일수록 농업 생산은 급속히 확대되며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개인적 분배 몫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로동에 의한 분배 법칙은 협동 경리에서 숙련 로동과 미숙련 로동 간의 차이를 엄격하게 고려하여 로력일을 평가 계산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 강력한 자극을 줌으로써 농업 생산의 확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는 로동 생산 능률의 급속한 제고를 촉진한다. 조합원들을 보다 높은 기술 기능을 소유하도록 물질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조건하에서 절대로 필요하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농업 생산을 급속도로 장성시킬 수 없으며 조합의 경제 토대를 공고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동에 의한 분배가 바로 이에 있어서 큰 역할을 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생산 확대와 자기들의 문화 기술 수준의 제고를 위한 물질적 관심을 조장함으로써 생산 발전에 극히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농업 협동 조합 지도 일'군들처럼 생산 일면에만 관심을 집중하며 생산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분배에 대하여 적게 관심을 돌리거나 심지어 분배 방법을 자의대로 취하려는 것은 바로 생산의 확대에 직접적인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도 일'군들은 생산과 분배 간의 변증법적 호상 관계를 모르고 있다.

생산과 분배는 호상 작용하는 변증법적 통일체인바 여기에서 생산은 분배를 규정한다. 《분배 자체가 생산의 산물이다——대상의 점에서 뿐만 아니라(왜냐 하면 생산의 결과만이 분배될 수 있기 때문에) 형태의 점에서도 (왜냐 하면 생산에의 참가 방식이 특수한 분배 형태——각자가 분배에 참가하는 형태——를 규정하기 때문에)》(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179페지).

즉 분배량이 생산물의 량에 의하여 규정될 뿐만 아니라 분배 형태까지도 생산 방식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생산물 중에서 자본가들에게 압도적 부분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에게는 극소부분만 주는 그러한 분배 형태를 규정하였다면 사회주의적 생산은 그의 생산물을 근로자들의 로동에 따라 분배하는 형태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 방식은 사람들이 자의대로 택할 수 있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분배가 단순히 생산에 의하여 규정되기만 하고 생산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리해하여서는 안 된다. 분배는 생산의 단순한 수동적 결과가 아니며 그것은 그것으로써 생산에 반작용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만일 사회주의하에서 객관적 경제 법칙으로 되는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 법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옳게 적용한다면 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에 그를 무시하거나 자의대로 리해하고 그릇되게 적용한다면 생산에서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농업 협동 조합 지도 일'군들은 생산과 분배의 이와 같은 호상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생산에만 일면적으로 치중할 것이 아니라 조합들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 정확하게 관철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돌림으로써 농업 생산의 더욱 급속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시종 일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며 우리의 대다수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생산이 급속히 장성되고 있는 것은 로동에 의한 분배 법칙이 철저히 관철되고 있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고 있다.

소위 《공평》하게 살게 한다는 주관적인 념원으로부터 판문군 진봉리에서와 같이 생산물을 가족수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분배하거나, 《식량을 절약한다》는 리유로써 황북도 연산군 신생리에서와 같이 4년 간 계속 현물 분배를 하지 않고 《배급》의 형식으로 분배함으로써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에게나 적게 한 사람에게 꼭같이 분배하는 것 등은 사회주의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마치도 소비, 생활 조건, 취미, 수요 등의 전반적 균등으로 간주하는 소부르조아적 평균주의 사상의 표현이다.

오늘 사회주의의 조건하에서 더 많이 일한 조합원과 보다 적게 일한 조합원 간에, 조합과 사회에 더 큰 리익을 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가족이 많은 사람과 가족이 적은 사람 간에 일정한 생활상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다.

우리가 말하는 평등이란 생산 수단의 소유에서의 조합원들의 평등을 의미하며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에 기초하여 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의 평등이며 동일한 질과 량의 로동에 대하여 동일한 분배를 받을 권리(성별, 년령, 체격 등에 관계없이)의 평등이다. 이것은 공동 생산에서 열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열성적으로 일한 사람에게나 꼭같이 균등적으로 분배하여 주어야 한다는 《평등》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같이 풍부하게 잘 살게 될 그러한 사회——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이 목적은 분배를 《배급식》으로 《공평》하게 균등적으로 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산의 부단한 확대에 기초하여 사회적 재부가 《분류처럼 넘쳐나게》 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 또 그것은 바로 낡은 사회적 분업이 청산되고 로동이 생활상 첫째가는 요구로 되는 때에 가서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당이 오늘 강력하게 추진시키고 있는 농촌 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와 전반적 기술 의무 교육제의 실시 준비 등을 비롯한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의 수행이 바로 이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분배를 평균주의적으로 함으로써 공평한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몽상이며 실천적으로는 극히 유해한 결과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수입 분배에서 평균주의적 편향을 범한 협동 조합들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로력일을 많이 수득하나 적게 수득하나 마찬가지다》느니, 《배급 타 먹기야 마찬가지인데 일을 천천히 하자》는 등으로 공동 로동에서 열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연하지 않다.

이와 같이 수입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필연적으로 공동 로동에서 조합원들의 적극성과 생산 의욕을 마비시키며 로동 규률을 약화시키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저하시킴으로써 조합의 공고화와 조합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향상에 장애를 준다.

또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모든 작업을 등급별 작업 정량에 의한 도급제 원칙에 기초하여 조직 진행하지 않으며 로력일을 그에 투하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하여 평가 계산하지 않는 편향을 발로시키고 있다. 몇 가지 례를 들어 보자.

황남도 벽성군 시원 협동 조합에서는 작업 정량을 구체적 실정과 엄격한 기술 경제적 기준에 의하여 제정하지 않고 조합원들에 따라 각이한 정량을 제정함으로써 80평의 논에 이앙을 한 사람과 120평 또는 150평의 논에 이앙을 한 사람에게 다같은 량의 로력일을 계산하여 주었으며, 평북도 구성군 남창 협동 조합의 일부 일'군은 《도급제를 실시하려면 개인 농사를 하지 무엇 때문에 협동 경리를 하는가》고 하면서 도급제를 부인하여 나섰다. 또한 평남도 숙천군 대성, 소요 및 기운리 협동 조합들에서는 로력일을 그날 그날 평가 계산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에 한 번씩 본인에게 물어보고 적당히 눈'짐작으로 계산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이러저러하게 평균주의와 통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적극성을 심히 약화시킨다.

만일 로력일을 수행한 작업량에 의하여 계산하지 않고 대강 계산한다던지 80평을 이앙한 사람과 150평을 이앙한 사람에게 꼭같이 계산하여 준다면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서는 필연적으로 불만이 일어나며 또 조합원들이 더 많이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조합원들에게는 적게 주어야만 모든 조합원들이 남보다 더 일하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생산은 급속히 발전할 것이며 모든 사람의 생활도 더 빨리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일부 농업 협동 조합 지도 일'군들은 로동에 따라 분배하면 모든 조합원들이 《공평》하고 화목하게 살 수 없으며 전반적 생활 수준이 향상될 수 없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동에 따라 분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생활 수준이 불평등하며 또 전반적 생활 수준의 제고에 장애가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평균주의적 분배가 생산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을 저하시킴으로써 조합 생산의 확대를 장애하며, 생산의 부단한 장성에 기초한 조합원들의 급속한 생활 향상, 그들의 생활 수준의 점차적 접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 수준의 접근은 생산물을 가족수에 따라 분배하거나, 다같이 공동 식당에 망라시켜 꼭같은 량의 식사를 보장해 주는 식으로 농업 협동 조합원들의 생활을 균등화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은 수준에로 제고시킴으로써 달성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오직 생산의 확대에 의하여서만 달성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분배 방법이 생산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며 생산을 추동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지도 일'군들은 로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공산주의적 사상으로 농민들을 교양하는 것과 부합되지 않으며 오히려 농민들의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조장시킨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일을 많이 하고 분배도 많이 받으려는 농민들의 요구를 개인 리기주의라고 그릇되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로동에 의한 분배가 집단주의 정신에 배치되는 개인 리기주의 근성을 퇴치함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또한 일을 많이 하고 일한 것만큼 분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결코 개인 리기주의 사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농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하려는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로 조합원들을 교양하는 것은 바로 로동에 의한 분배 법칙의 실현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법칙을 위반할 때 농민들의 개인 리기주의는 조장되며 건달'군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것이다.

바로 강원도 통천군 화룡 농업 협동 조합에서와 같이 생산물을 분배해 주지는 않고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나 적게 한 사람에게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량에 따라 조합 공동 식당에서 식사하게 함으로써 건달'군들과 개인 리기주의를 조장한 것이 그 실례로 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 법칙을 위반하며 그를 그릇되게 리해하는 일체의 편향은 사회주의에는 불리하며 농민들에게 사회주의의 맛을 모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적극성을 마비시킨다. 그것은 오직 건달'군들에게만 유리하며 또 개인 리기주의를 비롯한 모든 낡은 사상 잔재의 지속에 유리한 지반을 제공하여 주는 데 불과하다.

* *

오늘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수입 분배에서 존재하는 편향과 결함 발생의 중요한 원인은 일부 당 단체들과 농업 협동 조합 지도 일'군들에게 사회주의적 경리 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의 정책과 결정에 대한 본질적인 리해와 자기 사업에 대한 심오한 연구가 부족한 데 있다.

사회주의 경제 지식과 당 정책에 대한 정당한 리해가 없이는 또한 자기 사업에 대한 심오한 연구가 없이는 사회주의적 원칙에 튼튼히 립각하여 자신성있게 협동 조합을 관리 운영하며 지도할 수 없다.

따라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킴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는 매개 지도 일'군들이 당의 정책을 철저히 리해할 뿐만 아니라 로동에 의한 분배 법칙의 내용과 그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를 자기 조합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배우고 연구하는 데 있다.

지도 일'군들을 비롯한 전체 조합원들이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 법칙의 객관적 필연성과 그의 내용을 똑똑히 알므로써만 일체 그릇된 편향들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분배의 우월성을 원만하게 발휘시킬 수 있으며 농업 생산을 더욱 성과적으로 앙양시킬 수 있다.

농촌 경리 부문 내 당 단체들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엄격한 작업 성량에 의한 로력일의 적시적인 평가 계산, 전불제와 년말 결산 분배의 정확한 실시 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실무 강습의 광범한 조직과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조합 지도 일'군들의 조직 실무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 법칙을 정확하게 관철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의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농업 생산을 더욱더 앙양시키고 조합의 경제 토대를 더욱 공고화하여야 할 것이다.

영웅적 쏘련 공산당의 력사

—쏘련 공산당 력사 새 교과서의 출판과 관련하여—

아. 베레즈낀, 에쓰. 메젠쩨브

최근 년간에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당 및 국가 기관 지도 간부들의 맑스-레닌주의적 준비 정도를 제고하며 전체 쏘련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청년들 속에서의 교양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실시하였다.

이 대책들 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치 경제학, 철학, 당 력사, 쏘련 인민사 및 기타 몇몇 사회 과학에 관한 교과서와 참고서들의 편찬 사업이다.

우리 간부들의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의 형성, 그들의 정치적 단련, 근로자들의 공산주의 교양에서 쏘련 공산당 력사의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특히 크다. 레닌에 의하여 창건되고 육성된 쏘련 공산당은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력사적 로정을 걸어 왔다. 반 세기 이상에 걸친 이 길은 로동 계급, 쏘련 인민의 영웅적 투쟁, 준엄한 시련 및 전 세계사적 승리의 길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의 길이다.

창건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쏘련 공산당은 당 건설, 광범한 근로 대중의 단결과 공산주의 교양, 쏘베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대한 지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전면적인 연구 및 그의 정확한 해명은 거대한 국내적 및 국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당 력사의 편찬 및 교수 사업에는 엄중한 결함들이 있었다. 일부 력사적 사실들이 맑스-레닌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개인 숭배의 립장에서 서술되였으며 때로는 외곡되게 서술되였다. 당 력사 연구가들 가운데서 교조주의와 독경주의, 리론과 실천의 유리가 아주 광범하게 전파되였으며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적지 않게 비겁성을 발로시켰다.

당 중앙 위원회가 쏘련 공산당 력사의 해명과 연구에서 발로된 결함들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제 20차 당 대회에서 진술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는 장래에 있어서도 간부 교양을 위한 중요한 원천의 하나로 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 력사에 관한 통속적인, 력사적 제 사실에 의거한 맑스주의적 교과서 즉 공산주의를 위한 당의 전 세계사적 투쟁 경험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고 오늘날까지의 력사를 다 서술한 교과서를 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 및 당 중앙 위원회의 교시들을 지침으로 하여 저자 집단은 쏘련 공산당 력사에 관한 새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얼마 전에 국립 정치 서적 출판사는 이 책을 출판하였다*.

《쏘련 공산당 력사》의 출판——이것은 당 사상 생활, 당의 풍부한 경험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된다. 우리 간부들, 사상 전선의 일'군들, 광범한 공산당원 및 공청원 대중들, 인테리 및 대학생들을 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에 이 교

---

* 《쏘련 공산당 력사》, 국립 정치 서적 출판사, 1959년 발행, 743페지. 교과서 편찬 사업에 참가한 저자 집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쏘련 과학원 통신 회원(책임자) 베. 엔. 뽀노마레브, 교수 이. 엠. 월꼬브, 력사학 학사 엠. 에쓰. 월린, 력사학 학사 웨. 에쓰. 자이쩨브, 력사학 박사 아. 뻬. 꾸츠낀, 과학원 원사 이. 이. 민쯔, 경제학 학사 엘. 아. 쓸레뽀브, 철학 학사 아. 이. 쏘볼레브, 력사학 학사 아. 아. 찌모페예브쓰끼, 쏘련 과학원 통신 회원 웨. 엠. 호워쓰또브, 력사학 박사 이. 샤따긴.

파서가 참가하게 되였는바 이 책은 당이 걸어 온 백전 백승의 길을 연구하며 맑스—레닌주의의 력사와 리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참고서로 될 것이다.

※ ※

력사 파정의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기초를 규정하면서 웨. 이. 레닌은 사건과 사실들의 기본적 련계를 망각해서는 안 되며 력사에서의 소여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이 현상이 그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주요 단계들을 경과하여 왔으며 또 소여의 사물이 지금 어떻게 되여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매개 문제들을 고찰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레닌 전집, 제29권, 436페지 참조). 뿐만 아니라 맑스주의 력사가는 사건의 단순한 기록자로 될 수 없으며, 현상과 사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칙적 립장에 서야 하며 공산당의 관점, 그의 총 로선을 견지하여야 하며, 연구가는 사건이 오늘 어떻게 또 어디에로 발전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해명할 줄 알아야 하며 그를 옳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레닌은 수차 강조하였다. 쏘련 공산당 력사는 구체적이며 확실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혁명 운동과 국제 로동 운동,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공산주의를 위한 쏘련 인민의 투쟁과의 불가분의 련계하에서 합법칙적 파정으로서 이루어진 당의 발생, 강화 및 발전의 력사를 유물론적으로 리해하는 견지에서 서술되였다.

저자 집단은 당 내부 생활, 당의 전략 전술, 대중 속에서의 당 조직 사업의 근본 문제들에 관한 레닌적 사상과 견해의 해명이 흔히 당의 실천 활동, 당의 지도 기관 및 지방 당 단체들의 실천 활동에 대한 분석과 동떨어져서 진행되였던 지난 날의 엄중한 결함을 현저히 극복하였다. 종전에 문구를 인용하거나 문헌을 단순히 베껴 놓는 데 그쳤고 당의 조직자적 역할과 당이 활동한 당시의 환경에 대해서는 고려를 돌리지 않은 결함도 극복하였다.

이 교과서는 웨. 이. 레닌의 로작, 쏘련 공산당 대회, 당 대표자 회의 자료와 결정들 및 기타 당 문헌들 그리고 력사학의 제 성과에 기초하여 서술되였다. 저자 집단은 레닌의 리론적 유산을 연구하며 당의 실천 활동을 일반화하는 큰 사업을 완수하였으며 당 력사 연구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은 당을 창건하며 혁명 리론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며 짜리 제도하에서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수립 이후에 당을 직접 지도하는 사업에서 웨. 이. 레닌이 논 역할을 보다 뚜렷이 보여 줄 가능성을 주었다. 이 책에는 이러저러한 단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력사적 환경 속에서 당이 활동하고 발전하였으며 레닌의 리론적 견해가 정식화되였는가 하는 문제가 명시되여 있으며 어떤 반당적, 수정주의적 및 개량주의적 사조들과의 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의 보물고에 기여한 천재적인 레닌적 명제가 작성되고 완성되였는가 하는 문제가 해명되여 있다.

웨. 이. 레닌의 제자들과 후계자들, 저명한 직업적 혁명가들, 당 및 국가 활동가들, 지방 당 단체 지도자들의 활동을 광범하게 해명한 것도 역시 이 교과서로 하여금 특출한 것으로 되게 하였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당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고 쏘베트 주권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한 수십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개인 숭배가 광범하게 전파되여 있던 시기에는 많은 당 및 국가 활동가들의 역할이 과소 평가되였으며 때로는 그것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우기 중요한 것이다.

력사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교과서의 필자들은 우리 당 및 쏘베트 국가의 생활과 활동에서 그리고 국제 로동 운동에서 이. 웨. 쓰딸린이 논 역할을 천명하고 있다.

그들은 이. 웨. 쓰딸린이 당 중앙 위원회 총 비서의 직위에 있으면서 당 및 쏘베트 국가의 다른 지도적 활동가들과 더불어 레닌의 유언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 강조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쏘련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실시, 국방 사업과 관련되여 있다. 탁월한 리론가이며 조직자인 그는 트로쯔끼주의자들, 우경 기회주의자들,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책동과 자본주의적 포위의 온갖 음모를 반대하는 투쟁을 지도하였다. 쓰딸린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 및 해방 운동 발전에서 거대한 공적을 남겼다. 이것은 그의 위신을 높였으며 그로 하여금 명성을 떨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이 교과서에는 이. 웨. 쓰딸린이 특히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범한 엄중한 오유가 지적되여 있으며, 개인 숭배를 조장시킨 원인들이 고찰되여 있으며, 당 및 국가 건설 사업, 지도 간부들과 광범한 근로 대중에 대한 교양 사업에 끼친 그 해독이 언급되였으며 그리고 개인 숭배와 그의 후과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이 취한 대책들이 지적되여 있다.

개인 숭배의 후과를 극복함으로써 당은 대중의 적

극적 활동과 창발적 발기를 위한 광활한 전망을 열어 놓았으며 짧은 기간에 나라의 인민 경제와 문화 발전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으며 형제 당들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의 사회주의 진지의 실질적 공고화를 달성하였다.

당과 그의 지도 간부들이 레닌의 사상으로 튼튼히 단련되여 있다는 것과 생활을 잘 반영한 당 정책을 작성하고 관철하는 데 있어서 집체적 원칙이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뚜렷이 표현되였다.

새 교과서는 현 시기까지를 포괄한 쏘련 공산당 력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책의 거의 3분의 2는 10월 혁명 이후 시기의 당 력사, 사회주의 건설의 리론과 실천의 해명에 돌려지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전 련맹 공산당(볼쉐위크) 력사 간략 독본》은 당 력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당 간부들과 전체 쏘련 사람들에게 막대한 방조를 주었다. 새 교과서에서는 《전 련맹 공산당(볼쉐위크) 력사 간략 독본》에 서술되여 있는 내용 가운데서 유익한 것, 력사적 사실과 맑스—레닌주의적 방법론에 합치되는 것들을 모두 참작하였으며 개인 숭배의 립장에서 일면적으로 해명된 부분은 제거되였다.

력사 과정의 객관적 발전과 과학적 연구의 제 성과에 적응하여 새 교과서에서는 《전 련맹 공산당(볼쉐위크) 력사 간략 독본》도 포함하여 이전에 출판된 교과서들에서 취하였던 당 력사의 시기 구분을 재검토하여 정확히 설정하였다. 새 교과서는 18장으로 구성되여 있는데 매개 장은 쏘련 공산당 발전에서의 일정한 시기를 포괄하고 있다. 1923년까지의 당 력사의 시기 구분은 웨. 이. 레닌의 로작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과 기타 로작들에 포함되여 있는 그의 교시에 기초하였다. 그 이후 년간에 있어서의 쏘련 공산당 력사의 제 시기는 쏘련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우리 나라가 거대한 공산주의 건설 시기에 들어 서는 중요한 제 단계로 구분되여 있다.

제 1장의 제목은 《로씨야에서의 로동 운동의 시초와 맑스주의의 보급》이다. 제 1장은 1883~1894년간을 포괄한다. 《로동 계급 투쟁 동맹》으로부터 제 2차 당 대회에 이르기까지의 웨. 이. 레닌의 혁명 활동, 인민파, 《합법적 맑스주의》 및 《경제주의》와의 레닌의 투쟁은 제 2장 《로씨야에서의 맑스주의 당 창건을 위한 투쟁, 로씨야 사회 민주 로동당의 형성, 볼쉐위즘의 발생 (1894~1904년)》에서 서술되여 있다. 이렇게 장을 설정함으로써 로동 계급의 맑스주의 당 즉 새 형의 당을 로씨야에 창건하기 위한 레닌의 투쟁을 보다 완전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맑스주의 발전에서의 레닌적 시기의 시초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레닌의 시기 구분에 적응하게 반동 시기(1908~1912년 대신에 1907~1910년)와 새로운 혁명적 앙양의 시기(1912~1914년 대신에 1910~1914년)에 있어서의 당 력사의 년대적 구분을 정확히 설정하였다.

제 8장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의 발전 및 쏘베트 주권의 공고화를 위한 당의 투쟁(1917년 10월~1918년)이 밝혀지고 있다.

이전에는 이 문제가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준비와 수행(1917년 4월~1918년)을 취급한 한 개 장에서 고찰되였다. 장들의 새로운 구성은 당의 력사와 인민의 생활에서의 위대한 계선으로 되는 10월 혁명과 그의 전 세계사적 의의를 더 상세하게 보여 줄 수 있게 하였으며 또 전 로씨야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발전을 위한, 10월 혁명 후 수개월 간에 있어서의 쏘베트 주권의 수립 및 공고화를 위한 당의 투쟁을 더 폭 넓게 해명할 수 있게 하였다.

제 12장에는 1929~1932년을 포괄하는 다른 중요한 시기가 서술되고 있다. 이 장은 《전 전선에 걸친 사회주의의 진공 시기에 있어서의 당, 꼴호즈 제도의 창설》이란 제목을 달았다. 이와 같은 시정은, 쏘련을 농업국으로부터 공업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꼴호즈 제도의 수립을 위한 당의 투쟁이 가지는 의의를 더욱 명확히 해명할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1933~1937년 간이 제 13장——《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을 위한 당의 투쟁, 쏘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으로 구분되고 있는바 이는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의의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 주며 또한 쏘베트 국가의 대내외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당 앞에 나섰던 새 과업들을 더 충분히 밝힐 수 있게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 련맹 공산당(볼쉐위크) 력사 간략 독본》에는 1937년까지의 당 력사가 서술되였다. 새 교과서는 1938년부터 오늘날까지의 기간이 다음과 같은 5개 장으로 서술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강화 및 발전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당, 국방의 강화(1937~1941년 6월)》,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있어서의 당(1941년 6월~1945년)》, 《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을 위한 당의 투쟁(1945~1953년》, 《인민 경제의 강력한 앙양과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위한 당의 투쟁(1953~1958년)》, 《쏘련의 전면적 공산주

의 사회 건설 시기에로의 진입, 제 21차 당 대회》.

교과서는 결론으로서 끝나고 있다. 결론에서는 당이 걸어 온 보람찬 길에 대한 주요한 총화가 간단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또한 쏘련 공산당 력사가 무엇을 가르쳐 주며, 그 경험의 력사적 의의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서술되여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정식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 조국의 자유와 사회주의적 개조와 제국주의 강점자들로부터의 조국의 수호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국제주의적 및 진정한 애국주의적 력량으로서의 당의 역할이 훌륭하게 강조되였다.

이렇듯 저자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쏘련 공산당 력사 교과서는 쏘련 인민의 수령이며 스승인,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적 부대인 영웅적 쏘련 공산당의 력사를 처음으로 충분하고도 광범하게 밝히고 있다.

*　　*

공산당의 발생 및 발전의 복잡한 과정과 낡은 자본주의 사회를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로 개조하기 위한 대중의 투쟁에 있어서의 당의 지도적 역할을 전면적이며 확실하게 해명하고 있는 것은 쏘련 공산당 력사 새 교과서의 중요한 우점의 하나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로동 계급의 력사적 역할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였으며 또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당 창건의 필요성을 증시하였다. 로씨야에서의 혁명 운동의 려명기에 정치 무대에 나선 웨. 이. 레닌은 로씨야의 맑스주의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로씨야 로동 계급의 운명과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의 운명을 프로레타리아트의 맑스주의적 당의 결성과 결부시켰다. 그는 벌써 자기의 첫 로작들에서 인민의 수령인 로씨야 로동 계급의 력사적 길을 천명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권에 관한 사상을 내놓았으며 혁명 투쟁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동맹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로동 계급은 로동 운동에 자각성과 조직성을 부여할 정당을 가짐으로써만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레닌은 강조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조직 이외에는 아무러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레닌은 썼다. 《우리에게 혁명가들의 조직을 달라——그러면 우리는 로씨야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이 레닌의 말은 예언적인 것이였다. 레닌이 창건한 볼쉐위크당은 실제로 로씨야를 뒤집어 엎었으며 우리 조국을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시켰다.

웨. 이. 레닌은 굴함없이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였다. 레닌 및 그의 제자들과 전우들의 긴장된 거대한 조직 사업과 리론 사업의 결과에 기회주의에 대하여 비타협적이며 부르죠아지에 대하여 혁명적인 새로운 형의 당 즉 사회 혁명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당이 로씨야에 창건되였다. 볼쉐위크당의 창건은 로씨야 및 국제 로동 운동에서의 전환점으로 되였다. 교과서에서는 《볼쉐위즘은 1903년 이래 정치 사상의 한 조류로서 또 한 개의 정당으로서 존재하여 오고 있다》(레닌 전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8년, 제 31권, 7폐지)는 레닌의 교시가 회복되였으며 당을 창건한 로씨야 사회 민주 로동당 제 2차 대회의 커다란 의의가 강조되였으며 동시에 새 형의 당의 기초가 쁘라가 당 대표자 회의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릇된 테제가 시정되였다. 이와 함께 새 교과서에서는 쁘라가 당 대표자 회의가 당 력사 및 국제 로동 운동사에서의 거대한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교과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쁘라가 당 대표자 회의의 위치는 그것이 《멘쉐위크들을 반대하는 볼쉐위크들의 전 력사적 투쟁 기간을 총화하였고 볼쉐위크들의 승리를 공고히 하였으며 볼쉐위크들의 수중에 로씨야 사회 민주 로동당의 기'발을 보존하였다》 (153폐지)는 것으로써 규정된다.

맑스주의적 프로레타리아트 당은 웨. 이. 레닌에 의하여 로동 계급의 최고 형태의 계급적 조직으로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전취 및 새 사회의 건설에로 전체 로동 계급, 근로 대중을 인도할 수 있는 선진적이며 가장 잘 조직되였으며 가장 자각적이며 가장 규률적인 로동 계급의 부대로서 창건되였다. 당과 매개 당원의 온갖 활동은 로동 계급의 리익에 전적으로 복종되여 있다. 당의 내부 구조, 구성, 당 생활 규범, 당의 모든 고리들의 사업 내용, 당의 대중 지도 형태 및 방법은 이로써 결정된다.

로동 운동의 뒤꼬리를 따라 다니는 서방의 사회 민주당들과는 달리 볼쉐위크당은 그 창건 첫날부터 혁명 운동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으로, 인류 리상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와 전체 근로자들의 수령 및 조직자로 출현하였다. 교과서에서는 많은 구체적 자료들에 근거하여 로씨야 맑스주의자들과 창건 이래 오늘에 이르는 전 기간을 통한 볼쉐위크당의 빛나는 투쟁이 천명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당의 지도 형태 및 방법들이 고찰되였으며 그의 위력, 그의 장성하는 위신의 근원이 천명되였다.

레닌적 공산당은 대중과 인민으로부터 동떨어진

협애하고 고립된 집단으로 된 때가 없었다. 공산당은 대중과 긴밀히 련결되고 또한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혈연적 리익을 대표하는 프로레타리아 혁명가들의 당으로 창건되였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한 공산당은 정확한 정치 로선을 수립하고 로동 계급과 전체 쏘련 인민의 노력을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 목적 즉 공산주의 건설에로 인도한다.

당 정책들은 쏘련 공산당 대회와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의 결정들에서 정식화되며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당및 국가 기관들의 결정들에서 규정된다. 중앙 위원회, 지방 당 지도 기관 및 초급 당 단체들은 채택된 결정이 광범한 대중의 것으로 되게 하며 대중이 예견된 대책을 자기들의 혈연적 사업으로 접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것은 우선 광범한 해설 및 교양 사업과 또한 공산당원들의 개인적 모범에 의하여 달성된다. 교과서에서는 당이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며 그것을 광범한 대중에게 침투시키는 동시에 거대한 조직자적 사업 즉 사업의 직접적인 집행자들을 선발하며, 대중에 대한 지도 형태 및 지도 방법과 나라의 전체 경제 및 문화 생활 분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53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최근 년간에 있어서의 당 및 당 중앙 위원회와 지방 당 단체들의 꾸준한 조직자적 활동이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년간에 당은 자기의 대중 령도 예술과 쏘베트 사회 생활에서 성숙된 문제들을 포착하며 그것을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완을 더욱 뚜렷이 시위하였다. 당은 경제, 문화 및 근로자들의 복리를 새로운, 보다 높은 수준에로 제고시킨 거대한 시책들의 고무자이며 조직자였다.

교과서는 3천 600만 헥터의 처녀지 및 황무지 개간, 공업 및 건설 관리의 개편, 엠떼에쓰의 개편 및 꼴호즈 제도의 가일층의 발전, 1959～1965년 쏘련 인민 경제 발전 7개년 계획의 작성과 그의 채택, 도시 및 농촌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 관심 원칙의 더욱 철저한 적용과 같은 대책들이 가지는 의의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당은 우리 나라 인민 교육 체계의 개편을 위한 대책과 기타 많은 대책들을 취하였다.

나라의 사회 정치 생활에서, 국가, 경제 및 문화 건설에서 당과 그 레닌적 중앙 위원회의 향도적 및 조직적 역할이 미치지 않은 분야라고는 하나도 없다. 당의 발전에 있어서의 이 새로운 시기는 로동 계급, 꼴호즈 농민 및 인테리들의 창의 창발성의 류례없는 앙양으로써 특징 지어진다. 근년에 당 생활 규범 및 집체적 지도 방법을 위반하는 현상이 결정적으로 시정되였으며 당 및 쏘베트 건설에서, 사회 단체들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현상이 근절되였다. 나라의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전체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에서 거보의 전진이 이루어졌다. 당은 최신 기술과 과학의 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하는 커다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적 진보,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 및 자동화 그리고 공산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화학 공업 및 기타 공업 부문들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 문제들을 대담하게 해결하고 있다.

당의 힘은 당과 대중의 끊을 수 없는 련계, 당에 대한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 당 대렬의 통일에 있다. 교과서의 저자들은 공산당의 력사적 길을 밝히면서 당 대렬의 단결을 위한 당의 투쟁이 가지는 의의를 폭 넓게 보여 주었다. 이 문제는 항상 전 당과 당 중앙 위원회의 주의의 초점으로 되였다.

당은 각종 수정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 즉 《경제주의자》, 멘쉐위크, 트로쯔끼주의자, 우익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분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조건의 하나를 보장하였다. 각이한 단계에서의 당 대렬의 통일을 위한 당의 투쟁을 연구함으로써 독자들은 당 및 당 단체들의 발전 및 기능 수행의 합법칙성으로서의 그리고 로동 계급의 전위대 및 쏘련 인민의 선진 부대의 역할을 당이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조건으로서의 이 투쟁이 가지는 본질을 리해하게 된다.

생활은,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에 의하여 작성된 당 로선의 실천을 반대하여 나섰던 말렌꼬브, 까가노위츠, 몰로또브, 불가닌 및 쉐삘로브의 반당 그루빠를 격파한 당과 그 중앙 위원회가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확증하였다. 종파적으로 결합된 반당 그루빠 성원들은 당 정책을 변경시키려고 애썼으며 규탄된 지도 방법에로 당을 돌려 세우려고 획책하였다. 이들은 당과 국가 생활, 인민의 생활로부터 동떨어져 새로운 조건들을 보지 못하였으며 보수주의를 발로시켰다. 이들은 섹트주의자들이였으며 완고한 교조주의자, 독경주의자들이였다. 당 중앙 위원회를 반대하는 한 줌도 못 되는 종파 분자들의 교활한 책동과 비밀 음모는 제때에 폭로 분쇄되였다.

교과서는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에서 어떻게 반당 그루빠와의 결정적인 투쟁이 벌러졌었는가를

보여 준다. 이 투쟁 과정에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 엔. 에쓰. 흐루쑈브, 상무 위원회 위원 및 후보 위원들과 중앙 위원회 비서들인 아. 베. 아리쓰또브, 엔. 이. 벨랴예브, 엘. 이. 브레쥬네브, 야. 이. 끼리첸꼬, 에프. 에르. 꼬즐로브, 아. 이. 미꼬얀, 엔. 아. 무히뜨지노브, 뻬. 엔. 뽀쓰뻴로브, 엠. 아. 쑤쓸로브, 예. 아. 푸르쩨바, 엔. 엠. 스웨르니끄와 중앙 위원회 위원들인 엔. 게. 이그나또브, 오. 웨. 꾸우씨넨, 데. 에쓰. 꼬로뜨첸꼬, 야. 에. 깔른베르진, 아. 뻬. 끼릴렌꼬, 아. 엔. 꼬씨긴, 까. 떼. 마주로브, 웨. 뻬. 므쟈와나제, 엔. 웨. 뽀드고르늬, 데. 에쓰. 뽈랸쓰끼 및 기타 동지들은 반당 그루빠를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나섰으며 레닌적 당 로선과 당 중앙 위원회에 대한 반당 그루빠의 도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1957년 6월에 있은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전체 중앙 위원회 위원 및 후보 위원들과 중앙 검사 위원회 위원들은 분렬주의자들을 한결같이 규탄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의 결정은 당과 전체 쏘련 인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반당 그루빠의 폭로 분쇄는 당의 레닌적 통일의 강화와 창조적 맑스-레닌주의의 승리를 의미하였다. 이것은 당 지도부인 당 중앙 위원회의 전투적 단결, 당 정책에 대한 쏘련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를 립증하였다.

* *

력사는 선진적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만이 선진 투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레닌적 명제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증하였다. 공산당은 항상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현대의 가장 선진적 리론인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세 차례의 혁명을 거쳐 로씨야 인민을 인도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가장 어려운 시련을 감당해 낼 수 있었으며 믿기 어려운 곤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공산당의 력사——이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행동하는 맑스-레닌주의다.

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로동 운동과 결부시켰다. 당의 사상 정치 사업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 사상은 대중의 의식 속에 깊이 침투되여 극복할 수 없는 힘으로 되였다. 이 사상의 기치하에 10월의 변혁이 완수되였고 사회주의 사회 제도가 확립되였다.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지배적 사상으로 되였다.

교과서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위대한 힘을 보여 준다. 우리 당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사회를 개조하며 사회에 관한 과학 자체를 가일층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리론과 실천의 통일인 것이다. 리론에 대한 창조적 태도, 교조주의와 독경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항상 원쑤와의 싸움에서 자기의 사상적 무기를 베려 낸 로씨야 맑스-레닌주의자들의 가장 위력한 측면의 하나였다.

우리 당의 전 력사는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웨. 이. 레닌과 그 제자들의 투쟁으로 일관되여 있다. 위대한 개혁을 실현하였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거대한 경험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켰으며 또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당인 우리의 영광스러운 혁명적 당을 감히 교조주의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오늘날 있다는데 대하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로동 운동에서 맑스주의 당들에게 가장 큰 위험으로 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주문을 리행하고 있는 수정주의다. 수정주의자들은 맑스주의를 옹호한다는 기만적 언사를 써가면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기본 원칙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이 원칙들의 의의를 외곡하며 로동 계급을 무장 해제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맑스-레닌주의 당들로부터 섬멸적 타격을 받고 있다.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되는 것은 이 당이 맑스-레닌주의를 사회주의 사상과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관으로 단지 인정하고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맑스, 레닌의 학설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새로운 력사적 경험의 일반화에 기초하여 이 학설을 가일층 발전시키려는 부단한 배려, 맑스주의의 공공연한 또는 엄폐된 원쑤들의 온갖 공격으로부터 이 학설의 순결성을 철저하게 옹호하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은 과학적 공산주의의 위대한 원칙들에 대한 충실성의 구감으로 되였다. 쏘련 공산당은 리론의 발전에 대하여 항상 배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결론과 명제들로써 그것을 풍부히 하고 있으며 선진적 사상의 동원적 및 조직적 역할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세계사의 전 행정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의 영향을 강화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은 처음으로 리론과 실천에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쟁취 및 확립과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했으며 미래에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당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맑스주의 창시자들에게 의하여 정식화된 리론적 원칙들에 의거하고 있다. 동시에 당의 전진 운동은 로동 계급의 혁명적 리론의 가일층의 발전으로 되며 로동 계급의 사상적 무기의 완성으로 된다.

쏘련 공산당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교과서의 저자들은 웨. 이. 레닌과 로씨야 및 쏘련 공산당원들이 맑스주의의 세계적 보물고에 기여한 거대한 리론적 공적을 보여 주었다.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 즉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의 기본 무기로서의 새 형의 당에 관한 학설, 사회주의 혁명과 그의 동력에 관한 학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와 구체적인 력사적 환경에 적응한 그의 각이한 형태에 관한 학설, 당의 전략 전술에 관한 학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방도에 관한 학설, 로농 동맹에 관한 학설, 근로자들의 국제적 련대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관한 학설 및 기타가 천명되였다. 교과서에서는 맑스-레닌주의에 관한 문제가 발전 속에서 서술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투쟁의 새로운 과업과 조건에 따라 웨. 이. 레닌과 그의 전우 및 제자들의 로작들과 공산당의 결정들에서 리론이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보여 준다.

교과서에서는 레닌의 많은 저서들이 특징 지어지고 있으며 당의 사상 생활에서 이 저서들이 가지는 의의가 구명되고 있다. 교과서는 웨. 이. 레닌과 그의 후계자들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문제,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적 과업, 나라의 국방력을 보장하는 과업을 연구한 데 대하여 커다란 주의가 돌려지고 있으며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레닌적 계획의 의의가 구명되고 있으며 당이 대중의 경험을 일반화하며 또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실생활에 의하여 그 위대한 힘이 증명된 자기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였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최근 년간에 있어서의 당의 리론적 활동이 천명되고 있으며 공산주의 건설 실천의 일반화에 기초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중요 문제들을 구명함에 있어서 당 중앙 위원회가 논 역할이 서술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과학의 창조적 발전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는 것은 쏘련 공산당 제 21차 대회에서 한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의 보고와 대회의 결정들이다. 이 문헌들에서는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련의 극히 중요한 명제들 즉 공산주의 사회 발전의 두 단계에 관한 명제,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합법칙성에 관한 명제, 공산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창설에 관한 명제, 사회의 전체 성원들 간에 사회에 의하여 생산된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분배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적 소유의 꼴호즈적 및 전 인민적 형태들의 발전 및 접근 방도에 관한 명제 그리고 공산주의 건설 시기에 있어서의 사회의 정치적 조직, 국가 기구 및 관리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의 완전한 종국적 승리에 관한 문제가 심오하게 구명되여 있다.

당은 이러한 리론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당원들과 전체 쏘련 인민을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리해로 무장시켰다. 당은 리론적 문제들을 인민 경제의 구체적 과업 즉 공산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창설하기 위한 과업과 직접 결부시켰으며 대중의 실천적 활동을 리론의 위력한 빛으로 비쳐 주었다. 맑스-레닌주의의 공고한 토대 우에서 작성된 7개년 계획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및 과학적 문헌으로 된다.

쏘련 공산당 력사 교과서는 제 20차 당 대회 이전에 출판된 당 력사에 관한 저서들에 고유했던 엄중한 결함들을 극복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할 것인바 제 20차 당 대회 이전에는 개별적 리론 문제들이 주로 초기의 당 력사의 범위 내에서 해명되였었다. 례를 들어 당의 사상적 기초에 대한 연구는 다만 웨. 이. 레닌의 로작 《무엇을 할 것인가?》와 결부되였으며 조직적 기초에 대한 연구는 로작 《일보 전진 이보 퇴각》과만 결부되였다. 이 외에도 언제나 생생하고 발전하는 리론인 맑스-레닌주의의 사상과는 모순되게, 이미 10월 혁명 전에 작성된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 리론과 또한 사회주의 국가에 관한 학설을 완벽한 것으로 말하여 왔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수십년 간에 혁명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 국가에 관한 학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결론들로써 풍부해졌다.

교과서에는 개인 숭배의 결과에 이루어졌으며 부정적인 후과를 가져온 일련의 명제들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여 있다. 례컨대 1937년에 이. 웨. 쓰딸린이 제기한 바 사회주의 건설에서 쏘베트 국가가 앞으로 전진함에 따라 국내의 계급 투쟁은 더욱더 첨예화될 것이라는 테제의 오유를 증시하고 있다. 이러한 테제의 제기는 착취 계급이 청산되였고 쏘베트 사회에서는 정치 도덕적 통일이 이루어진 것만큼 리론적으로 그릇된 것이였다.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테제

는 사회주의적 준법성을 란폭하게 유린한 근거로 되였다.

쏘련 공산당의 전 력사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대한 당의 충실성을 믿음직하게 증명하고 있다. 당은 원쑤들과의 장구한 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리론을 완성하였으며 또 그것을 부단히 발전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결론과 명제들을 정식화하며 리론 문제들을 실천과 결부시키고 있다. 실천은 리론을 풍부하게 하며 리론은 실천에 길을 비쳐 준다. 바로 여기에 사회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과학의 위대한 변혁적 역할이 있다.

* *

쏘련 공산당은 언제나 진정한 애국적 력량으로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위대한 사상의 구현자로서, 인민들 간의 친선과 협조의 기수로서 출현하였으며 또 출현하고 있음으로 하여 쏘련 인민과 외국 근로 대중의 전반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쏘련 공산당과 그의 창건자이며 수령인 위대한 레닌은 항상 대국 배외주의와 지방 민족주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철저히 고수하면서 공동의 원쑤인 짜리즘과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근로자들을 결속시켰다. 새 교과서에서는 민족 문제에 관한 레닌의 저서들이 분석되고 있으며 당 강령을 작성함에 있어서와 당 대회, 대표자 회의 및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민족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민족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레닌과 그 후계자들의 투쟁이 천명되여 있다. 례컨대 교과서에서 로씨야 사회 민주 로동당 제 4차 대회의 역할이 해명되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확실히 흥미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로씨야 사회 민주 로동당 제 4차(합동) 대회는 지금까지 우선 한 당내에 있어서의 멘쉐위크와 볼쉐위크의 형식적인 통합이라는 견지에서 구명되였었다. 그런데 새 교과서에서는 제 4차 대회의 의의는 대회가 모든 사회 민주주의자들을 유일한 사회 민주당에 통합한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1906년까지 로씨야에는 볼쉐위크와 멘쉐위크 이외에 파란 및 리뜨바 사회 민주당, 라뜨비야 사회 민주 로동당 및 기타 사회 민주당들이 존재하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당들은 로씨야 사회 민주 로동당의 구성에 들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였었다. 짜리즘을 반대하는 투쟁은 특히 혁명의 조건하에서 로씨야의 모든 민족의 노력의 단합과 모든 나라의 로동자들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요구하였다. 로씨야의 각 민족 사회 민주당들의 통합은 볼쉐위크들로 하여금 나라의 모든 민족 로동자들의 광범한 계층에 사상적 영향을 줄 수 있게 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진정으로 혁명적인 력량에 대한 국제주의적 교양과 이 력량의 굳은 단결을 촉진시켰으며 기회주의자들, 배외주의자들 및 민족주의자들을 용이하게 폭로하며 고립시킬 수 있게 하였다.

교과서는 10월 혁명의 승리 후 당이 어떻게 당 건설과 국가 건설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실현하였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전 당과 그의 개별적 부대들 특히 우크라이나, 백로씨야, 발찍 연안 공산당들의 활동과 관련되는 구체적 자료에 의하여 구명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은 나라의 모든 생활에서 실천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고수 및 실현함으로써 항상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에 대한 자기의 국제주의적 의무를 망각하지 않았다. 국제 로동 대렬의 한 부대인 로씨야 및 쏘련 공산당원들은 이 대렬들 내에서 맑스주의를 옹호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또 참가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좌익 국제주의 그루빠와 그 류파(후에 이들을 토대로 하여 공산당들이 창건되기 시작하였다)들을 통합하기 위한 웨. 이.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볼쉐위크들의 활동이 천명되여 있다. 또한 제 3 인터나쇼날 즉 공산주의 인터나쇼날을 창립함에 있어서의 쏘련 공산당의 역할과 콤인테른의 각 부서들의 사업에 준 그의 거대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10월 혁명 후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은 공산당과 전체 쏘련 인민의 기본적인 국제주의적 의무로 되였다. 독자들은 많은 장들에서 자본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해방 운동에 쏘련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가 끼친 영향에 관한 자료들과 흥미있는 개괄 그리고 또한 국제 프로레타리아트가 우리 나라에 각이한 형태로 주었으며 또 주고 있는 원조를 찾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호상 원조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구체적 표현으로 된다.

친선과 국제적 협조의 원칙은 쏘베트 국가의 대외 정책의 기초로 되고 있다. 교과서에는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한 대외 정책 조건을 보장하며 인민들 간의 평화와 협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당과 그 중앙 위원회의 긴장된 활동이 반영되여 있다. 이미 첫 쏘베트 법령에서 각이한 사회 경제 제도를 가진 국가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레닌적 사상이 선포되였다.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의 대외 정책은 모든 나라 인민들 특히 동방의 피압박 및 예속 인민들의 커다란 존경을 불러 일으켰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지배 계층은 프로레타리아 국가의 탄생을 발광적인 증오로 대하였으며 그를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쏘베트 로씨야에 대한 강탈적 공격을 조직함에 있어서 주력으로 된 것은 독일, 미국, 영국, 불란서, 일본이였는바 이들은 국내의 반혁명과 결탁하여 청소한 공화국을 압살하고 그 인민을 예속시키려고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로씨야를 분할하여 대국으로서의 로씨야를 없애 버리려고 하였다.

당시의 사건들이 먼 과거사로 된다 할지라도 저주로운 원쑤들의 무리로부터 첫 사회주의 공화국을 고수한 쏘베트 인민들의 용감성과 영웅주의의 모범은 인민의 기억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모범은 우리 력사의 영웅적 페지들로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며 후대들로 하여금 10월의 투사들의 영광스러운 위훈과 공산당과 그의 수령인 웨. 이. 레닌의 현명성에 대한 열렬한 긍지감을 가지게 할 것이다.

교과서에는 평화를 수호하며 전쟁을 종식시킬 데 대하여 공산당이 취한 립장의 철저성이 구명되여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평화의 보존에 혈연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전쟁을 일으킨 일이 없는바 왜냐 하면 전쟁은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저자들은 자본주의의 포위의 복잡한 조건하에서 쏘련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회 제도를 가지고 있고 전체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대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쏘련은 제국주의자들의 눈 속의 가시로 되였는바 그들은 쏘련의 건설을 방해하려고 백방으로 발악하였다. 그들은 쏘련을 반대하는 쁠럭을 만들었으며 파괴 공작을 조직하였으며 쏘련과 자본주의 세계와의 경제적 관계를 파괴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은, 키를 굳건히 틀어 쥐고 아첨에도 위협에도 굽힘이 없이 자기의 길을 가라고 한 웨. 이. 레닌의 말을 명심하였었다. 당은 국제 무대에서 쏘베트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고수하며 평화와 전반적 안전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요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은 제국주의적 및 파씨스트적 정책의 본질을 폭로하였으며 전쟁 도발자와 그 공모자들의 위선과 기만의 가면을 벗겨 버렸다. 평화 정책의 꾸준한 실시와 쏘련의 정치적 및 경제적 위력의 장성은 쏘련으로 하여금 오래 동안 전쟁을 물리치고 평화적 조건하에서 경제 및 문화 건설을 실현하며 인민의 복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하였다.

저자들은 력사적 사실들에 기초하여 제 2차 세계 대전 전야의 국제 정세를 천명하고 있다. 이 때는 세계에 전쟁 위험이 닥쳐 오고 쏘베트 국가가 파쑈 침략에 대한 집단적 타격을 조직하는 긴장된 투쟁, 침략자들에 대한 집단적 타격을 파탄시키며 쏘 독 전쟁을 선동할 것을 타산한 서부 렬강의 뮨헨 정책을 폭로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시기였다. 영국 및 불란서 정부는 미국의 지지하에 히틀러와 공모하는 데로 나섰다. 그들은 자기의 간교한 계책을 엄폐할 목적 밑에 쏘련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교과서에는 전률할만한 사실이 인용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쏘련과 회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독일 정부와 비밀리에 회담을 시작하고 히틀러에게 불가침 조약과 세계의 세력권 분할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분할할 나라들에 중국과 쏘련을 포함시킬 것이라는 놀라운 제의가 나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위험한 장난을 하였다. 쏘련 인민은 평화와 사회주의 국가의 보존을 위하여 뮨헨 협정 조작자들의 기도를 파탄시켜야 하였다. 영국과 불란서 그리고 파란이 파쑈 침략을 반대하여 공동적으로 투쟁할 데 대하여 쏘련과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침내 확인한 쏘련 정부는 독일 정부가 제의한 불가침 조약을 독일과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쏘련은 국방의 준비를 위한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얻었으며 동시에 쏘련을 희생시키려는 파쑈 국가들과 서부 렬강이 꾸민 공모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파쑈 독일의 배신적 침공으로 인하여 쏘련이 전쟁에 끌려 들어 갔을 때 쏘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하게 전쟁에 대하여 준비되여 있었다. 쏘련의 무력은 파쑈 강점자들을 격멸하였다. 이 승리에서 쏘련의 대외 정책이 차지하는 공로는 거대하다.

교과서는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쏘베트 국가의 정세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전후 시기의 국제 관계 분야에서의 공산당의 활동도 개괄하고 있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형성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 관계를 확립하게 하였으며 국제 무대에서의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근본적으로 변경시켰다.

쏘련은 평화를 수호하는 립장에 굳건히 서 있는 동시에 경각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적들이 불의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투력을 제고하고 있다.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는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

와 국가들 간의 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고한 평화의 보장 및 국가들 간의 호상 리해와 협조를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엔. 에쓰. 흐루쑈브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와 쏘련 정부의 고귀한 활동은 전 인민적 인정을 받았다.

평화를 보존하며 두 체계의 평화적 공존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담보로 되는 것은 쏘련, 중국 및 기타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의 정치 경제적 위력의 장성이며 형제적 당들과 인민들의 불패의 친선과 협조의 가일층의 발전이다. 사회주의 제 국가의 단결과 형제적 협조의 기초로 되는 것은 이 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인민들의 리해·관계의 공통성이며 한 가지 목적 즉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대한 그들의 지향이다. 사회주의 대가정 내에 들어 있는 나라들의 경제적 및 정치적 제 성과는 력사의 행정에 대하여 더욱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　　　*

교과서에는 당의 다방면적인 활동의 기타 측면들도 고찰되고 있으며 당 내부 생활 및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의 당의 향도적 역할에 관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이 천명되여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교과서는 의심할 바 없는 많은 우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저자들은 모든 것을 동일한 수준에서는 해명하지 못하였으며 거기에는 부분적인 공백과 부족점들이 있다. 짐작건대 여기에는 당 력사의 일련의 문제들이 아직도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사정도 어느 정도 반영되여 있는 것 같다.

우선 교과서의 개별적 장들이 지나치게 서술적이고 거기에는 리론적 일반화가 부족하며 일부 점들은 지나치게 장황하다는 점에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일련의 문제들은 충분한 론증이 없이 극히 간략하게 해명되여 있다. 그 결과 독자들은 때때로 이러저러한 력사적 사실들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다. 례컨대 1917년 7월 이후의 당의 형편에 대한 문제는 그 때 당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였는지 또는 비합법적으로 진행되였는지 불명확하게 서술되여 있다.

대부분의 장들은 언어가 훌륭하고 생동적이며 서술이 간결하고도 정확하다. 동시에 장황하고 어려운 표현들이 많은 편이 있으며 문체에 통일성이 없다. 또한 교과서에서는 반복과 명확치 않은 정식화를 찾아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상 부정확한 점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 기타 일련의 부족점들은 새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인상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는 처음으로 개인 숭배의 영향과 교조주의적 틀에서 벗어나 완전히 그리고 정확히 해명되였다. 쏘련 공산당의 력사적 행로는 실제적 사실들에 기초하여 천명되여 있으며 당의 정치적 및 조직자적 활동과 정권 쟁취, 새로운 사회 제도와 국가 제도의 확립,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대중의 투쟁에 대한 당의 령도의 거대한 경험이 개괄되여 있다.

새 교과서의 발간은 맑스—레닌주의의 선전 수준을 제고할 것이며 당 력사와 그리고 웨. 이. 레닌의 계획을 실현하며 당의 총 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투쟁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킬 것이며 당 단체들의 모든 사상 사업을 개선함에 도움을 줄 것이다. ≪쏘련 공산당 력사≫는 당 력사 과학의 제 문제를 가일층 창조적으로 완성함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사회 과학의 연구 및 교수에서 독경주의와 교조주의를 종국적으로 극복함에 도움을 줄 것이다.

동시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선진 부대의 다방면적인 경험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새 교과서는 우리 나라의 발전과 성과를 주시하고 있는 외국의 벗들의 관심을 일으킬 것이다.

교과서는 쏘련 공산당 력사 및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실천의 근본 문제들에 대한 필요 불가결의 지식을 줄 것이다. 저자 집단이 교과서를 계속 가일층 완성시킬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이 점에 있어서 독자들의 의견과 조언은 저자 집단을 방조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의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쏘련

아. 알렉쎄예브

(본지를 위한 특별 기고)

쏘련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에 의하여 개시된 장엄한 사회—경제적 변혁의 종국적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다. 1918년 3월 8일에 있은 쏘련 공산당 제 7차 대회에서 웨. 이.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변혁을 개시하면서 이 변혁이 결국에 가서 추구하는 그 목적을 자기 앞에 명확하게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 이 목적이란…각자로부터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공산주의 사회의 창건이다≫(레닌 전집, 제 27권, 103 페지).

쏘련은 1917년부터 1958년까지의 기간에 다른 모든 나라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또 나아가게 될 대로를 개척하여 놓았다. 이 사실은 쏘련 공산당 제 21차 대회에서 각별히 강조되였다. 현재 쏘련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중요한 시기 즉 전면적 공산주의 사회 건설 시기에 들어 섰다. 쏘련 공산당 제 21차 대회에서 한 엔. 에쓰. 흐루쑈브의 보고, 대회 대표들의 토론, 대회에서 채택된 결정들에서는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 축성을 위한 구체적인 강령이 명시되였으며 공산주의에로의 계획적인 이행 도상에서의 쏘련 인민 경제 발전의 주요한 방향을 규정하는 리론적 명제들이 제시되였다.

그의 규모와 제시된 목적으로 보아 이때까지 있어 보지 못한 공산주의 건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적 단계로 되는 것은 1959～1965년 인민 경제 발전 7개년 계획이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는 ≪7개년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가 우리 시대의 가장 주요한 과업이며 이것은 공산주의에로의 전진 도상에서의 우리 조국의 결정적인 거보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쏘베트 인민은 7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계획 과제를 초과 완수하는 훌륭한 성과를 나타내였다. 이것은 어떠한 자본주의 나라도 해낼 수 없는 과업을 쏘련이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불과 7년 동안에 쏘련의 공업 총 생산고는 80%나 증가될 것이다. 쏘련은 7년 동안(1959～1965년)에 쏘베트 정권 수립 후 41년 간에 생산한 것과 거의 동일한 량의 공업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쏘련 인민은 발전소들의 능력을 6천만 키로와트 다시 말하면 100개의 드네쁘르 수력 발전소에 해당하는 발전 능력을 새로 건설하며 공업의 능력을 3배로 증대시킬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쏘련은 현재 구라파의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흑색 야금 공업에서는 20개의 마그니또고르쓰크 야금 꼼비나트와 대등한 생산 능력이 새로 창설될 것이다. 쏘련의 기계 제작 일'군들은 7개년 계획 말에 가서는 짜리 로씨야에서 옹근 한 해 동안에 생산하던 것과 동일한 량의 기대와 기계들을 단 하루 동안에 생산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주택은 모쓰크바와 같은 15개

의 대도시의 주민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건설될 것이다. 7년 동안에 소비품 생산은 현재보다 3분의 2 가량이나 더 장성할 것이며 일련의 중요한 식료품들의 인구 1인당 생산 수준에 있어서 쏘련은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나라들을 따라 잡으며 앞서게 될 것이다. 로동자와 꼴호즈원들의 실질 수입은 40%나 더 제고될 것이다.

이것은 감격적이고 위대한 전망이며 사람들을 흥분시키며 고무하는 강령이다.

공산당은 이 강령의 수행을 위한 헌신적인 로력에로 쏘련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그것은 승리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로력에 의해서만 승리가 쟁취되기 때문이다.

쏘련 공산당 제 21차 대회의 직접적인 계속이며 기술적 진보의 실현을 위한 거대한 조치들을 제시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는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쏘련의 남녀 로동자와 꼴호즈원들 및 인테리들에게 로동에서 새로운 위훈을 세우며 공산주의를 향하여 전진하며 또 전진할 것을 호소하였다.

쏘련 공산당 제 21차 대회 사업이 끝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얼마나 강력한 전 인민적 운동의 파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7개년 계획의 실현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대중의 창발적인 발기의 뚜렷한 표현인 선진적인 창안들이 그야말로 풍부히 나타났다.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쏘련의 여러 인민들의 수백만의 남녀 로소들이 과제와 의무 조항을 초과 수행하고 있으며 증산, 질 제고 및 원가 저하를 위한 예비들을 탐구하고 있다.

우랄과 드네쁘르강 연안 지방의 야금 일'군들, 돈바스와 까라간다의 탄부들, 모쓰크바 및 민스크와 고리끼 및 따슈껜트의 기계 제작 일'군들, 동력 공업 일'군들, 화학 공업 일'군 등—쏘련의 모든 사람들은 당이 제시한 과업을 더 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례를 들면 니쥬네따길쓰크의 야금 일'군들은 1965년에 달성하기로 예견된 강철 및 강재 생산 수준을 2년 간 앞당겨 수행하며 선철 생산 수준을 1년 간 앞당겨 수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앞으로 4~5년 동안에 이 꼼비나트의 모든 제초들은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의 수준에 있어서 모범으로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쓰따로—끄라바또로쓰크 야금 공장의 종업원들은 7개년 계획을 1년 간 앞당겨 완수할 것을 결의하였다. 보조 작업들을 집약화함으로써 2천 평방메터의 생산 면적의 여유가 생기는바 이로 인하여 기본 건설을 위한 지출이 1천만 루블이나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주물 제초를 새로 건설할 대신에 개건함으로써 약 40%의 투자액이 절약될 것이다.

모쓰크바에 있는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지나모》 《모스까벨리》, 《엘렉뜨로쓰베트》 및 기타의 전기 기계 공장들은 1965년에 달성하기로 계획된 총 생산고 계획을 1963년에 달성하겠다는 새로 증가된 의무 조항을 채택하였다.

7개년 계획을 보충적인 투자가 없이 기한 전에 완수하자고 하는 전 련맹적 경쟁을 호소한 울라지미르, 쓰베르들롭쓰크, 모쓰크바 및 기타 인민 경제 쏘베트들의 고상한 발기는 쏘련의 수백만의 로력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해'별이 밝은 그루지야, 씨비리의 밀림 지대, 중앙 아세아의 공화국들, 발찍해 연안 등—쏘련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긴장되고 즐거운 로동이 들끓고 있으며 인민의 창조적 정력이 앙양되고 있다. 이 정력은 무궁무진하며 매일과 같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열렬한 지지를 받아 광범히 보급되며 수 많은 계승자들을 낳고 있다. 바로 얼마 전인 7월 초에 방적공 웨. 이. 가가노바는 쏘베트 사회의 리익에 무한히 충실하게 복무하는 자기 희생적인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회주의 로력 영웅이라는 높은 칭호를 수여 받았다. 즉 그는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선진 브리가다에서 자원하여 뒤떨어진 브리가다로 넘어 갔으며 그리하여 그 브리가다를 선진 브리가다의 수준에 까지 끌어 올리고 있는바 이것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교양을 위한 위대한 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특출한 발기로 되는 것이다.

가가노바의 발기에 대한 소식은 날개가 달린듯 쏘련의 방방곡곡에 퍼져 갔다. 공업 및 농업 일'군들이 곧 가가노바의 발기를 지지하였으며 도처에서 뒤떨어진 직구와 브리가다들을 끌어 올리는 사업이 벌어졌는바 이는 추가적인 기본 투자없이 대량의 생산물을 더 내게 하였으며 내고 있다. 사'적 소유를 폐절한 사회에서는 모범의 힘이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바 그것은 이 사회에서야만 비로소 대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레닌의 예언을 완전히 확증하고 있다. 첫 공산주의 로동 브리가다들이 출현한 때로부터 많은 시일이 경과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수만 개의 집단이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들의 이 영광스러운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얼마 전에 왈렌찌나 가가노바는 고상한 사업을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수천 명의 계승자가 생겼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위한 로동은 생활상 요구, 성스러운 의무, 창조적 기쁨의 원천으로 되였다. 그들은 달성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대담하게 실천하며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있다. 제 21차 당 대회는 모든 사상 사업은 공산주의 사회의 인간을 형성하는 데 돌려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 우리 승리의 담보가 있다.

전 인민적 경쟁은 항상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 가져 오고 있다. 그리하여 공업 일'군들은 1959년 상반년 공업 생산 과제를 총량적으로 또 대다수의 중요 공업 제품을 품종별로 현저히 초과 수행하였다. 상반년 총 생산고 계획은 105%로 수행되였다. 1958년 상반년에 비하여 공업 생산량은 12% 장성하였다. 전체 가맹 공화국들과 나라의 전체 경제 구역들이 상반년 공업 생산 계획을 초과 완수하였다.

농촌 경리에서 사회주의 경쟁의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농촌 근로자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 과업의 하나인 농촌 경리 부문의 7개년 계획 과제를 접수하였다. 로련, 우크라이나, 백로씨야, 까자흐스딴, 그루지야, 몰다비야, 우즈베끼스딴 및 기타 공화국들의 선진 꼴호즈 및 쏩호즈들의 호소에 따라 농촌 경리 부문의 7개년 계획 과제를 5년간에 완수하려는 운동이 시작되였다. 이 투쟁은 전체 꼴호즈원, 쏩호즈 로동자, 농업 전문가들의 협연적 사업으로 되였다. 전국적으로 상반년 육류 생산 계획은 135%로 수행되였으며 우유는 108%로, 계란은 116%, 양모는 108%로 수행되였다. 이에 있어 육류는 1958년 상반년보다 81만 5,000톤 즉 46%가 더 수매되였는바 이것은 1953년의 같은 기간에 수매된 것의 거의 3배에 달하며 우유는 작년 상반년보다 2백만 톤 즉 20% 이상이 더 수매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인민의 창발성이 얼마나 거대한 경제의 내부 예비를 동원하고 있는가를 말하여 준다.

이것은 인민 경제 발전 및 중요 생산물 증산에 관한 7개년 계획을 기한 전에 달성하기 위하여 전진하는 도상에서 내디딘 첫 걸음에 불과하다. 커다란 긴장된 사업이 앞에 놓여 있다. 쏘련 인민은 7개년 계획을 자기 자신의 혁명적인 일로 접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는바 이것은 7개년 계획이 기한 전에 완수되리라는 데 대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앞으로 몇 해가 지나면 쏘련은 생산의 절대량에서나 인구 1인당 제품 생산량에서나 세계에서 제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인바 그 결과에 쏘련 인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들 중의 가장 우울한 회의론자들도 오늘날 쏘련 인민의 이 계획이 완전히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것이 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례컨대 아이오바 주 종합 대학 총장 비. 한처는 공포에 떨면서 이렇게 묻고 있다: 《로씨야의 제도가 우리보다 높은 생활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아. 이. 미꼬얀이 쎈프란씨스코에서 한 다음과 같은 말은 이에 대한 훌륭한 대답으로

된다: 《쏘련이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생산이 발전된다면 쏘련 로동자들은 미국 로동자들보다 배나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으로써 설명된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소수의 착취자들이 국민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쏘련에서는 사회적 로동 생산물이 전체 사회 성원들 간에 공정하게 분배된다.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강력한 물질→기술적 토대의 축성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 전체 성원의 높은 자각성을 요구한다. 수백만 대중의 자각성이 높을수록 공산주의 건설 계획은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킬 문제,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 문제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쏘련은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킴에 있어 이미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7개년 계획 기간에는 이 분야에서 새로운 조치들——도시와 농촌에서의 일반적 중등 교육의 현저한 발전, 야간 통신 중등, 고등 전문 교육의 확장, 과학의 가일층의 발전, 영화, 출판물, 라지오, 텔레비존의 광범한 발전——이 취해질 것이다.

쏘련에서는 경제 건설 계획과 마찬가지로 문화 건설 계획이 항상 완수되여 왔다. 금년에 벌써 이 분야에서는 가일층의 성과가 달성되였다. 지난 1958—1959 학년도에 약 1,300개의 중학교가 새로 개교되였다. 140만 명의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고등 및 중등 전문 교육 기관들은 86만 명 이상의 젊은 전문가들을 내놓았는바 그 중에는 36만 명 이상의 공업, 건설, 운수, 체신 부문의 기사 및 기수들, 12만 5천 명의 농업 기술자들, 약 20만 명의 교원들, 10만 명 이상의 의료 일'군들이 있다.

학교와 실생활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쏘련 인민 교육 체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관한 법령에 의하여 일반 교육 학교와 고등 및 중등 전문 교육의 개편 사업이 시작되였다.

쏘련 공산당 제 21차 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문화 건설 계획도 반드시 완수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오늘날 그의 역할이 비상히 증대되고 있는 쏘련 과학 부문 앞에는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레닌은, 두 체계의 경쟁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 수준에서 다른 체계를 릉가하며 세계 과학과 기술적 진보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체계가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라고 루차 강조하였다. 그는 강조하기를 거대한 기술과 조직성, 규률과 우수한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였다.

쏘련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적 발전 분야에서 해마다 더욱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구상의 임의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로케트의 창조, 려객기 《뚜—104》, 《뚜—114》의 출현, 첫 인공 지구 위성의 창조, 최초의 인공 행성인 우주 로케트의 발사, 화학 분야의 거대한 성과——이 모든 것은 쏘련의 과학과 기술이 가장 중요한 부문들에서 세계 제 1위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들과 기타 일련의 사실들의 압력을 받아 지어 사회주의의 많은 원쑤들조차 쏘베트 과학 기술 사상이 인류의 가장 대담한 공상을 현실로 전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수년 전까지만 하여도——미국 자본가 비. 허스트는 이렇게 말하였다——로씨야가 과학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 잡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비웃었던 것이다. 그러나 쏘련은 이것을 실행하고야 말았다》.

현재 쏘련이 두 체계 간의 경쟁에서 해결하고 있는 문제는 자본주의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타승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 승리를 될수록 더 빨리 쟁취하는 데 있다. 현 세대의 쏘베트 사람들도 벌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말하여 주는, 물질적으로 완전히 풍부한 조건하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 경제 과업의 해결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시간을 쟁취하는 문

제는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에서 공통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자본주의 제도에 비한 사회주의 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가장 발전한 부르죠아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급속히 따라 앞서기 위한 공고한 기초로 되여 있다. 앞으로 가까운 10년 내에 쏘련은 인구 1인당 생산량에 있어서 미국을 릉가할 것이며 금세기 말까지에는 구라파와 아세아의 전체 사회주의 나라들이, 만일 그때까지 자본주의가 존재한다면,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앞서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나라들의 인민 경제 전망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가 가지는 거대한 정치 경제적 성과는 사회주의 나라들로하여금 총체적으로 1965년까지에 전체 자본주의 진영에 대하여 절대적인 경제적 우세를 달성하게 된다. 왜냐 하면 대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앞으로 7년 이내에 사회주의 나라들은 세계 공업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물질적 생산에 있어서 즉 인간 활동의 결정적 분야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사회주의 체계의 절대적 우세가 단시일 내에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여기서 사회주의 나라들의 현 국경 내에 살고 있는 주민수가 전체 지구상 인구의 약 3분의 1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자본주의 나라들 보다 얼마나 높은 로동 생산 능률과 생활 수준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을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업 장성 템포에서 3~4배의 우위를 유지한다면 1975년에 가서는 벌써 사회주의 나라들은 세계 공업 제품의 거의 3분의 2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절대적 및 상대적 경제력의 이와 같은 급격한 강화는 전 인류의 운명에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모든 정신적 재능의 조화된 발전을 위한 기본으로 되는 훌륭한 생존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자체의 능력을 실증하면서 남아있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수억의 근로자들을 필연코 자기의 기치하에 인입할 것이다. 20세기 후반기는 세계적인 범위에서 사회주의가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시대로 될 것이다.

매개 사회주의 나라들의 발전은 오늘날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전반적 발전과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로 들어 서기 이전 시기에 있어서의 력사적 발전 조건이 각이하였던 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진영 내의 개별적인 나라들의 경제 수준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주의적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상태는 항구적인 것일 수 없으며 경제적 련계의 강화, 경제 계획의 조절, 친선적 뉴대의 강화, 사회주의 나라들 호상 간의 사심없는 원조는 불가피하게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제적 수준을 점차 균등하게 할 것이다.

쏘련은 벌써 전면적인 공산주의 건설 단계에 들어 섰다. 구라파와 아세아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또 그 중 일부 나라들은 이미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해 가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전체 사회주의 나라들이 광범한 통일 전선을 이루어 지상에서 가장 공정한 사회인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쏘련 공산당 제 21차 대회에서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가 강조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나라들은 사회주의 제도에 내재하는 가능성을 성과적으로 리용하면서 호상 원조와 협조에 의거하여 자기의 경제 및 문화 발전 수준을 급속히 균등하게 하며 그리하여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시적으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벌써 지금 세계 공업 제품 총 생산량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1965년에 가서는 전 세계 공업 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게 된다는 사실은 쏘련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제적 위신이 가일층 제고됨을 의미하며 제 인민의 지지 찬동을 받고 있는 그의 평화 애호 정책의 영향이 장성하게 됨을 의미하는바 이는 국제적 안전을 공고히

하며 전 세계의 평화 애호 력량을 공고히 하기 위한 효과적인 무기로 되는 것이다. 15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구라파의 광대한 지대를 포괄하는 《평화 지대》의 형성은 벌써 현재에도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제마음대로 침략적 모험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의 력량 호상 관계는 평화에 유리하게, 전쟁을 제거하는 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쏘련 공산당 제 21차 대회 석상에서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가 말한 바와 같이 아직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기 전에, 세계의 일부분에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조건하에서 세계 전쟁을 사회 생활에서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조성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허공에 뜬 리 승만

최 준 섭

우리 시대의 추물의 하나인 리 승만은 앞으로 닥쳐올 세찬 폭풍 앞에서 건들거리는 고무 풍선과도 같이 허공에 뜬 운명에 놓여 있다.

바로 그가 집거하고 있는 서울 경무대 근처에서까지 《양놈들은 물러가라!》,《리 승만은 오랑캐 새끼다》라는 분노에 찬 웨침이 울려 퍼지는가 하면 남조선 방방곡곡에서는 기아와 실업에 시달리는 인민들이 《먹을 것을 달라, 일'자리를 내라》는 함성이 날과 더불어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섭상 가상으로 모리 정상에 여념이 없는 괴뢰 지배층 내부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몸부림치는 괴뢰 정권을 둘러 싸고 서로 뜯어 먹으려고 으르렁대는 개싸움이 계속되어 리 승만 역도는 더욱 골치를 앓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총 파탄에 허덕이고 있는 리 승만 도배에게 있어서 무비의 력량으로 장성 강화된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상징하는 천리마의 우렁찬 발'굽소리는 그들로 하여금 불안과 초조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과 전 세계 선량한 사람들의 저주와 증오를 받고 있는 리 승만은 남조선 인민들로부터는 물론 지배층 내부에서와 지어 괴뢰 군대 내부에서까지도 불만과 반대 기세에 봉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림종에 가까운 리 승만 도배에게 끝장을 고해 주는 명백한 신호로 된다.

* *

자기들에게 참을 수 없는 빈궁과 무권리 상태를 강요하는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식민지적 파쑈 테로 통치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팽배하여 가고 있다.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인민들의 반미 반리 승만 기세에 편승하여 정권을 탈취하려는 지배층 내에서의 반리 승만파의 반항과 공격도 격화 일로를 걷고 있어 리 승만 역도는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혼란 속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리 승만 도배는 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광란적인 파쑈 테로 통치와 전쟁 도박에서 찾으려 날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여 그들 자신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전대미문의 파쑈적 악법인 신 《국가 보안법》 날조를 도화선으로 하여 벌어진 사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웅변으로 실증해 준다.

리 승만의 《자유당》은 야당파 의원들을 괴뢰 국회 의사당 지하실에 감금하고 《자유당》 의원들만으로써 신 《국가 보안법》 등 악법들을 《강도적 방법》으로 통과시켰으나 그것은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과 야당 계렬의 반대에 부딪쳤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계엄령 상태를 릉가하는 전무 후무한 폭압의 선풍이 휘몰아치는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도 이 악법들을 반대하여 궐기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마산 등 남조선 각지에서 시위와 삐라 살포 등 형태로 계속되였다. 이 투쟁 과정에서 시위 군중과 이를 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괴뢰 경찰대 간에는 빈번히 충돌 사건이 발생되였다.

뿐만 아니라 신 《국가 보안법》의 강압적 통과로 말미암아 자기의 활동에 위협을 받게 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계렬은 악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반리 승만 투쟁 기세에 편승하여 이 악법을 통과시키던 당시의 리 승만 도배의 강도적인 만행을 폭로하며 그것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 나섰다.

신 《국가 보안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남조선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특히 서울에서의 데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비하는 경찰대와 데모 군중이 숨박꼭질 하듯이 오늘은 명동에서 래일은 《국회》 의사당 앞에서 진행되였다.

리 승만 도당은 남조선 인민의 각 계층과 야당 계렬

의 신 《국가 보안법》에 대한 철폐 요구가 드높아 가자 이를 탄압 봉쇄하기 위하여 시위와 옥내외(屋內外) 집회는 물론 야당파가 기도한 옥상(屋上) 집회까지도 일체 금지하는 한편 작년 말부터 실시한 《비상 경비》에 뒤이어 《초비상 경비 사태》를 선포하고 가두 검색, 습격, 체포, 구금 등 횡포 무도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광란적인 폭압 조치에 대하여 지어 서방 신문들까지도 《한국식 민주주의》의 좋은 표본이라고 비웃었다.

사면초가 속에 허덕이고 있는 리 승만 도배의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폭압 조치는 그를 더욱 곤경에 빠지게 하였으며 리 승만 괴뢰 정부의 소위 국내외적 《위신》을 더욱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리 승만 도배로 하여금 파쑈적 악법을 조작해 내게 함으로써 뿌리째 뒤흔들리는 자기의 식민지 통치 기반을 유지하려던 백악관의 주인들까지도 심히 당황 망조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신 《국가 보안법》 조작과 관련하여 남조선에 조성된 정치적 혼란 상태에 불안과 초조를 금치 못하게 된 월가의 지배자들은 서울 주재 미국 대사 다울링을 황급히 불러다가 《한국의 불안한 정국 수습》을 위한 밀의를 거듭한 다음 뒤이어 아이젠하워의 《특사》이며 미국의 군사 원조 계획 위원회 의장인 드레이퍼와 미 국무성 아세아 부국장인 배인 등을 서울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서울에 오자 신발이 닳도록 련일 불이나케 뛰여 다니면서 리 승만 역도와 《자유》, 《민주》 량 당의 대표들을 포함한 괴뢰 지배층과 밀회를 거듭하고 《한국의 현 사태가 유엔을 비롯한 세계 무대에서의 미국과 한국의 립장을 극히 불리하게 만들며》 특히 미국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속히 《수습》하여야 한다고 괴뢰 지배층들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또 회유책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의 미제 식민지 통치의 파탄과 전면적인 경제적 파괴를 반영한 괴뢰 지배층 내에서의 모순 알륵은 미제의 직접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미제는 날로 확대되는 반미 반리 승만 기세를 억누르기 위하여 리 승만을 조종하여 신 《국가 보안법》을 조작케 하였지만 그것이 괴뢰 지배층 내부의 개싸움을 격화시키게 되리라는 것을 타산하지 못하였다. 말하자면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인민들의 투쟁을 압살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기 칼에 자기의 손을 찍히우게 된 셈이다.

이렇게 되자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시치미를 뚝 떼고 버티려고 작정하였던 리 승만 《자유당》은 야당측이 요구한 괴뢰 림시 국회에 마지 못하여 참석하게 되였다. 그러나 《자유당》은 그들로서의 딴 배'속 타산이 있었던 것이다. 즉 《자유당》은 이른바 《24 사태》에서 볼꼴없이 된 《민주당》의 대여당 공세를 어느 정도 참아 가면서 이를 무마하는 한편 억지다짐으로 통과시킨 신 《국가 보안법》 및 《지방 자치법》 등 악법들을 《기정 사실화》해 버리자는 것이였다.

이에 대응하여 야당인 《민주당》은 짓밟힐대로 짓밟힌데다가 분풀이의 기회로 삼으려던 옥상 집회마저 금지 당하게 되였으므로 《국회》 연단을 통하여 리 승만 《자유당》의 죄행을 만천하에 폭로함으로써 민심을 자기 편에 끌어 당겨 앞으로 다가 오는 《정 부통령 선거》에서 승산을 기하자는 목적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오월 동주》격이였던 《국회》는 개회 벽두부터 란투장으로 화하여 근 7개월 동안 류회로부터 류회로, 협상으로부터 대결에로, 소위 《국회》 정상화로부터 그의 뽀이꼬트에로 우여 곡절과 란투를 거듭하면서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망나니 《국회》로서의 본색만을 남김없이 드러내 놓았을 뿐 단 한건의 《법안》도 심의하지 못한 채 결국 지난 18일에 폐회식을 올리고 또다시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

남조선 통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국회》는 개회 기간 2~7분 어간에 산회해 버리는 것이 통례로 되였으며 림시 국회 기간에 《국회》 본 회의에서 소요한 150시간 중에서 《자유당》 소속 의원이 발언한 것은 11시간 뿐이였고 나머지는 야당 계렬 의원의 《자유당》에 대한 론죄에 허비되였다.

특히 《24 사태》 당시 《자유당》이 300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야당파 의원들의 사지를 들어 《국회 의사당》 지하실에 감금한 이른바 경호권 발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의 응답전만 10일 간이나 전개하고 15일 간이나 싸움을 계속하다가 결국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또한 《자유당》의 고위층이 관련되였다는 소위 밀수품 부정 공매 사건을 에워싸고 한 달 동안 련일 욕설과 멱살다짐의 란투가 벌어졌는바 이 판에 기진맥진한 《국회》 부의장 리 재학은 못해 먹겠다고 비명을 올리면서 《의사봉》을 내던지고 도망치기까지 하였다.

괴뢰 《국회》의 추태에 대하여서는 남조선 잡지 《신태양》(1958년 10월호)에서까지도 《제 4대 국회는 구성된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활복 소동이 일어나고 예산 문서 보따리가 공중 접시처럼 허공을 날아 다니고

물'주전자로 동료의 머리를 까고 마이크 전투전이 벌어지다 못해 심지어 의사봉까지 두 동강으로 꺾어 치운 판이니 국민들이 극장으로 잘못 알고 구경하러 왔다기로 국회로서는 입이 300개가 있어도 나무라지 못할 것이다》라고 야유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 사회계에서는 국회 무용론이 공공연히 대두되고 있으며 지배층 그 자체도 통솔해 나가지 못하는 리 승만을 허공에 뜬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지배층은 서로 물고 뜯으면서도 아이젠하워에게 멧세지를 보낼 때나 재일 동포 《북송 반대 결의》를 하는 등 상전에게 충성을 표시하며 반인민적인 술책을 꾸며 내는 데는 《자유당》, 《민주당》이 모두다 같이 만세를 부름으로써 그들의 반동적, 계급적 본질을 드러내 놓고 있다.

괴뢰 정권 쟁탈을 위한 남조선 지배층 내부에서의 이와 같은 추악한 개싸움은 물론 그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국 배족적 정상배의 속성으로부터 초래되는 필연적 귀결이다. 그러나 남조선에 조성된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단지 정권 쟁탈을 위한 지배층 내부에서의 대립 알륵에 의해서만 산생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 정책과 리 승만 도배의 매국 정책의 전면적인 파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리 승만 도배의 파쑈 테로 폭압도 백악관 주인들의 명 《처방》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더욱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져 들어 가고만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철면피한 리 승만 역도 자신도 《국가가 위급하고 창황한 이때 이런 통탄하고 부끄러운 일이 또 어디 있느냐》고 비명을 올리면서 《국회는 없는것과 마찬가지인》 허수아비 존재다라고 울부짖었다. 이것은 허공에 뜬 리 승만의 비명인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리 승만 도배가 궁리해 낸 것이 바로 괴뢰 정부 《각료》의 대폭적 갱질이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리 승만 도배는 지난 3월 20일 테로 두목 최 인규를 《내무부 장관》으로, 사기 협잡과 뢰물 선수 송 인상을 《재무부 장관》으로 바꿔 채운 것을 비롯하여 농림, 부흥, 교통 등 5부 《장관》을 교체하였다. 이는 부패한 괴뢰 장관들의 대폭 교체를 단행함으로써 마치 《서정 쇄신》이나 할듯이 인민들을 기만하는 한편 앞으로 다가 올 《정 부통령 선거》에 대처코저 리 승만 《자유당》에게 가장 충실한 자들로 《행정부》를 꾸리자는 속'심으로부터 나온 것이였다.

그것은 《내무부 장관》 최 인규가 그의 취임사에서 《모든 공무원들은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 가족까지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을 선거케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러 가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이라든가 그 후 도지사급을 비롯하여 시, 군, 읍, 면장의 대량 파면과 또 1956년 《정 부통령 선거》 당시 200만표나 얻은 《진보당 당수》 조 봉암에 대한 투표률이 비교적 많았던 지역의 경찰서장들을 대폭 교체한 것으로써도 짐작할 수 있다.

리 승만은 남조선 인민들로부터는 물론 괴뢰 정부와 지어 리 승만 역도의 가장 믿음직한 지주로 삼고 있던 괴뢰군 내부에서까지도 반미 반리 승만 감정이 장성해 가고 있는 데서 그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배층 내부에서의 패거리 싸움은 괴뢰군 내부에까지 파급되게 되였으니 종래 내포하고 있던 괴뢰군 내의 내분이 다시 머리를 쳐들게 되였다.

이 내분을 반영하여 지난 2월 18일 괴뢰 륙군 제 6군 28사 《사단장》 서 정철이가 동 사단 제 1 대대장 《중령》 정 모에게 피살된 사건이 발생한 연후 륙군 참모 총장, 련합 참모 총장, 제 1군 사령관, 교육 총감 등을 포함한 괴뢰군 수뇌부의 대폭 이동이 실시되였다.

그리고 괴뢰 국방 당국은 이른바 탈모(脫毛) 비누 사건 등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괴뢰군 고위층의 독직 사건에 대한 남조선 사회계의 비난과 괴뢰군 내에서 장성되는 염군 기세를 제거할 의도 밑에 소위 《자가 숙청》의 선풍을 일으켜 금년 4월 중순부터 5월초에 이르는 기간에만 하여도 5명의 장령을 예비역에 편입시키고 20 여명의 헌병 및 특무 장교를 군직에서 제거하였으며 1,045명의 장교들을 퇴역 또는 예비역에 강제 편입시켰다.

이는 1956년 특무 대장 김 창룡 암살 사건이 있은 이후 괴뢰군 내부에서 의연히 파벌 싸움이 계속되며 사병들 속에서 반전 염군 사상이 드높아 가고 있는데 당황 망조한 리 승만 역도의 발악적 조치다.

그러기에 괴뢰 국회 《국방 위원회》도 괴뢰군 내부에 《모종의 내분과 알륵》 그리고 《군기 확립에 균렬》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괴뢰군 내의 이런 《자가 숙청》은 표면상으로는 련달아 탄로되는 소위 독직 사건에 대한 비등된 남조선 사회계의 불만을 무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듯이 가장하고 있으나 리 승만 역도가 추구하는 진의도는 기실 괴뢰 군대 내 파벌의 온상인 일본 사관 학교 및 만주 사관 학교 출신 《장병》들을 배제하고 순수한 미국식 군사 교육을 받은 자들로 그를 교체함으로써 괴뢰군 내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리 승만 도배의 이와 같은 술책은 그의 반동 통치의 지주로 되고 있는 괴뢰군조차도 오늘에 와서는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허덕이고 있는 리 승만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청천 벽력으로 된 것은 재일 조선 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 문제였다. 그것은 재일 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 문제가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위신을 여지없이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난 14년 간 그들의 악정의 후과를 더 론박할 여지없이 온 세상에 다시 한 번 론죄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사실 재일 동포들의 절대 다수가 남반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간 생지옥인 남조선으로가 아니라 사회주의 락원인 공화국 북반부에로 귀국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배에게 있어서 커다란 정치적 타격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독점체들을 대변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지까지도 《리 승만이가 재일 조선인들의 송환을 반대하는 진짜 리유는 그들이 북조선을 송환 희망지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남조선의 체면이 없어진 데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시 정부가 재일 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자 리 승만 도배는 《무력 행사》로써 이를 방해하겠다고 위협 공갈하면서 괴뢰 관권을 발동시켜 소위 《재일 한인 북송 반대 국민 운동》을 조작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있으며 괴뢰 국회에서는 그 주제에 재일 동포 《북송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야단법석을 하였다.

더우기 조일 량국 적십자 대표들의 제네바 회담이 진행되자 리 승만 도배는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리 범석, 장 택상, 김 활란 등을 소위 민간 대표로 제네바에 파견하여 야료를 부리는 등 갖은 책동을 다하게 하였다. 리 승만 도배의 이러한 책동에도 불구하고 조일 량국 적십자 대표단간의 회담이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되자 괴뢰 지배층 내부에서는 집안 싸움이 벌어져 또다시 망신 갑절하였다.

날이 갈수록 국내외적으로 더욱 고립된 리 승만 도배는 《국무 회의》 《각료 회의》를 련달아 소집하고 소위 대일 통상 단절을 결정하는 한편 《무력 행사도 불사》한다고 또다시 공갈하여 나섰다.

이와 동시에 리 승만 도배는 무슨 큰 변이나 생긴 것처럼 사실을 외곡 과장하면서 경찰과 테로단을 동원하여 인민들을 재일 동포 《북송 반대》 시위에로 내몰았다. 그러나 리 승만 도배가 민의 아닌 《민의》에 의하여 조작해 낸 《북송 반대》 데모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평론가는 《동아 일보》에서 《인산 인해를 이룬 수 많은 군중은 시위하는 행렬에 대하여 오불관여가 아니라 어느 집 개가 짖느냐는 표정이였다》고 하면서 《재일 교포들의 북송을 반대하기 위한 데모에 대하여 박수 한 번 만세 한 마디 불러 주지 않는다》고 리 승만 도배의 《민의》 도용을 조롱하였다.

그리고 리 승만 도배의 어용 단체인 《국민회》는 주일 괴뢰 대사의 파면을 요구하여 나섰으며 괴뢰 국회는 《외무부 장관》 조 정환을 불러내다 놓고 외교의 무능을 추궁하는 동시에 주일 괴뢰 대표부의 《인사 쇄신》을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일 동포의 공화국에로의 귀국 문제는 판이하게 다른 남북 조선의 두 현실에 비추어 그들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반영한 것이며 공화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동포애에 기초한 성숙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 승만 도배가 《외무부 장관》 조 정환과 괴뢰 주일 대사 류 태하의 볼기를 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개팔 망신하는 판에 리 승만은 일본에서의 자기의 유일한 지주로 간주하고 있던 《재 일 한국인 거류민단》으로부터도 반대를 받게 되였다. 망해 빠진 리 승만 도배에 매여 달려 봤자 얻어 먹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 《재일 한국인 거류민단》은 괴뢰 정부와 리 승만 《자유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성명하여 나섰으며 지난 6월 18일에는 5,000 여명의 《거류민단원》이 《재 일본 조선인 총련합회》에 가입 신청을 하게까지 되였다.

오늘 리 승만은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 대중으로부터 저주와 증오를 받고 있으며 지배층 내부에서도 불만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행정부》와 괴뢰 군대도 통솔해 나갈 수 없는 정도로 리 승만의 정치적 《신망과 위신》은 추락되고 있다.

또한 리 승만은 상전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을가 두려워하여 갖은 아부를 다 부리면서 마치 미제의 《축음기판》과 같이 《반공》 소동을 일으키며 또 상전의 지시만 있으면 어느 때라도 《북진》을 할 수 있다고 허장 성세를 하는 등 어리'광대 노릇에 여념이 없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허공에 뜬 리 승만은 《도깨비》와 같이 미쳐 날뛰고 있으나 남조선 경제의 전면적인 파탄은 그를 더욱 헤여 날 수 없는 궁지에로 몰아 넣고 있다.

리 승만 도배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괴뢰 정부의 재정 형편으로써는 20만의 괴뢰군 병력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괴뢰군 병력은 현역 70만 명과 로무 사단, 예비 사단을 합하면 근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더우기 리 승만 도배가 무력 증강에 미쳐 날뛰고 있는만큼 군사비는 매 년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적자의 루적으로 괴뢰 정부는 심각한 재정적 파국을 초래하고 있다.

1958년 9월 말 현재 재정 적자는 961억 환의 거액에 달하였는바 금년 상반년 간에는 《일반 회계》에서만 이미 255억 400만 환이나 적자를 내였다. 괴뢰 정부의 지폐가 휴지와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천문학적 수'자인 것이다.

이러한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리 승만 도배는 인민 수탈을 강화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 실로 남조선 인민들의 세금 부담액은 1953~1956년 간에만도 5.3배나 증대되였으며 1959년도에는 1957년보다 다시 1.7배로 증대되였다.

산업과 농업의 전면적인 파탄으로 오늘 남조선에는 660만을 헤아리는 실업자 및 반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매 년 300만 이상의 절량 농민들이 굶주림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다.

이에 가해지는 미제 침략군의 야수적 만행과 리 승만 도배의 살인적 폭압으로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4천년래의 민생고》에 신음하고 있으며 그들의 원성은 충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잡지 《신태양》에서 한 필자는 《백성이 정부를 믿지 않고 정부는 백성을 의심하게 되였다. 관은 위협과 혹형으로써 인민에 대하고 인민은 공포와 반항으로써 정부를 대하고 있다》라고 썼다. 또 한 필자는 동 잡지 1월호에서 《새 해는 왔건만》이란 표제 밑에 썩을 대로 썩어 대들'보가 부러져 가고 있는 괴뢰 통치 제도를 비난하면서 《해진 옷》과 같다고 비유하고 《해진 옷은 벗어 놓기 마련이다.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국가와 사회를 다 해진 옷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야유하였다.

이는 광범한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의 괴뢰 통치에 대한 반감이 날을 따라 더욱 팽배해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좋은 례증의 하나다.

남조선에서의 모든 사태 발전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허공에 뜬 리 승만의 통치 기반을 밑바닥으로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 각지에서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토지를 요구하며 략탈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6월 1일 부산에서는 미군 물자를 취급하는 2만 여명의 부두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궐기하였으며 인천 부두 로동자 2만 여명은 밀린 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여 일대 시위를 단행하였다.

충청북도 진천군 내 3,000 여명의 농민들은 《수세》 인상을 반대하여 괴뢰 당국에 쇄도하여 장사진을 치고 완강히 항거하였으며 경기도 고양군 중면에 거주하는 약 200명의 농민들은 자기들이 피땀을 흘려 개간한 토지를 강탈한 괴뢰 고위 관리들을 숙청하며 토지를 반환하라고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강제 징집과 식민지 노예 교육 및 학원의 모리장화를 반대하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동맹 휴학과 시위 사건이 련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과학, 문화 예술인, 언론인들의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중 소 상공업자들도 괴뢰 당국의 과중한 세금 략탈과 미국 잉여 상품의 범람을 반대 항의하는 투쟁 기세를 더욱 높이고 있다.

남조선 각계 각층 인민들의 이와 같은 투쟁의 불'길은 미군 철거를 요구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민족적 숙망과 밀접히 결부되여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그것은 작년 7월 《미제 침략자들은 원자 무기를 가지고 빨리 철수하라》고 쓴 삐라가 서울 한복판 미군 주둔 중심 지역에 뿌려진 이후 남조선에서의 미군의 철거와 평화적 조국 통일을 요구하는 삐라 살포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데서도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앙등되여 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기세는 폭발 전야의 분화구와도 같이 끓어 번지고 있다.

남조선의 이러한 정세에 대하여 쌘프랜씨스코 주재 괴뢰 총 령사 주 모라는 자까지도 《신태양》에 기고한 《조국을 본대로》라는 자기 론설에서 《80%의 공무원들이 정부가 개혁되기를 바라고 폭동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썼으며 또 미국 통신은 남조선에 조성된 현 사태를 인정하면서 반미 폭동이 《쉽사리 폭발할 수 있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불안을 표시하였다.

* *

이러한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치는 리 승만은 《도박》 정치와 전쟁

모험에 매달리고 있다.

리 승만 역도는 인민들을 기만할 목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기초와 가능성도 없는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을 비롯하여 허다한 계획들을 내걸었으나 그 중에서 《형무소 증설 3개년 계획》만이 초과 완수되고 그 외에 다른 계획들은 모두다 책상 서랍 안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또는 공념불로 화하고 말았다.

더우기 4대 《민의원》 선거에서 참패의 고배를 마신 후 리.승만 역도는 소위 민심을 《수습》한다는 명목하에 《선거》 직전에 공포한 이른바 공무원 처우 개선, 농어촌 고리채 정리, 인정 과세 폐지 등 《공약 3장》을 실현한다고 떠벌렸으나 그것마저 이제 와서는 꿩궈 먹은 자리와 같이 되고 말았다.

공장 문이 닫히지고 땅이 메말라 뼈만 앙상하게 된 남조선에서 인민의 고혈을 더 이상 짜낼 수 없게 된 리 승만 도배는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도박으로서 《난민 구제》, 《실업 구제》를 위한 《이민》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내걸고 노예 장사치로 나서고 있다.

리 승만 역도는 《이민》 책동을 통하여 자기들이 과거 14년 동안에 저질러 놓은 경제적 총 파탄을 마치 자연 조건에 의한 것인 것처럼 빙자 은폐하며 자기들에게 가장 불안한 요소로 되고 있는 실업자들과 또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외국에 노예로 팔아 추방함으로써 《정치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조선 인민은 물론 세계 량심의 치솟는 분격과 증오를 불러 일으켰으며 그들의 매국 배족적 정체를 다시 한 번 폭로했을 따름이다.

리 승만 《도박》 정치는 특히 전쟁 모험과 《반공》 소동에서 여실히 폭로되고 있는바 소위 《반공 지도자》로 자처하는 이 《한국판 히틀러》인 리 승만은 서산 락일의 운명에 허덕이는 상전에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반공》 소동과 《북진》 나발을 자기의 일과로 삼고 있다.

리 승만 역도는 지난 6월 서울에서 막을 올렸던 인간 쓰레기들의 전람장인 《아세아 민족 반공 대회》에서 상전 미제의 연출하에 주역을 놀았으며 이번 또다시 그의 주동하에 대만, 남부 월남, 비률빈, 타이 등 다리부러진 노루와 같은 존재들을 한데 모아 소위 《동북 아세아 정상 회담》을 열 것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남조선을 포함한 《5개국을 추축으로 하는 반공 기구》 창설을 촉진하기 위한 흉계를 꾸미게 될 것인바 이것 역시 미제의 조종하에 연출되는 리 승만 역도의 《도박》 정치의 한 항목이다.

상전의 추동하에 연출되는 이 어리'광대 노름에서 리 승만 도배는 자기들에게 겨누어지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려 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 어리석은 시도로 하여 그들은 전체 조선 인민과 전 세계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리 승만 역도는 《북진 통일》을 고창하면서 새 전쟁 도발에 최후의 도박을 걸어 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그러나 허공에 뜬 리 승만의 도박은 그 밑창이 다 드러나고 끝장이 날 때가 되었다.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 자료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서의 인민 정권의 수립과 그의 혁명적 시책

박 진 제

1930년대 초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항일 무장 투쟁에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합법칙적 발전 과정이였다.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새로운 무장 투쟁 단계에로의 발전은 유격 근거지 창설에 대한 문제를 불가피하게 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혁명 근거지 창설 문제는 식민지 예속 국가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 중요한 전략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 나라가 처한 사회 력사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였다. 보통 유격전이란 자기 후방의 원호, 정규군과의 배합 작전 및 그의 성원하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항일 무장 투쟁은 공고한 물질적 후방과 정규군의 지원이 없이 모든 것을 적 통치 구역 내 인민들에게 의거하여 자체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였고 량적으로나 그의 무장 장비에 있어서 우세한 일제 침략 군대를 상대로 하는 장기성과 간고성을 예견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특히 당시 일제의 파쑈적 폭압이 우심하고 항일 무장 력량에 대한 대규모적인 《토벌》과 인민 대중에 대한 학살 정책이 강화된 그러한 조건하에서 적의 탄압으로부터 혁명 력량을 보존하며 근거지 내에 인민 정권을 수립하고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혁명 군중을 항일 유격대의 주위에 굳게 단결시키며 나아가서는 적 통치 구역에까지도 혁명의 씨앗을 뿌려 반일 력량을 가일층 확대하여야만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유격 근거지에 지탱하여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며 유격대의 공고한 후방을 조성함으로써 적은 력량으로 강대한 적을 타승하며 유격 대오의 부단한 장성과 확대 강화를 기하여야만 하였다. 당시에 제기되였던 이러한 혁명 과업은 유격 근거지 창설 문제를 당면한 일정에 오르게 하였다. 특히 날이 갈수록 항일 무장 력량이 장성되고 무장 투쟁이 대중 운동과 밀접히 결합됨에 따라 유격 근거지 창설 문제는 지체할 수 없는 당면한 실천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 첫 시기부터 유격 근거지 창설 문제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실로 당시에 조성되였던 정세하에서 유격 근거지의 옳바른 창설은 항일 무장 투쟁을 확대 발전시키며 조선 혁명을 더욱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유격 근거지 창설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당시에 조성되였던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조선의 북부 국경 지대에 린접한 동만 일대에 유격 근거지를 창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조선의 북부 국경 지대에 유격 근거지를 창설할 방침을 제시한 것은 전적으로 정당한 조치였다.

일제의 파쑈적 탄압이 극심하고 놈들의 대병력이 집중되여 있는 조선 국내에 유격 근거지를 창설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국내의 혁명 력량과 긴밀한 련계를 보장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에는 더욱 창설할 수 없는 것이였다. 때문에 국내 혁명 력량과 련계를 보장함에 있어서와 적들의 공격을 성과적으로 격퇴함에 있어서 또한 혁명 력량을 결속시킴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진 동만 일대에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 지대는 또한 반일 력량이 강하고 대중의 정치적 토대가 견고하며 쏘련과 린접하여 있으므로 국제 혁명 력량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서도 유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쏘련

에 대한 일제의 각종 도발적 진출을 좌절시킴에 있어서와 일제를 공동의 적으로 하고 있는 조 중 인민간의 형제적 동맹을 강화하는 데서도 유리하였다.

그러므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가진 동만 일대에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량적으로 우세한 적들에게 4면을 포위 당한 조건하에서 또 적들의 계속되는 정치, 군사적 《공격》을 격파하면서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여야 했던 것만큼 이 사업은 매우 간고한 투쟁이였다.

일제는 근거지 창설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련일 이 지역에 대한 《토벌》을 감행함과 동시에 동만 지방의 인민들을 대중적으로 학살하였다. 놈들은 인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과 함께 갖은 악선전과 위협으로써 유격대와 인민들 간의 련계를 끊어 버리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발악과 시도를 격파하면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군중을 중심으로 하여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를 창설하였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는 왕청현, 연길현, 훈춘현, 화룡현, 안도현 일대에 창설되였다. 유격 근거지는 점차 확대되여 넓은 지역을 포괄하게 되였으며 적이 집중되여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이 항일 유격대의 세력하에 있었다. 이리하여 항일 유격대는 무장 투쟁의 첫 시기부터 광범한 지역에 창설된 자기의 튼튼한 유격 근거지에 의거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일보를 내디디게 되었다.

* *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창설된 유격 근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공고히 하며 혁명 력량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선 무엇보다도 항일 유격대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꾸리는 데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근거지 내에 이미 조직되여 있던 공산당 단체들을 정비 강화하고 당 력량을 부단히 확대하였으며 군중 단체에 대한 당적 지도를 보장하였다. 이 시기 당 단체들의 지도하에 《반일회》, 《반제 동맹》, 《농민 협회》, 《반일 자위대》, 《반일 부녀회》, 《호제회》, 《소년 선봉대》 등 군중 단체들이 대중 속에 더욱 깊이 뿌리를 박고 자기 조직을 확대하여 갔다. 이 군중 단체들은 당의 인전대로서 무장 투쟁과 대중을 련결시키며 무장 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하기 위한 거점으로 되였다. 또한 이 단체들은 당 단체의 지도하에 대중 속에서 정치 교양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여 인민들의 계급적 각성을 제고시켰으며 인민 대중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반일 투쟁에 더욱 힘차게 조직 동원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군중 단체들에 대한 당적 지도 체계가 확립되고 대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제고된 조건하에서 근거지 내에서 인민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모든 혁명에 있어서 주권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기본 문제이다. 피압박 대중이 착취 계급을 타도하고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의 강력한 무기인 주권을 자기 수중에 틀어 쥐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서의 주권에 대한 문제는 당시 공산주의자들 앞에 제기되였던 이러한 일반적 임무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여 있었다. 그것은 주권에 대한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을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근거지 내 인민들에게 혁명의 전망과 최후 승리에 대한 신심을 확고히 넣어 주며 나아가서는 적들의 통치 구역 내 인민들에게까지 강력한 정치적 영향을 줌으로써 더욱 광범한 인민 대중을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에 인입할 필요성이 긴절하였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적들의 무력 침공이 계속되는 조건은 인민 정권을 통하여 근거지 내에서 정치, 군사, 경제, 교육, 보건, 량정 등 정확한 인민적 정책들을 관철시킴으로써 근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공고화하고 적의 침해로부터 근거지를 보위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여야 할 과업을 절실하게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유격 근거지 창설과 그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의 불'길 속에서 광범한 인민 대중의 참가하에 인민 정권을 수립하는 사업에 직접 착수하였다.

1933년 3월에 왕청현에서 소집된 동만 일대에서 활동하던 주요 간부들의 회의에서는 당시 국내외의 정세를 분석하고 새로 조성된 정세에 적응하게 광범한 계층을 망라하는 인민 혁명 정부를 수립할 데 대한 로선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혁명 발전의 객관적 요구였다.

1930년대에 구라파와 아세아에서의 파씨즘의 대두와 국제 정세에서의 일련의 새로운 변화들은 개별적 나라들에서 그 나라 혁명 정세에 적응하게 광범한 계층을 포괄하는 새 형태의 정권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쏘련이 존재하고 그 위력이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제기된 성숙된 문제였다.

더우기 당시 우리 나라에 조성되였던 정세는 이를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였었다. 1931년 9월 만주를 강점한 일제는 만주에서의 자기 지반을 강화함은 물론 중국 본토와 쏘련을 침략하기 위한 책동을 감행하면서 조선에 대한 략탈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것은 일제와 조선 민족 간의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켰다. 때문에 로동 계급과 농민은 물론 량심적인 민족 부르죠아지까지도 반제 민족 해방 혁명에 더욱 참가하게 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내에 1932년 말에 창설되였던 《쏘베트》를 더욱 광범한 사회적 지반을 가진 인민 혁명 정부로 개편 발전시킬 데 대한 로선은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였다.

그러나 당시 종파 분자들과 기회주의 분자들은 《혁명적》인 언사로써 자체를 가장하면서 이 정당한 로선을 반대하여 나섰다. 이들은 인민 혁명 정부 대신에 《쏘베트》를 고집하면서 인민 혁명 정부 수립을 방해하려고 시도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인민 혁명 정부 로선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반일 통일 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방침을 내세우고 이에 토대한 정권 수립에 대중을 인도한 결과 1933년 봄에 유격 근거지들에 구(區) 인민 혁명 정부를 수립하였다. 인민 혁명 정부에는 로동자, 농민을 기본으로 하는 각계 각층 인민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인민 혁명 정부는 철두 철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자기의 정강을 발표하였다.

정강은 인민 정권의 기본 임무로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괴뢰 만주국을 전복하고 조 중 인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임무를 가진 인민 혁명 정부는 극소수의 매국적 민족 반역자, 친일 분자를 제외한 모든 공민들의 동등권을 보장하며 토지 개혁을 비롯한 8시간 로동제와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또 정강에는 인민 무력의 창설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제 민족의 자결과 평등권을 확립할 것도 강조되였었다.

인민 혁명 정부는 당 단체의 지도 밑에 자기의 정강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인민 혁명 정부는 근거지 방위 사업, 인민들에 대한 정치 문화 교양 사업, 경제 조직 사업 등 근거지 내 일체의 정치,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 지도하였다.

인민 혁명 정부는 우선 유격 근거지 내에서 일제와 그 주구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반일 군비에 충당하거나 그의 일부분으로 빈민들을 구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민주주의 혁명에서 기본 내용으로 되는 토지와 농민 문제를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였다. 토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농민 대중의 처지와 그들의 요구 및 리해 관계를 엄격히 고려하여 개인 소유의 형태로 해결하였으며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정부는 근거지 행정 구역 내의 토지를 전부 조사 장악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여 주었다. 토지는 가족수와 로력수에 의하여 고농과 극빈농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여 주고 기타 토지 적은 농민들에게 분배하여 주었다. 그리고 정부는 농민들에 대한 종래의 일체 부채와 가렴 잡세를 폐지하였다.

인민 혁명 정부는 당 단체의 지도 밑에 농업 생산을 장성시키며 식량을 증산하기 위한 투쟁에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였다. 정부는 농민들을 식량 증산에로 조직 동원하는 한편 부족되는 종곡과 축력, 농기구들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로력이 부족한 유격대원의 가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많은 편리를 도모하여 주었다. 이리하여 농민들은 로력과 축력, 농기구 등이 부족한 제반 애로와 난관들을 용감히 극복 타개하면서 호상 협조의 정신을 발휘하여 농사를 지었다. 특히 다수 지역들에서는 적들의 계속되는 《토벌》에 대처하여 일제와 친일 지주들로부터 몰수한 토지를 반일 자위대들이 중심이 되여 공동적으로 경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일 자위대원들은 유격대원들과 혼연 일체가 되여 손에 무기를 들고 적과 직접 싸우면서 농사를 지었다. 생산된 농산물은 유격대의 군량으로 보냈으며 근거지 내 빈민들을 구제하는 데도 리용하였다. 정부는 농업 생산을 발전시킴과 함께 산을 적극 리용하는 방침을 제시하여 수렵을 조직하였으며 산채를 캐는 사업을 광범히 장려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근거지의 정치, 경제, 군사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유격 근거지 내 경제 사업은 적들의 《경제 봉쇄 정책》과 대중적인 학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심히 간고한 투쟁 속에서 진행되였다. 적들은

유격 근거지를 소멸하기 위하여 침습해 올 때마다 곡식더미와 주민의 가옥들을 불살라 버렸으며 근거지 내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은 때에 따라 식량이 떨어져서 산채와 풀뿌리로 연명하면서도 조금도 락심하거나 굴하지 않았으며 오직 조국 해방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유격대를 도왔으며 정부의 제반 시책을 받들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인민 혁명 정부는 근거지 내 인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련의 사회적 개혁들도 실시하였다. 정부는 자기의 정강에 기초하여 유격 근거지 내의 로동자, 농민, 유격대의 병사, 군관들을 비롯한 일체의 반일, 반만, 반제 대중들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가 인민 혁명 정부의 동등한 공민으로 되며 평등권을 가진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이와 함께 남녀 평등권을 선포하여 녀성들의 사회적 처지를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이리하여 근거지 내 인민들은 처음으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게 되였으며 자유로운 생활을 향유하게 되였다. 그들은 유격대의 적극적인 방조하에 일제를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에서 서로 돕고 원조하면서 오직 유격대의 승리를 위하여 공동 투쟁을 전개하였다.

인민 혁명 정부는 근거지 내에서 교육 문화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제 대책들을 실시하였다. 일제와 괴뢰 만주국의 부패한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민주주의적 교육 제도를 수립하였다. 정부는 맑스-레닌주의의 선진 과학에 기초하여 교육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였다. 초기에 설치하였던 큰 학교들은 적의 《토벌》이 심하여짐에따라 골짜기마다 분교 형식으로 설치하고 적령 아동들을 전부 취학시켜 교육을 받게 하였다. 정부는 아동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어, 산수를 비롯한 기타 여러가지 교과서와 요강을 작성 배포하여 주었다. 그러나 학습에는 적지 않은 애로들이 있었다. 당시 학생들은 종이가 부족하여 널판지 칠판을 리용하여 공부하군 하였다.

정부는 학과 학습과 군사 교육 및 생산 교육과의 결합에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학생들은 적의 《토벌》이 심하였으므로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학습하였다. 학생들은 일과에 의하여 공부를 한 후 군사 훈련과 생산에 직접 참가하였다.

학생들은 당 단체의 지도하에 《아동단》을 조직하고 조직 생활을 통하여 혁명 정신과 규률을 배양하였다. 아동단원들은 붉은 넥타이를 매고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배낭 속에는 비상용 책, 노트, 소금, 량식 등이 들어 있었으며 반드시 곤봉을 갖고 적들과 싸울 태세를 갖춤으로써 적을 증오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혁명 정신으로 자신을 단련하기에 노력하였다.

인민 혁명 정부는 문맹을 퇴치하는 일련의 사업을 조직 진행하였으며 인민들 속에서 각종 문화 사업을 광범히 조직하였다. 정부는 인민 대중 속에 혁명 가요와 연극 등을 보급하여 인민들의 애국심과 사기를 고무하였다.

인민 혁명 정부는 또한 화약 공장, 병기창 및 병원, 통신 기관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항일 유격대의 후방 사업을 적극 보장하여 주었다.

항일 유격대와 근거지 내 인민들은 폭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조하에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여 《고추 폭탄》으로부터 《연길 폭탄》이란 보다 위력있는 폭탄까지 제조하였다. 인민들에 의하여 대량적으로 제조된 폭탄을 가지고 유격대원들은 적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주어 많은 무기를 획득하여 자기의 무장 장비를 일층 강화하였다.

항일 유격대는 인민들의 애국적 창발성에 의하여 달성된 폭탄 제조의 성과와 경험을 다른 근거지 내 인민들에게 일반화하기 위하여 경험 교환의 형식을 통하여 그의 제조 방법, 사용 방법 등을 널리 보급하였다.

인민 혁명 정부는 적의 《토벌》이 심한 조건하에서 안전한 지대를 선택하여 병원을 설치하였다. 병원에는 의사, 위생원이 있었으며 약품 및 의료 기구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환자들을 적극 치료하여 주었다.

인민 혁명 정부는 또한 근거지 보위를 위하여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근거지 내 청장년들은 모두가 반일 자위대에 참가하였다. 정부는 반일 자위대원들과 소년 선봉대원들에게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청장년들은 물론 소년, 아동들에 이르기까지 항일 유격대와 함께 근거지 보위의 초소에 서서 싸웠다. 반일 자위대원들과 소년 선봉대원들은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근거지 구역을 경비하였으며 적들이 침입해 오면 유격대와 같이 싸웠다. 아동단원들도 어른들에 못지 않게 적들에 대한 정보를 제때에 유격대에 전달하여 주는 등으로 용감히 싸웠다.

이상과 같이 인민 혁명 정부는 자기 앞에 부과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하였으며 계속 실행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근거지 내 인민들을 정부와 항일 유격대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시켰다. 자기의 튼튼한 대중적 지반을 가진 유격대는 급속히 장성하게 되였다. 유격대의 대렬은 로동자, 농민 그리고 근거지 내 청년들에 의하여 계속 장성되였으며 그의 무장 장비도 날이 갈수록 강화되여 갔다. 이러한 사실들은 적 통치 구역 내 인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을 반일 투쟁에로 적극 고무하였다. 이리하여 근거지를 지반으로 혁명의 불'길은 점차 만주와 국내에서 더욱 파도치게 되였다.

❊ ❊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항일 유격대와 근거지 내 인민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창건한 인민 혁명 정부와 혁명적 전취물들을 철옹성같이 옹호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침입해 온 일제 침략 군대들과 영웅적으로 싸웠다.

일제는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창설 초기부터 그를 소멸하기 위하여 대병력을 동원하여 근거지에 대한 악랄한 《토벌》 작전을 계속 감행하였다. 특히 유격 근거지를 지반으로 하여 항일 유격대의 무장력이 일층 장성 강화된 1933~1934년 동기에는 왕청현 근거지와 연길현 근거지를 비롯한 각 유격 근거지들에 대한 대규모적 《토벌》 작전을 감행하였다.

당시 소왕청 유격 근거지는 동만 지방에서의 중심 근거지였으며 여기에는 유격대의 기본 지휘 간부들이 있었다. 일제는 관동군, 위만군, 라남 제 19사단의 주력 부대까지 동원하여 1933년 4월에 이 지역에 공격하여 왔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의 직접 지휘하에 유격대와 근거지 내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결과 적의 대규모적 공격을 성과있게 격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 400 여명을 살상 포로하고 많은 군수품들을 로획하였다. 소왕청 방어 전투는 유격 근거지 창설 이래 적들의 대규모적인 진공을 격파한 첫 전투였으며 동시에 최초의 큰 승리였다. 따라서 이 전투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유격대와 근거지 내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무장 대오와 근거지 확대 강화에 큰 추동을 주었다.

그 뿐만 아니라 1933년 하반기에는 또다시 왕청현과 연길현의 근거지를 포위 공격해 온 적들을 격멸 소탕하였고 1934년 6월에는 왕청현 라자구 진공 전투를 전개하여 적군 1개 대대를 완전히 소멸하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유격 근거지를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보위하며 자기들의 혁명적 전취물을 사수하기 위한 항일 유격대와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토벌》에서 매걸음마다 패배를 거듭한 적들은 《토벌》과 함께 유격 근거지에 대한 《봉쇄 정책》을 감행하였다. 적들은 유격 근거지 주위에 집단 부락을 설치하고 경찰서와 《자위단》을 배치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유격대와 인민들 간의 련계를 끊어 버리려고 하였으며 자기들의 통치 구역 내 인민들과 근거지 내 인민들 간의 경제적 거래를 일체 단절케 하여 근거지를 경제적으로 압살하여 보려고 시도하였다.

적들은 또한 근거지에 대한 정치 사상적 공세를 강화하면서 《민생단》이란 간첩 단체를 조직하여 근거지에 침투시킴으로써 유격대를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보려고 발광하였다.

적들은 유격 근거지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적들은 근거지에 대한 《청야 전술(淸野戰術)》을 감행하면서 《모든 것을 태워 버리라》라는 구호하에 근거지 내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으며 가옥과 재산을 모조리 파괴 소각하였다. 이리하여 근거지 내 인민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집과 모든 가장 집물 그리고 사랑하는 처자 동생들을 잃어 버렸으며 먹을 것, 입을 것도 없게 되였다.

그러나 유격대원들과 근거지 내 인민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기들에게 온갖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여 준 인민 혁명 정부와 혁명적 전취물들을 고수하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워 이겼다. 유격대원들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적들의 만행이 악랄해지면 질수록 더욱더 용감하게 싸우면서 인민들을 적들의 학살로부터 구원하였으며 그들을 인내성있게 교양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근거지를 피로써 사수하였다. 그들은 힘에 겨운 적들이 침습해 왔을 때에는 인민들과 더불어 근거지에서 철수하여 산 속으로 들어 갔으며 다시 인민들과 더불어 적을 격멸 소탕하면서 근거지에로 돌아 오군 하였다. 이리하여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그야말로 일심 동체가 되여 적들과 싸웠으며 적들이 파괴 소각한 빈터에 다시 집을 짓고(어떤 집터에는 32회나 새 집이 세워졌다) 생활을 복구하기에 모든 힘을 다하군 하였다.

이와 같이 항일 유격대와 근거지 내 인민들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옳바른 령도 밑에 인민 혁명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되여 항일 유격대와 인민들 간의 튼튼한 련계를 보장하였으며 전체 인민이 무장을 들고 영웅적으로 싸운 결과 자기의 주권과 혁명적 전취물들을 적의 침입으로부터 사수하였으며 걸음마다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 *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창설한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와 인민 혁명 정부가 실시한 제반 시책들은 항일 무장 투쟁과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확립된 정치, 군사 로선과 이에 따르는 제반 정책들의 정당성이 유격 근거지에서의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인민 대중에게 정확하게 체득됨으로써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전반적 발전과 항일 무장 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그것이다.

유격 근거지 내에 창설된 인민 혁명 정부의 거대한 생활력은 비단 근거지 내 인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적들의 통치 구역 내 인민들과 조선 국내의 인민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항일 무장 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더욱 확대 공고화하였다.

유격 근거지에서 실시한 제반 혁명적 시책들과 또 그를 사수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대중 속에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위신이 일층 제고되였으며 그의 지도적 핵심은 더욱 강화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간고한 투쟁 행정에서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 불건실한 분자들과 타락 분자들은 혁명 대렬에서 제거되고 공산주의 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일층 강화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근거지 내 인민 대중은 혁명 투쟁의 간고한 시련을 통하여 혁명 투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였으며 강력한 혁명 력량으로 육성되고 단련되였다.

그것은 또한 유격 근거지를 중심으로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였으며 근거지 내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유격 투쟁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일으킨 데 있다.

유격 근거지 내에서의 광범한 인민 대중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가 밑에 특히는 적들과의 투쟁 행정에서 항일 유격대는 군사 조직적으로 급속히 장성 강화되였으며 1934년 봄에는 동북 각지의 유격대들이 통합되여 조선 인민 혁명군이 창건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의 창건은 분산적인 소규모적 투쟁으로부터 기동적인 대규모적 유격 투쟁에로의 발전을 가능케 하였으며 유격 근거지 방위 전투로부터 광활한 지역에로의 진출을 보장케 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장성된 무장 력량과 근거지 내에 조성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1935년 봄에 새로운 전술적 방침을 수립하게 되였다. 이 시기 근거지 내 형편은 매우 곤난하였다. 적들의 계속되는 《토벌》과 《봉쇄 정책》으로 말미암아 적 통치 구역과는 물론 근거지 호상 간의 긴밀한 련계도 가지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근거지 내 인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난관들이 중첩되게 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근거지 보위를 위한 피동적인 작전만을 수행한다는 것은 장성 강화되는 항일 무장 투쟁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근거지 보위에 많은 력량을 경주하게 된다면 광활한 지역에 진출하여 적에게 보다 큰 타격을 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광활한 지역에 진출하여 적들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며 만주와 국내의 넓은 지역에 혁명의 씨앗을 더욱 깊게 뿌리기 위하여 1935년에 동만의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를 해산하고 기동적이고 대규모적인 유격 투쟁에로 이행하였다.

또한 그 의의는 유격 근거지 내에서의 인민 혁명 정부의 수립과 민주 개혁의 실시로서 조선 혁명이 장차 실현할 새 사회의 현실적 원형을 창조한 데 있다.

유격 근거지에서의 인민 정권의 수립과 민주 개혁의 실시 및 혁명적 전취물들을 사수하기 위한 고귀한 투쟁 경험들은 그 후 조국 광복회의 10대 강령의 기초로 되였으며 이 강령에서 더욱 정식화되였다.

이는 또한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한 인민 정권 수립과 민주 개혁 실시의 고귀한 거울로 되였고 그의 혁명 전통으로 되였다.

이러한 혁명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조선 인민은 해방 후 국내외의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면서 인민의 진정한 주권 기관인 인민 위원회를 창건하고 제반 민주 개혁들을 성과있게 수행할 수 있었으며 적들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우리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하고 오늘 보는 바와 같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거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근 로 자》 제 8호 (루계 165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 • 근 로 자 사
발 행 • 1959년 8월 15일
인 쇄 소 •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인 쇄 • 1959년 8월 10일

ㄱ—30489 값 50 전

서 적 안 내

레닌 전집 제 29권

4×6판, 예정 페지 750페지, 예정 값 1원 50전,
발행 부수 12,000부, 발행 예정 8월.

본 권에는 1919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시기의 레닌의 론문, 보고, 연설 등이 수록되여 있다.

이 저작들에는 레닌의 이 시기의 국가적 활동이 반영되여 있으며 이 시기의 공산당과 쏘베트 정권의 중요한 정치적 문제였던 국방 문제, 중농에 대한 태도, 경제적 난관파의 투쟁 문제 등이 해명되여 있다.

본 권에는 《로씨야 공산당(볼쉐위크) 강령 초안》, 로씨야 공산당 제 8차 대회에서의 《당 강령에 대한 보고》, 《농촌 사업에 관한 보고》, 《중농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결의문》, 《웽그리야 로동자들에게 보내는 인사》, 《위대한 발기》, 《모두다 제니낀과의 투쟁에로!》, 《쏘베트 정권의 현 정세와 당면 과업》, 《국가에 관하여》, 《제 3 인터나쑈날과 력사에 있어서의 그의 지위》, 《제 3 인터나쑈날의 과업에 관하여》 및 기타 론문들이 수록되여 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과 조선 로동당에 의한 그의 창조적 적용

4×6판, 예정 페지 160페지, 예정 값 35전,
발행 부수 10,000부, 발행 예정 9월.

이 책은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여 있는바 첫 부분에서는 과도기에 있어서 우리 당 경제 정책의 리론적 기초로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이 서술되여 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제 특성이 해명되여 있다. 세째 부분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레닌적 강령이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명확히 해명하여 주고 있다.

이 책은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당성이 각 방면으로 심오하게 론증된 리론 서적으로서 독자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상 서적들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1959년 8월